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문지영
강문수
박민숙
김영선
정민지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문지영 · 강문수 · 박민숙 · 김영선 · 정민지

연구보고서 23-36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유월애 02-859-2278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898-4 94320

978-89-322-1072-8(세트)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도의 간소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해외직접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였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미중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진출과 자원확보에 용이한 대개도국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중국의 국가경제 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및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M&A 투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규제는 EU 지역에서도 나타나 중국의 대EU 투자가 축소했다. 둘째,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면서 투자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증가했다. 이전의 투자 방식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M&A 중심이었으나, 시진핑 정부 2기에는 M&A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린필드 투자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와 주요 투자 분야가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대미국·대EU 투자는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및 금융과 함께 교통·운수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운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투자 동기 변화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전략과 현황, 주요 분야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와 대상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 협력 수준,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전략, 자원 확보, 시장 개척,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이 중첩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각 시기마다 중점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 투자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아세안 및 중동지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적·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익 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되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

에서는 에너지와 금속·광물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원자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에너지와 금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물류와 농업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체 인프라 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 그린·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델 창출, △ 한·중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약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협력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협의를 통해 양자 간 정부소통 채널과 함께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중국은 이러한 정부협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최근의 경제안보 개념과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도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러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최근 개도국 대상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가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외에 그린·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델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개도국의 신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외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 제3국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며 그린·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장비·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2. 선행연구	23
3. 연구 방법 및 구성	25
가. 연구 방법	25
나. 연구의 구성	26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27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8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8
나. 금융위기 이후, 후진타오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2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8
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40
나.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 육성 제시	42
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45
라. 해외직접투자 관리제도 도입	48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50
가. 전략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장려	52
나. 해외직접투자의 규범화	54
다. 일대일로 전략의 고도화	57
라. 새로운 해외투자 모멘텀 창출: 녹색산업 및 디지털 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강화	60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64
가. 데이터 비교	64
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67
5. 소결	74
제3장 중국의 대미·대EU 해외직접투자	81
1. 개요	82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84
가. 미국	85
나. EU	93
3. 분야별 투자 특징	105
가. 교통·운송 분야	105
나. 에너지 분야	109
다. 기술 분야	113
4. 소결	115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119
1. 개요	120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124
가. 아세안	124
나. 중동	132
3. 분야별 투자 특징	138
가. 에너지 분야	138
나. 교통·운송 분야	144

다. 기술 분야	147
4. 소결	149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153
1. 개요	154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159
가. 아프리카	159
나. 중남미	169
3. 분야별 투자 특징	178
가. 에너지 분야	178
나. 금속·광물자원 분야	188
다. 교통·운송 분야	194
라. 농업 분야	198
4. 소결	20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3
1. 요약 및 평가	204
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204
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206
2. 시사점	213
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213
나. 그린·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	215
다. 한·중 간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	217

참고문헌 220

부록 237

Executive Summary 240



표 차례

표 2-1.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1
표 2-2.	후진타오 정부 2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4
표 2-3.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추진 현황	36
표 2-4.	시진핑 정부 1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9
표 2-5.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6대 경제회랑	46
표 2-6.	시진핑 정부 2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50
표 2-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산업 정책 변화	53
표 2-8.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주요 내용	58
표 2-9.	중국 상무부와 AEI 비금융업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비교	66
표 2-10.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75
표 3-1.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규제 주요 사례(2017~21년)	87
표 3-2.	중국의 대미 기업유형별 그린·브라운 필드 투자	91
표 3-3.	중국의 대미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92
표 3-4.	시기별 중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 추이	96
표 3-5.	EU가 규제한 중국의 대EU 투자 사례(2022년)	98
표 3-6.	중국의 투자유형별 상위 10대 대EU 투자 사례	101
표 3-7.	중국의 대EU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03
표 3-8.	중국의 상위 10대 대EU 분야별 투자 사례	104
표 3-9.	교통·운수 분야 중국의 EU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08
표 3-10.	중국의 대EU 에너지 분야 해외직접투자 현황	112
표 3-11.	중국의 대미 기술 분야 주요투자 사례	114
표 3-12.	중국의 대EU 기술 분야 해외직접투자 현황	115
표 4-1.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상위 15개 국가(투자액 기준)	121
표 4-2.	중국의 대아시아 분야별 직접투자 현황	123
표 4-3.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	128

표 4-4.	중국의 대아세안 분야별 직접투자 현황	130
표 4-5.	중국의 대중동지역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	135
표 4-6.	중국의 대중동지역 분야별 직접투자 현황	137
표 4-7.	중국의 대아시아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상위 10개 국가 (시진핑 정부 2기)	139
표 4-8.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현황	140
표 4-9.	중국의 증동 주요국에 대한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현황	141
표 4-10.	중국의 대아세안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현황	143
표 4-11.	중국의 대아시아 교통·운송 분야 직접투자 상위 국가	145
표 4-12.	중국의 대아시아 기술 분야 직접투자 상위 10개 국가	147
표 5-1.	중국의 에너지 및 금속·광물 분야 지역별 FDI 비중 및 총계 추이	155
표 5-2.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의 주요 내용	162
표 5-3.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65
표 5-4.	중국의 대아프리카 시기별·분야별 투자 추이	169
표 5-5.	중국의 대중남미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73
표 5-6.	중국의 대중남미 시기별·분야별 투자 추이	178
표 5-7.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에너지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181
표 5-8.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에너지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184
표 5-9.	중국의 시기별 대브라질 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	185
표 5-10.	중국의 대아프리카 금속·광물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189
표 5-11.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금속·광물 자원 투자 내용	190
표 5-12.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금속·광물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192
표 5-13.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교통·운송·물류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196

표 5-14.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교통·운송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	198
표 5-15.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농업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199
표 6-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총괄표	210
표 6-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사우디 투자협력 연표	215
표 6-3.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216
표 6-4. 한·중의 제3국 공동진출 사례	219
부록 표 1. AEI DB의 아시아 지역별 국가 리스트	238



그림 차례

그림 1-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상무부 통계)	22
그림 2-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기관별 비교)	65
그림 2-2. 중국의 일대일로와 전체 지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비교	68
그림 2-3.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AEI)	69
그림 2-4. 중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71
그림 2-5. 중국의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72
그림 2-6.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유형 비중	74
그림 3-1. 중국의 대미·대EU 해외직접투자 추이	83
그림 3-2. 중국의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83
그림 3-3. 중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86
그림 3-4. 중국의 대미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89
그림 3-5. 중국의 대미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90
그림 3-6. 중국의 대유럽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94
그림 3-7. 중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 추이	95
그림 3-8. 중국의 유럽 내 빅3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추이	97
그림 3-9. 중국의 대EU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00
그림 3-10. 중국의 대EU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02
그림 3-11. 중국의 대미·대EU EV 공급망 구축 현황	106
그림 3-12. 중국의 대미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110
그림 3-13. 중국의 대EU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111
그림 3-14. 중국의 대미·대EU 기술 분야 투자 현황	113
그림 4-1.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추이(중국 상무부 기준)	120
그림 4-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분포	120
그림 4-3.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추이	121
그림 4-4.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직접투자 추이	122

그림 4-5.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직접투자 비중	122
그림 4-6.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추이(중국 상무부 기준)	127
그림 4-7.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추이(AEI 기준)	128
그림 4-8.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별 직접투자 추이	129
그림 4-9. 중국의 대아세안 분야별 직접투자 비중 (2008~22년 누계)	130
그림 4-10.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131
그림 4-11. 중국의 대아세안 기업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131
그림 4-12. 중국의 대중동지역 직접투자 추이	135
그림 4-13. 중국의 대중동지역 국가별 직접투자 추이	136
그림 4-14. 중국의 대중동지역 분야별 직접투자 비중 (2008~22년 누계)	137
그림 4-15. 중국의 대중동지역 투자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137
그림 4-16. 중국의 대중동지역 기업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137
그림 4-17.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추이	139
그림 4-18.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교통·운송 분야 직접투자 추이	145
그림 4-19.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기술 분야 직접투자 추이	147
그림 5-1. 중국의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FDI 비중	155
그림 5-2. 중국의 대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추이	156
그림 5-3. 중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158
그림 5-4. 중국의 대아프리카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67
그림 5-5. 중국의 대아프리카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68
그림 5-6. 중국의 대중남미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75
그림 5-7. 중국의 대중남미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7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의 향상과 함께 확대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 기업 해외 진출을 장려한 ‘저우추취(走出去)’ 정책 지원,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과 함께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 금융, 기술, 공급망 등의 통합 수준의 향상으로 고효율 분업과 저비용 생산의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수요가 존재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내 경제의 성장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보유하게 된 중국기업들은 수익성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에서 공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08년 이후부터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는 4,678억 달러 감소하였고, 이 중 미국은 852억 달러 감소, EU는 3,415억 달러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규모(265억 달러) 대비 294억 달러 증가한 559억 달러를 기록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¹⁾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부동산, 가전,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 수익성 산업의 투자도 많이 있었지만,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M&A도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로 드러난 중국의 강국 전략 야심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8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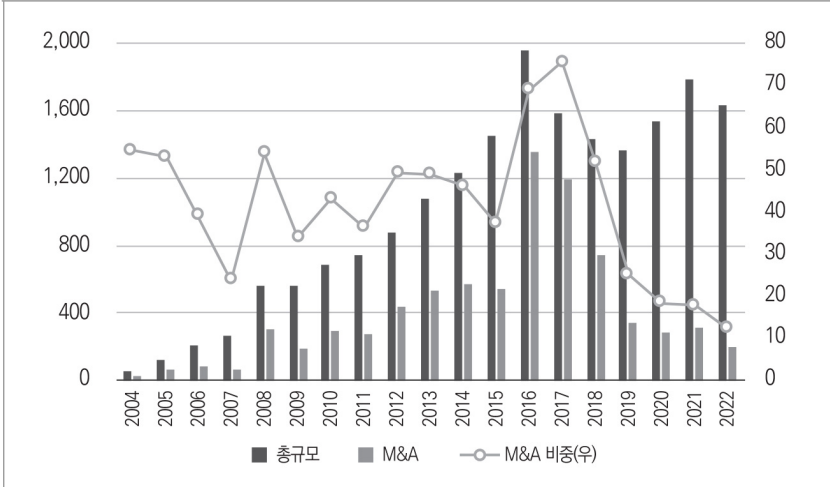
1) UNCTAD(검색일: 2023. 8. 2).

다. 중국은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전략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장려와 일대일로 고도화 및 쌍순환과 같은 새로운 국가전략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중 갈등의 심화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가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이례적인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블록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 경제 전망의 약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 이념 간의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협력 구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 갈등의 중심에는 글로벌 사회의 대중국 견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대중국 견제는 초반 중국에 대한 무역 수출통제와 기술 제재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제재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의 해외진출 전략과 해외직접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듯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상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까지 무섭게 확대되던 중국의 M&A 방식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8년부터 빠르게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2018년 미·중 갈등의 발발이라는 국제 환경의 대변화가 있었지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방식이 미·중 갈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변화하였다는 점은 중국 기업 투자의 배경과 정책적 동력에 대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림 1-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상무부 통계)

(단위: 좌-백만 달러, 우-%)



주: M&A 비중은 M&A 투자 규모를 총해외직접투자 규모로 나눈 수치임.

자료: CEIC DB(검색일: 2023. 12. 14).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나는 지역별 대중국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국가, 산업, 기업 유형 등의 다양한 축도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시진핑 3기의 확정,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가속화 등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최근 그린필드²⁾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의 대 개도국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그린필드(Green Field)와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자로 구분되며, 그린필드는 기업이 직접 자본을 투자하여 공장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운영하는 해외투자를 의미하고, 브라운필드는 이미 지어진 설비나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해외투자를 의미한다.

2. 선행연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연구에서 중국 해외 직접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박월라 외(2011)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5위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높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자원투자 비중이 점차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대한 기술과 브랜드 M&A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이 많은 국가의 중요 무역국으로 등극하면서 자원개발형 투자와 함께 시장진출형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동균(2015)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2004년부터 전면적 발전 단계로 진입한 이후 점차적으로 그린필드 방식에서 M&A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2013년 기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투자 방식으로 등극하였으며,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국유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이승신 외(2018)는 이미 대표적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유형으로 자리잡은 M&A 방식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M&A 해외직접투자의 제도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최첨단 기술, 최고급 브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연선국가에 대한 M&A가 대폭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가 정책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영향을 받아 기업의 상업적인 동기 외에 국가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수합병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해외직접투자의 정책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2017년에는 부동산과 호텔 등의 투자는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승호와 강문수(2021)는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간의 경제협력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대중남미 및 대아프리카 투자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에서는 공기업 주도의 투자가 주를 이루며 그린필드 투자는 에너지 산업에, 브라운필드 투자는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는 2013년까지 브라운필드의 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그린필드 투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에너지, 부동산, 금융, 교통 부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로 살펴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이외에도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도 있다. 리 평(李鋒 2016)은 2016년까지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통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과 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과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정책의 실행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하우위바오(郝宇彪), 장즈친(张志勤), 윈제제(云吉吉) (2021)는 중국의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전략과 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목적과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해외투자 수요와 더불어 국가 정책과 전략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진핑 정부 2기 정부 집권 이후 미·중 갈등의 발발로 발생한 일련의 중국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는 중국정부의 해외 협력 방식과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해외직접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중국 대외경제협력 환경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구성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데이터 분석, 사례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분석 중점 시기는 시진핑 정부 집권 시기인 2013년 이후지만, 시진핑 정부 시기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지는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의 분기점을 후진타오 정부 2기 집권 시기인 2008년 이후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으로는 중국 상무부,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CGIT), 그리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있다. 본 연구는 상무부, AEI, UNCTAD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무부와 UNCTAD는 비교적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반면, AEI와는 일정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상무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국가별, 산업별 데이터가 제공되지만 세부 정보가 확인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구성된 AEI의 경우 데이터 누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데이터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적인 추이에서는 상무부와 AEI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AEI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완전성의 문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보고서에서는 각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3~5장에서 각 지역별로 사례를 언급할 경우 실제 보도된 기사에 근거하여 보고함으로 AEI가 제시하는 데이

터의 누락과 오류 등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된 중국 해외직접투자 정책 분석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현지 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나.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시기별 정책의 변화와 추이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3~5장에서는 각각 미주와 유럽,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지역을 구분하여 시기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특징, 분야별 투자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보고서에 대한 요약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5. 소결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의 중요한 대외개방 정책 중 하나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해외 생산거점 마련, 현지시장 접근, 무역장벽 회피, 자원 취득, 선진기술 습득 등 다양한 기업 생산 목표를 위해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결정에는 정부의 정책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 제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정책 노선을 선택한 이후 약 40여 년간 해외직접투자는 대외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경제성장 초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속에서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았었다.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관할 정부 부처의 심사 이후 국무원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진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1년에 발표된 「해외 투자프로젝트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关于加强海外投资项目管理的意见)」에서는 3,000만 달러 이상인 모든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안서와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 1차 심사를 받아야 하였으며, 국무원의 심사도 통과하여야지만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해외투자 지역의 선정에도 자율성이 제한되어서 1997년 5월 대외무역경

제협력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에서 발표한 「해외 무역회사와 무역 대표처 설립에 대한 잠행규정(关于设立境外贸易公司和贸易代表处的暂行规定)」에 따르면 비수교 국가와 민감 국가 및 지역에서 무역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소재한 지역(성, 자지구, 직할시 등)의 대외경제무역 관할 부처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³⁾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중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해외투자를 통한 대외무역 대체효과를 만들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인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제 완화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우추취 전략은 1998년 중국 공산당 15차 2중 전회에서 장쩌민 주석이 처음으로 ‘실력이 있는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 중국 공산당 제15기 5중 전회에서 ‘저우추취’ 전략이 서부대개발 전략, 도시화 전략, 인재 전략과 함께 국가 4대 신전략으로 격상되면서, 일부 가공생산 능력이 있는 국유기업을 필두로 중국기업들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여 수출 대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우추취’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이를 위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정부의 엄격한 심사제도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는 국유 무역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엄격한 제도적 규제는 중국기업 해외투자의 성장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한을 분권화시키고 간소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해외직접투자 관리 방식은 심사제(审核制)에서 승인제(核准制)로 전환되었다. 승인 심사가 간소화되었고, 신고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상한선도 점차 높아지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3) 李鋒(2016), 「我国对外直接投资政策研究」, pp. 88~90.

2004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서는 「해외투자 프로젝트 인준에 관한 잠행 관리방법(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을 발표하고 해외직접투자 승인 권한을 분권화시켰다. 해당 규정에서는 중국 측의 투자 규모가 2억 달러 이상인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5,000만 달러 이상인 외화 송금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개위에서 심사받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국 측 투자 송금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발개위 승인을 받게 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발개위에서 심사를 받은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⁴⁾ 이는 대다수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사실상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국유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는 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실 이는 2000년 초반 중국의 계획경제 발전 전략에서 국유기업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영기업의 시장 경쟁력 증진에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시장경쟁력이 부족한 민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민영기업에도 국유기업과 동일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참여 주체는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개인, 민간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 지원과 지도에 대한 의견(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의 18조항에 따르면 민영기업이 포함되는 비국유 소유제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투자, 수출입대출, 수출 신용 보험 등에서 국유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였다.⁵⁾ 또한 2007년에 상무부, 재정부, 인민은행, 전국 공상연합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비공유제 기업의 해외투자협력을 장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의견(关于鼓励和引导非公有制企业对外投资合作的若

4) 中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2004. 10. 9), 「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검색일: 2023. 11. 30).

5) 中国政府网(2005. 2. 19), 「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검색일: 2023. 11. 30).

干意见)」에 따르면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해외수주 프로젝트, 해외 노동 협력 등 다양한 대외협력 방식을 허가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발 자금, 해외 가공무역 대출 이자 혜택, 해외 계약 프로젝트 보증리스크 특별 기금, 해외 계약 프로젝트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 기금, 해외 원조 협력 프로젝트 기금과 해외경제 및 기술협력 특별 자금을 활용한 금융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⁶⁾

표 2-1.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구분	분야	시기	정책명
~2007년	규제 완화, 저우추취 전략 도입	1991	해외 투자프로젝트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 (关于加强海外投资项目管理的意见)
		1997	해외 무역회사와 무역 대표처 설립에 대한 잠행규정 (关于设立境外贸易公司和贸易代表处的暂行规定)
		2000	중국 공산당 제15기 5중 전회 - ‘저우추취’ 전략이 국가전략으로 격상
		2004	해외투자 프로젝트 인준에 관한 잠행 관리방법(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
		2005	개인, 민간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 지원과 지도에 대한 의견 (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
		2007	비공유제 기업의 해외투자협력력을 장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의견 (关于鼓励和引导非公有制企业对外投资合作的若干意见)

자료: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금융위기 이전의 중국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주로 제도적 개혁 위주로 이루어졌다. 계획경제 속에서 가지는 엄격한 규제와 국유기업에 집중된 정책지원으로 제약되었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와 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해외직접투자 제도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해외직접투자 심사가 필요한 규모의 상한이 높아졌으며,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였

6) 中国商务部(2010. 12. 8), 「民企应加快资源能源类境外投资的步伐」(검색일: 2023. 11. 30).

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직접투자의 주체가 점차적으로 민영 기업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나. 금융위기 이후, 후진타오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금융위기 이전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이 제도적 개혁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본격적인 해외투자 규모의 성장세로 이어진 계기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침체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중국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외환리스크로 인해 견고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WTO 가입 이후 국내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무역과 자본수지의 동시 흑자는 중국의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2008년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의 시기와도 맞물린다. 이 당시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인 ‘저우추취’ 전략과 해외자본 유치 전략인 ‘인진라이(引进来)’를 통합하여 해외자본과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초반과 시행기간이 맞물린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에서는 ‘저우추취’ 전략의 심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 참여 등을 장려하였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방향은 금융위기 이전의 정책과 비슷한 결을 유지하고 있다. ‘저우추취’를 통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지속적인 제도의 분권화 및 규제 완화, 다양한 소유제 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정책 지원 제공 등의 정책 방향성이 유지되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2009년 3월 상무부가 발표한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辦法)(이하 ‘관리방법’)」이 있다. 관리방법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승인,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1억 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의 승인 권한을 성급 상무부의 관할 부서로 분산시킴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여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관할 기관을 상무부로 통일하여 체계적인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⁷⁾

하지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단순한 수출 대체를 위한 해외진출이 아닌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는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에서 발표된 해외직접투자 기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강화하여 세계수준의 다국적 기업을 육성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포지셔닝을 ‘국제 투자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국제 투자환경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중국기업의 글로벌 M&A, 지분투자, 주식상장 등과 같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중국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⁸⁾

그리고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산업단지를 활용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200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 상무부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济贸易合作区)를 활용한 해외투자 협력은 산업단지를 활용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전략의 중요 구심점이 되었다.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사업은 중국 상무부에서 지원하고 중국기업이 주도하여 개발도상국에 중국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만들고 중국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

7) 中国政府网(2009. 3. 16), 「境外投资管理办法」(검색일: 2023. 11. 30).

8) 新华网(2012. 11. 17),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검색일: 2023. 11. 30).

서 ‘저우추취’ 전략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무부는 2006년 「해외 중국 경제무역협력구의 기본 요건 및 입찰절차(境外中国经济贸易合作区的基本要求和申办程序)」를 발표하고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을 위한 초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6월 상무부는 향후 50개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해외 경제무역협력구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고, 2007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9개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를 승인했다.⁹⁾¹⁰⁾ 그리고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건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2008년에는 「해외 경제무역합작구 건설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境外经济贸易合作区建设的意见)」,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심의 잠행방법(境外经贸合作区确认、考核暂行办法)」,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발전자금 관리방법(境外经贸合作区资金管理办法)」의 3가지 규정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¹¹⁾

표 2-2. 후진타오 정부 2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구분	분야	시기	정책명
2008~12년	해외직접투자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	2006	「11차 5개년 계획」 - 저우추취 전략 심화
		2006	「해외 중국 경제무역협력구의 기본 요건 및 입찰절차(境外中国经济贸易合作区的基本要求和申办程序)」
		2008	「해외 경제무역합작구 건설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境外经济贸易合作区建设的意见)」
		2008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심의 잠행방법(境外经贸合作区确认、考核暂行办法)」

9) 洪联英, 张云(2011), 「我国境外经贸合作区建设与企业“走出去”战略」, pp. 48~49.

10) 협력구 건설사업은 시진핑 정부 시기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확장되면서 2022년까지 125개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가 설립되었다. 证券时报网(2023. 10. 18), 「境外经贸合作区建设实现长足发展, “数字”“绿色”成未来重点」(검색일: 2023. 11. 30).

11) 김동하(2012), p. 392.

표 2-2. 계속

구분	분야	시기	정책명
2008~ 12년	해외직접투자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	2008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발전자금 관리방법 (境外经贸合作区资金管理办法)」
		2009	「해외투자관리방법 (境外投资管理办法)」
		2012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기업의 국제화 수준 강화, 글로벌 M&A, 지분투자, 주식상장 등과 같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자료: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당시에 발표된 19개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적 분포는 아프리카·중동(7개), 아세안(6개), 러시아(3)의 순서로 많이 투자되었고, 투자기업 수의 2/3가 국유기업(중앙 국유기업 6개, 지방 국유기업 7개)으로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투자된 산업은 주로 제조업으로 14개의 협력구가 이에 해당되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투자된 산업은 광물, 원자재 등 자원 관련 산업으로 4개 협력구가 설립되었다.

해외 경제무역협력구의 기능은 협력구 설립기업의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경영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키스탄에 설립된 하이얼 가전 산업구와 가죽제품 제조사인 캉지(康吉)그룹이 투자한 러시아 우수리스크(Ussuriysk) 경제무역협력구가 있다. 둘째, 자원개발 산업을 중심으로 건설된 자원개발형이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설립된 협력구의 대부분이 자원개발형에 속하였으며, 동(銅) 채석을 위한 잠비아-중국 비철 산업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 유형은 특화산업형으로 중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방직, 의류, 가전 등의 산업에 집중되어 설립된 협력구가 이에 속한다.¹²⁾

12) 김동하(2012), pp. 399~400.

표 2-3.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추진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협력구 명칭	투자 주체	투자 규모
1차 승인	1 잠비아-중국 비철 산업단지 (赞比亚中国有色工业园)	중국 비철 광업그룹 유한회사 (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	7
	2 태국 라용(Rayong) 사업단지 (泰国罗勇工业区)	화리 산업그룹 유한회사 (中国华立集团)	12
	3 파키스탄 하이얼 가전 산업구 (巴基斯坦海尔家电工业区)	하이얼그룹 전기산업 유한회사 (海尔集团)	2.5
	4 캄보디아 타이후 국제 경제협력구 (柬埔寨太湖国际经济合作区)	홍도우 그룹 (红豆集团)	30
	5 나이지리아-광둥 경제무역협력구 (尼日利亚广东经济贸易合作区)	광둥 신광궈지 그룹 (广东新广国际集团)	2
	6 텐리(모리셔스) 경제무역협력구 (天利(毛里求斯)经济贸易合作区)	산시 텐리실업 그룹 (山西天利实业集团)	7.66
	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트해 경제무역협력구 (俄罗斯圣彼得堡波罗地海经贸合作区)	상하이 실업그룹 (上海实业集团)	13.46
	8 러시아 우수리스크(Ussuriysk) 경제무역협력구 (俄罗斯乌苏里斯克经济贸易合作区)	중국 강지 국제투자 유한회사 (中国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20
2차 승인	9 베네수엘라-중국 과학기술 무역구 (委内瑞拉中国科技工贸区)	산둥 랑후 그룹 (山东浪潮集团)	1
	10 나이지리아 레키(Lekki) 자유무역구 (尼日利亚莱基自由贸易区)	장닝 경제기술 발전구 (江宁经济技术开发区) 난징 베이야 그룹 (南京北亚集团)	25.19
	11 베트남-중국(선전) 경제무역협력구 (越南中国(深圳)经济贸易合作区)	중항 그룹(中航集团) 중선국제회사(中深国际公司) 하이왕 그룹(海王集团)	2
	12 베트남-중국 룡장 경제무역협력구 (越南中国龙江经济贸易合作区)	치엔장 투자관리 유한책임회사 (前江投资管理有限责任公司)	1.05
	13 멕시코-중국(닝보) 지리 산업 경제무역협력구 (墨西哥中国(宁波)吉利 工业经济贸易合作区)	저장 지리매이르 자동차 유한공사 (浙江吉利美日汽车有限公司)	25

표 2-3. 계속

(단위: 억 달러)

구분	협력구 명칭	투자 주체	투자 규모
2차 승인	14 에티오피아 동방공업단지 (埃塞俄比亚东方工业园)	장수 용위엔 투자 유한회사 (江苏永钢集团有限公司)	2.5
	15 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埃及苏伊士经贸合作区)	톈진펑 다투자 유한회사 (天津泰达投资控股有限公司)	1
	16 알제리-중국 장링 경제무역협력구 (阿尔及利亚中国江铃经贸合作区)	중딩 국제(中鼎国际) 장링 자동차 그룹(江铃汽车集团)	38
	17 한-중 산업단지 (韩中工业园区)	중국 동타이화안 국제투자 유한공사 (中国东泰华安国际投资有限公司)	1.76
	18 중국 광시-인도네시아 워노기리(Wonogiri) 경제무역협력구 (中国广西印尼沃诺吉利经贸合作区)	광시 농컨 그룹 (广西农垦集团)	20
	19 중국-러시아 톈스크 목재산업 무역협력구 (中俄托木斯克木材工贸合作区)	예타이 서북 임업 유한공사 (烟台西北林业有限公司) 중국 국제해운 컨테이너 주식유한공사 (中国国际海运集装箱股份有限公司)	15.7

자료: 洪联英, 张云(2011), 「我国境外经贸合作区建设与企业“走出去”战略」, p. 49 재인용(저자 번역).

다만 정책 초반에 경제무역협력구에 대한 과도한 포지셔닝 설정으로 발전 계획이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고, 피투자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일정 수준 높지 않은 경우 이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¹³⁾ 실제로 앞서 언급된 19개 해외 경제무역협력구에서 3개는 조성이 중단되었다. 그중 하나가 한국 무안에 유치하고자 하였던 한-중 산업단지이다. 전문가들은 한-중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사 간의 불균등한 사업추진력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자금 조달 부족 등으로 실패하였다고 분석한다. 당시 중국 측은 국유기업 중심의 정부주도 프로젝트였던 반면 한국은 민간기업에서 주도하다 보니 양측 시행사의 인센티브 및 추진력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당시에 한국은 많은 투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의존하였는데 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13) 洪联英, 张云(2011), 「我国境外经贸合作区建设与企业“走出去”战略」, p. 5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투자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업계획 자체가 불확실지면서 산업단지는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다.¹⁴⁾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겪었음에도 후진타오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확대되는 시장 수요에 맞추어 투자 제도의 간소화를 대폭 추진하였고,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저우추취’ 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정부의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던 만큼, 중국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중국기업들이 경쟁력과 시장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었고,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규제의 완화가 제도의 규범화로 이어지는 초반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실질적인 수요와의 미스매치, 해외직접투자의 낮은 효율성, 해외 진출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와 투자 범위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다양한 정책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와 민영기업의 질서 있는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 조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다자와 양자 협

14) 김동하(2012), p. 404, p. 413.

정을 적극 활용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 중국은 국내 경제성장으로 인한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분야를 정밀화하기 시작하였고,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원 확보’형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다. 전략적 자원이란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과 같은 물리적인 자원 이외에 선진 기술과 같은 전략적 무형 자원도 포함이 되었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집권하면서 제시한 ‘중국몽’이라는 장기적 중국 경제 발전 목표를 반영하듯 해외직접투자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투자를 반영하기 위한 투자구조조정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 2-4. 시진핑 정부 1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구분	분야	시기	정책명
2013~ 17년	규제 완화, 지원 확대	2013	정부 허가인준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 개정
		2013	해외 경제무역 협력구 건설 발전 관련 질문에 대한 통지 (关于支持境外经济贸易合作区建设发展有关问题的通知)
		2014	해외투자 프로젝트 승인과 등록 관리 방법 (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2014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
		2017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 육성	2014	기업 M&A 시장 환경 제고에 대한 의견 (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
		2015	국무원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시스템 수립에 관한 의견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2015	국제생산능력과 장비제조 협력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 (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2015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
		2015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 장비 · 기술 · 표준 · 서비스 분야의 해외투자를 추진, 글로벌 산업망 · 밸류체인 · 물류 네트워크와의 높은 수준의 융합을 추진, 해외생산 기지 구축, 다국적 기업 육성

표 2-4. 계속

구분	분야	시기	정책명
2013~ 17년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 육성	2016	「제13차 5개년 계획」- 중국 국내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 추진,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발전, 네거티브 제도 도입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2013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 일대일로 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승격
		2015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의 비전과 행동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2015	국제 생산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 (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자료: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시진핑 정부 1기에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 권한의 분권화와 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국무원에서는 2004년에 발표하였던 「정부 허가인준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를 개정하였는데, 이 리스트에서는 중국 측 투자 규모가 10억 달러 이하이며 비민감 지역과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의 경우 기업의 소유제 구분과 상관없이 국무원 승인 절차를 면제하였으며, 관할 부처에 신청양식만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규정을 간소화하였다. 반면 중국 측 투자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민감 국가·지역·산업과 관련된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관리기업과 지방기업의 3억 달러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역시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¹⁵⁾ 2014년 4월 발개위 제9호령 「해외투자 프로젝트 승인과 등록 관리 방법(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을 발표하여 10억 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등록 방식의 관리

15) 中国政府网(2013. 12. 2), 「国务院关于印发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3年本)的通知」(검색일: 2023. 12. 2).

방안을 규정화하였으며, 민감 지역과 민감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개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⁶⁾ 다만 2013년의 「정부 허가인준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는 2014년 10월에 한 번 더 개정되었으며, 이때 중국 측 투자규모 1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국무원 승인 조항을 삭제함¹⁷⁾으로, 실질적인 민영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제한을 폐지하였다. 2004년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심사제가 승인제로 개혁된 이후 다시 한번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었으며, 중앙관리기업과 지방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승인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는 중국 해외직접투자 제도가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4년 9월 상무부에서 2009년에 제정되었던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을 개정하고, △ 해외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 ‘등록을 주된 관리 방법, 승인을 보조 관리 방법’ 견지,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였다. 민감 지역과 민감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특정 금액 이상의 해외투자와 해외 소재 특수목적 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을 폐지하였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¹⁸⁾ 해당 관리방법이 실행된 이후 실제로 상무부는 약 98.5%의 승인 프로젝트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 및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15년 중국은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¹⁹⁾ 그리고 2017년에는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 등록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완전히 변경하였다.²⁰⁾

16) 中国政府网(2014. 4. 8),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9号-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검색일: 2023. 12. 2).

17) 中国政府网(2014. 11. 18), 「国务院关于印发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4年本)的通知」(검색일: 2023. 12. 2).

18) 中国政府网(2014. 9. 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2014年第3号-境外投资管理办法」(검색일: 2023. 12. 2).

19) 郝宇彪, 张志勤, 云吉吉(2021), 「中国对外投资管理的历史演变: 管理方式、投资主体与政策目的」, p. 41.

20) 中国政府网(2017. 12. 26),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11号-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이 높은 해외 경제무역산업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발전 관련 질문에 대한 통지(关于支持境外经济贸易合作区建设发展有关问题的通知)」에서는 「국무원 사무실의 경제구조 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 금융지원에 대한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에 따라 상무부와 국가개발은행이 공동으로 해외 경제무역협력구의 프로젝트 협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력구 시행사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는 다수의 중국기업이 협력구를 활용한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²¹⁾

나.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 육성 제시

이 시기의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에는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이 있다.

2015년 국무원은 「국무원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시스템 수립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에서는 특수규정을 제외하고는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일괄적인 등록제를 추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 의견에서 제시하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단순히 해외직접투자 규모 자체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 시진핑 정부의 신시대에 적합한 ‘저우추취’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 △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수립, △ 기업과 개인

(검색일: 2023. 12. 2).

21) 中国商务部(2015. 12. 15), 「商务部 国家开发银行关于支持境外经济贸易合作区建设发展有关问题的通知」(검색일: 2023. 12. 2).

의 해외투자 주체적 지위의 확립, △ 해외투자 수준과 효율 개선 등의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해외투자 법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적격 국내 개인투자자 제도를 만들며, 해외투자 제한 완화와 해외투자 관리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²²⁾

이 시기에 중국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2014년 3월에는 국무원에서 「기업 M&A 시장 환경 제고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을 발표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자주적 발전, 개방협력’이라는 방침하에 전락산업에서의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공급망 구축을 통한 자주적 발전 역량을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2015년 5월 「국제생산능력과 장비제조 협력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면서 철강, 건축, 철로, 전력, 화공, 자동차, 통신, 기계, 항공우주, 선박, 해양공정 등의 중점산업에서의 대외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첨단장비 제조 능력을 갖춘 선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3국 시장을 개발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외투자 협력도 투자, 인프라 건설, 기술협력, 기술 원조 등 다양한 방식을 채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 8월에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에서는 국유기업의 국제화 운영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일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시하였다.²³⁾

2015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에서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2) 中国政府网(2015. 5. 5),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검색일: 2023. 12. 2).

23) 中国商务部(2015),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pp. 22~26.

제13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을 통하여 「13차 5개년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장비·기술·표준·서비스 분야의 해외투자를 추진하며, 글로벌 산업망·밸류체인·물류 네트워크와의 높은 수준의 융합을 추진하고, 해외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다국적 기업을 육성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²⁴⁾ 그리고 2016년 3월 양회에서 「13차 5개년 계획」이 정식 발표되었다.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중국 국내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 추세에 맞추어 외자유치와 해외진출 모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공공상품 공급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해외자본을 통한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함과 동시에 해외투자를 통하여도 국내 산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투자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외환관리 수준과 다국적 기업 자금의 해외 운용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 시행되고 있던 해외직접투자의 등록제를 개선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투자 수요를 확대할 것을 밝혔다.

「13차 5개년 계획」은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국내의 상황에 맞추어 해외직접투자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은 기존에 수출 대체효과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던 정부의 기조와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규모의 측면에서도 2016년과 2017년은 중국 해외직접투자 정점을 찍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동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저장(stock) 기준

24) 第一财经(2015. 11. 10), 「“十三五”规划开启中国对外“新投资时代”」(검색일: 2023. 12. 2).

2배로 늘었고, 제조업, 정보기술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었다.²⁵⁾

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시행에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 순방 중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의미하는 시진핑 정부의 신(新)대외전략이며, 2013년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추진을 확정하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당장(党章)에 삽입하면서 국가전략으로 승격되었다.

일대일로 전략은 기존에 추진하여 왔던 ‘저우추취’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의 분야를 국가전략에 맞추어 구체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들어 있다. 2015년에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의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이 후진타오 시기에 시행되었던 경제무역 산업단지 형식을 협력플랫폼으로 삼으며 관련 도시와의 연계를 통하여 국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아시아-유럽,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中南半岛) 등의 6개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하며,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요 항구를 거점으로 안전하고 고효율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²⁶⁾ 또한 국내의 생산과잉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산업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국무원은 「국제 생산력 및 장비제조 협

25) 中国政府网(2021. 1. 30), 「图表: “十三五”期间我国对外投资存量翻一番」(검색일: 2023. 12. 2).

26) 中国政府网(2015. 3. 20),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검색일: 2023. 12. 2).

력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중점 협력산업과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발개위에서 18개 성시에 대한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대일로 전략에서 진출 기업과 진출 국가를 선정하였다.²⁷⁾

일대일로 전략은 △ 정책 소통(政策沟通), △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 무역 원활화(贸易畅通), △ 자금 융통(资金融通), △ 민심상통(民心相同)의 5대 이념(五通)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프라 연결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6대 경제회랑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연계되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표 2-5.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6대 경제회랑

구분	관련 국가	관련 산업
신유라시아대교 (新亚欧大陆桥)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	- 철로 및 기타 육상 물류 - 대표 사업: 중국-유럽 화물열차 중국 → 유럽: 전자제품, 기계장비, 가구, 건축자재 등 50,000여 종 상품 유럽 → 중국: 의류기기 등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몽골, 러시아	- 대표사업: 중국-러시아 원유수송 파이프라인,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중국-중앙아- 서아시아 경제회랑	중앙아시아 5개국, 이란, 튀르키예 등	- 중-아랍 '1+2+3' 협력: 에너지 협력을 주축으로, 인프라, 무역, 투자 편리화 추진 - 원자력, 항공·위성,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기술 혁신 - 대표 사업: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	- 대표 사업: 쿤밍-방콕 고속도로, 중국-라오스 및 중국-태국 철도, 인도네시아 KCJB(Kereta Cepat Jakarta-Bandung) 고속철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파키스탄	- 에너지, 교통인프라, 산업단지 협력, 신장-과다르항 협력

27) 김홍원, 박진희, 허유미(2016), p. 4.

표 2-5. 계속

구분	관련 국가	관련 산업
중국-방글라데시- 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 중국-미얀마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자료: 中国—带—路网(2018. 7. 20), 「六大经济走廊」(검색일: 2023. 12.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프라 연결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 부분은 크게 교통시설, 에너지 인프라, 통신설비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교통산업 부분에서는 신유라시아대교 경제 회랑을 중심으로 중국-유럽 간의 화물열차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주요 골자로, 철도·항만·파이프라인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고속 도로의 경우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조지아-우크라이나, 중국-베트남 등 직 통 고속도로 운행이 진행되었고, 철도의 경우 중국-라오스, 중국-태국, 헝가리-세르비아, 인도네시아 KCJB 고속철도 등이 건설되었다. 둘째, 에너지 인프라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위주로, 국가 간 전기 및 송 전 네트워크, 지역전력망 업그레이드 등의 사업이 해당되었다. 중국-러시아의 원유 파이프라인, 중국-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로 국경 간 광섬유 케이블, 대륙 간 해저 광섬유 케 이블, 항공(위성) 통신 네트워크가 있다. 특히 중국-미얀마, 중국-파키스탄, 중 국-키르기스스탄, 중국-러시아 간 국경 간 광섬유 케이블 건설이 상당한 진전 이 있었다.²⁸⁾ 이러한 일대일로 사업들은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 동안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61억 5천만 달러로 동 기간 해외직접투자 전체 규모의 11.3%를 차지한다.²⁹⁾ 일대일로 연선국가 에서 진행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도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57개

28) 海通证券(2023), 「“一带一路”: 进展如何?」, pp. 6~7.

29) 中国商务部, 国家统计局, 外汇管理局(2018), 「2017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 7, p. 16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연선국가에서 3,000개의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³⁰⁾

라. 해외직접투자 관리제도 도입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일대일로 전략의 도입과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2016~17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급속한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건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 분야와 관련 없지만 단기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영화관, 오락업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 증진과는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화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에 3조 9,932억 1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조 10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³¹⁾ 기업의 방만한 해외직접투자와 외화 유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16년 11월 중국 외환관리국에서는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계정 거래(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와 M&A 등의 직접투자 포함)에 대하여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발표하였다.³²⁾ 해당 규정이 발표되기 이전의 거래 한도는 5,000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관리 규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 발개위, 상무부,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에서 해당 규정이 발표된 동일한 날 공동성명을 내며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 기초의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기업의 ‘저우추취’ 전략을 견지하고, ‘기업주체, 시장원

30) 中国商务部, 国家统计局, 外汇管理局(2018), 「2017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 15.

31) 월 데이터 기준, CEIC DB(검색일: 2023. 12. 14).

32) 「中国收紧外汇管控 中资海外并购将降温?」(2016. 11.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3).

칙, 국제 관례, 정부 인도'의 원칙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등록제는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다만 해외투자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³³⁾ 이는 중국정부가 방만한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 시장 규범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6~20년 기간 동안 시행된 「13차 5개년 계획」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크게 장려정책과 규범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해외투자 수준의 제고는 기존의 중국 해외직접투자 장려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하며 해외직접투자의 전략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 물류 네트워크 등에서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 및 협력 산업단지의 건설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해외투자 금융 및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자 하였다.³⁴⁾ 특히 용자의 장려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적 수요와 불필요한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적 리스크를 국내 자본으로만 충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둘째,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관리 시스템을 만듦으로 새로운 대외개방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해외투자 발전 계획과 중점 분야·지역·국가별 계획 시스템을 구비하고, 등록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승인제를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적격 국내개인투자자 제도를 구축하여 개인 해외투자의 행위를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국유자본,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회계감사 제도

33) 中国商务部(2016. 11. 28), 「发展改革委、商务部、人民银行、外汇局四部门负责人答记者问」(검색일: 2023. 12. 3).

34) 中国政府网(2016. 3. 17),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검색일: 2023. 12. 3).

를 구축하여 해외투자 경영실적 심사와 책임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일정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이전과 같은 기조로 장려하지만,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책임을 가릴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의 조율은 특히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다.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장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시진핑 정부 1기 후반과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러서는 전략적인 해외직접투자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제도적 시스템을 통한 관리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2018년 이후 미·중 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 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표 2-6. 시진핑 정부 2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구분	분야	시기	정책명
2018~22년	산업별 관리제도 도입	2017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2021	중국 공산당 100년 투쟁의 주요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결의 - 중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 활용 천명

표 2-6. 계속

구분	분야	시기	정책명
2018~ 22년	규범화	2017	중앙기업 해외투자 관리감독 방법 (中央企业境外投资监督管理办法)
		2017	민영기업 해외투자 경영행위 규범 (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
		2017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2018	해외투자 등록(승인) 보고서 발급 집행방법 (关于印发对外投资备案(核准)报告暂行办法)
	일대일로 고도화	2019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추진, 공급망 · 산업망 · 밸류체인 연계 강화, 디지털화 · 네트워크화 · 스마트화 분야의 공동발전 모색
		2021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 - △ 고표준, △ 지속가능, △ 민생지원의 발전목표 제시, 헬스케어, 그린, 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추진
		2022	에너지 녹색저탄소 전환체제 시스템 개선과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关于完善能源绿色低碳转型体制机制和政策措施的意见)
		2022	일대일로 녹색발전 공동건설에 대한 의견(关于推进共建“一带一路”绿色发展的意见)
	새로운 모멘텀 창출	2021	14차 5개년 계획 - 대 변혁기 중국 차세대 경제발전 전략으로 ‘신(新)발전구도’ 제시, 기업이 주체가 되어 해외직접투자 방식의 혁신 도모, 구조 개선을 통하여 리스크 방지 및 수익창출 능력 제고 제시
		202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提升中小企业竞争力若干措施)
		2021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리스트(为“专精特新”中小企业办实事清单)
		2021	디지털 경제의 해외투자 협력 업무 가이드라인(数字经济对外投资合作工作指引)
		2021	‘14차 5개년’ 전자상무 발전 계획(“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
		2021	‘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발전 계획에 대한 통지 (关于印发“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的通知)
		2021	해외투자 협력 녹색발전 업무 가이드라인 (对外投资合作绿色发展工作指引)

자료: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가. 전략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장려

시진핑 정부 2기의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관리방식의 변화는 투자 산업 분야를 규정하여 국가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는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비생산성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발개위,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가 공동 발표한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의 3가지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2006년에 발표된 「해외직접투자 산업지도목록(境外投资产业指导政策)」에서는 장려업종과 금지업종으로 구분하여 관리였는데, 장려업종으로는 자원, 원자재,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설비·기술 등으로 기업의 생산자원 및 수출기지 확보와 관련이 있는 산업이었다. 반면 2017년의 규정은 장려와 금지업종 이외에 상황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지만 관할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업종을 추가하였다.³⁵⁾ 또한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에서도 기업의 생산능력과 관련된 자원 및 비교우위가 있는 장비 이외에, 중국 전략적 경제발전 분야인 일대일로 관련 기초설비, 최첨단 및 선진 제조업 분야 투자, 무역과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에서의 해외투자,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설립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었다. 제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술집,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없는 업종과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실제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 혹은 투자 목적국 기술 표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규정에서 제한 산업으로 일부 허가의 여지가 존재했던 산업은 2018년 「해외투자 민간산업 목록(境外投资敏感产业目录)」이 개정되면서 민간산업으로 규정되었다.

35) 中国政府网(2017. 8. 4), 「国务院办公厅转发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人民银行外交部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指导意见的通知」(검색일: 2023. 12. 3).

표 2-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산업 정책 변화

관련 문건	구분	주요 내용
해외투자 산업지도목록 (2006)	장려업종	1) 국내에서 부족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긴요한 자원 또는 원재료 2) 국내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 설비 및 기술 등의 수출과 노무수출 3) 자국 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명백하게 제고할 수 있고, 국제 선도기술, 선진 경영 기법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금지업종	1)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 공예 또는 기술을 운용하는 경우 3) 자국 법률에서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분야 4) 투자대상국 또는 지역의 법률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산업. 자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규정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기타 산업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상황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 (2017. 8)	장려업종	1) 일대일로 건설 및 인프라 연결에 도움이 되는 기초설비 2)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설비, 품질 우위의 장비 및 기술 표준 수출 관련 투자 3) 해외 최첨단 및 선진 제조업 기업과의 투자협력 4) 경제적 효용을 신중히 평가하였다는 전제하에 해외 천연오일가스, 광산물 등 에너지자원 탐사 및 개발 5) 농업 대외협력 확대. 농림목축어업 등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6)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에서의 해외투자.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해외 분점 건설 및 서비스네트워크 구축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 (2017. 8)	제한업종	1)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거나 전란이 발생하였거나, 중국이 체결한 양자 및 다자 간 조약 또는 협정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민감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2) 부동산, 술집,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3)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자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해외 설립 4) 투자목적국 기술 표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 투자 5) 투자목적국의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안전표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 - 이 중 앞 세 개 항목은 해외투자 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금지업종	1) 국가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군사공업핵심 기술 및 제품 수출 해외투자 2)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기술, 공예, 제품의 해외투자 3) 도박, 퇴폐영업 등 4)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외투자 5) 기타 국가이익과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가 될 수 있는 해외투자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 (2018)	민감산업	1) 무기장비의 연구 · 제조 · 생산 · 유지보수 2) 초국경 수자원 개발 및 이용 3) 뉴스 미디어 4)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업종: 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자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해외 설립

자료: 양평섭 외(2018), pp. 175~176에서 부분 발췌.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장려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무역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적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경제발전 목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를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비이성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구분하여 지원의 수준과 강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실제로 2021년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중국 공산당 100년 투쟁의 주요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에서는 “중국의 발전의 우위와 주도권,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고, 중국 초대형 시장의 규모적 우위를 통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외자유입과 해외투자의 결합을 통하여, ...국제 경제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³⁶⁾ 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익 지향적에서 전략 지향적으로 변경되고, 해외의 다양한 자원을 국내 시장과 연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를 시사한다.

나. 해외직접투자의 규범화

중국 국가 발전 전략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활용 분야의 변화는 해외직접투자의 주체에 대한 규범화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균형 잡힌 국내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투자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주체의 규범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 1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이하 ‘국자위’)는 「중앙기업 해외투자 관리감독 방법(中央企业境外投资监督管理

36) 中国共产党新闻网(2021. 11. 17), 「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검색일: 2023. 12. 3).

办法)을 발표하였다. 이 관리방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국유기업에 △ 중앙기업 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 해외직접투자 사전(前)·사중(中)·사후(后) 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책임추궁 조항을 만들어 관리방법의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국유자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명시하였다.³⁷⁾ 이는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방향을 관리하고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함으로써 해외부실운영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중국 발개위는 「민영기업 해외투자 경영행위 규범(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을 발표하여 민영기업에 대한 규범화도 추진하였다. 이 규범에서는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을 국유기업과 동일하게 장려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실력이 있는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여 일대일로 건설과 국제적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영기업의 △ 경영관리 시스템 완비, △ 경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수, △ 사회책임의 이행, △ 자원환경 보호, △ 해외 리스크 방지 등의 해외직접투자 규범화 내용을 제시하였다.³⁸⁾ 이 규범을 통하여 중국정부가 민영기업으로 하여금 해외투자 이전 국내에서의 관리감독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투자 이후 해외 경영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사회책임 이행, 환경보호, 현지 협력 등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범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지향하는 해외직접투자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2017년 12월 발개위는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企业境外投资管理方法)」을 발표하면서 해외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해외직접투자의 규범화를 진행하였다.³⁹⁾ 관리방법에서는 해외투자 활동에 대한 정의를 제시함

37) 中国政府网(2017. 1. 7), 「中央企业境外投资监督管理办法」(검색일: 2023. 12. 3).

38) 中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2017. 12. 6), 「关于印发《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的通知」(검색일: 2023. 12. 3).

39) 관리방법의 시행으로 2014년에 발표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승인과 등록 관리 방법(境外投资项目核

으로 투자 관리 기본틀을 제시하였고, 승인이 필요한 해외직접투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등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외투자 주체를 직접적인 투자와 지분투자자로 구분하여 해외투자 관리 회색지대에 포함되었던 지분투자를 규정 범위 안으로 포함하였고, 부정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였다.⁴⁰⁾

그리고 중국정부는 앞서 언급된 중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범화 조항을 등록 보고서 제도에 반영하여 제도화하였다. 2018년 상무부, 인민은행, 국자위, 은감회, 보감회, 외환관리국 6개 부처에서는 「해외투자 등록(승인) 보고서 발급 집행방법(关于印发对外投资备案(核准)报告暂行办法)」을 발표하였다. 집행 방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 유형별 관리, △ 정보 보고 통로 통일, △ 처벌 관리, △ 네거티브 제도 도입, △ 최종 목적지 관리, △ 등록 시 보고 등의 관리방식을 명시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규범화를 제도화 하였다.⁴¹⁾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규범화는 다양한 소유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였던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관리 방향과 차이를 가진다. 이는 중국정부가 해외직접투자를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대외 개방의 기초는 유지하는 한편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방향성과 분야를 조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准和备案管理办法)」은 폐지되었다.

40) 中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2017. 12. 26),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11号-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검색일: 2023. 12. 3).

41) 中国商务部(2018. 1. 18), 「商务部 人民银行 国资委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关于印发《对外投资备案(核准) 报告暂行办法》的通知」(검색일: 2023. 12. 3).

다. 일대일로 전략의 고도화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기존의 투자전략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시진핑 정부 1기의 일대일로 전략은 인프라와 교통 물류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가 관련 국가의 인프라 개선과 교역·투자 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해당 국가의 부채도 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중국정부는 인프라 연결성에 집중되었던 일대일로 투자 분야를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2019년 4월에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의 고품격 발전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일대일로의 고품격 발전을 통하여 글로벌 공급망, 산업망, 밸류체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품·자금·기술·인적교류를 통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 경제성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를 통한 발전 기회를 확보하고, 신기술·신업체·신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탐색하여 경제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⁴²⁾ 이후 2021년 11월에 개최된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는 일대일로 발전목표를 △ 고품준, △ 지속가능, △ 민생지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헬스케어, 그린, 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⁴³⁾

42) 中国一带一路网(2019. 4. 28), 「习近平在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上的系列讲话」(검색일: 2023. 12. 4).

43) 人民网(2021. 11. 19), 「习近平在第三次“一带一路”建设座谈会上强调 以高标准可持续惠民生为目标 继续推动共建“一带一路”高质量发展 韩正主持」(검색일: 2023. 12. 4).

표 2-8.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초 인프라	- 신유라시아대교 구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제회랑 구축 - 중-유럽 화물열차와 육해상 신경로 등의 물류통로 및 정보고속도로를 주축으로, 철도, 항만 네트워크 등 통한 연결 네트워크 구축
개방	- 더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해관, 세금, 감사 등 다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세금 징수 협력 체제 구축 - '인증된 경영자(经认证的经营者)'의 국제 상호 인정을 가속화 - 「일대일로 자금조달 지도원칙(“一带一路”融资指导原则)」을 제정하고, 「일대일로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프레임워크(“一带一路”债务可持续性分析框架)」를 발표하여 일대일로 자금조달 협력 지침 제공 - 중국은 제2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개최
금융	- 일대일로 전용 대출, 실크로드 기금 및 기타 전용 투자 펀드의 역할 지속 - 실크로드 테마 채권 발행, 다자 개발 금융 협력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 - 다자 및 각국의 금융기관이 일대일로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한 참여 유도 - 제3국 시장 협력을 촉진하고,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이익 실현에 기여
지속가능 발전	- 일대일로 지속가능한 도시 연맹 및 녹색 발전 국제 연맹 공동 건설 - 일대일로 녹색 투자 원칙을 수립하여 '어린이 사랑, 공유 발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협력 이니셔티브 제안 - 일대일로 생태·환경 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녹색 실크로드 사절 프로그램 추진 - 일대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남남 협력 강화 - 농업, 헬스케어, 재난방지,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 개발 분야에서 UN과의 협력을 강화
과학기술	-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 행동 계획 추진 - 과학기술·인문 교류, 공동 연구실 건설, 과학기술 산업단지 협력, 기술 이전의 4대 분야 협력 추진 - 혁신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향후 5년 동안 5,000명의 국내외 혁신 인재 교류·교육·공동 연구를 지원 - 각국 기업의 정보통신 기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상호 연결성 향상
민생	- 향후 5년 동안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정당, 싱크탱크, 시민단체 등에서 1만 명의 대표를 중국으로 초청하여 교류 - 연선국가 사회단체의 민생 협력 확대 - 환경보호,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공동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력 개발 협력을 심화 - '실크로드' 중국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을 지속 실행하고, 일대일로 청년 창의력 유산 포럼, 청소년 '중국어 교량(汉语桥)' 여름 캠프 등의 행사 개최 - 일대일로 국제 싱크탱크 협력위원회, 언론 협력 연맹 등의 시스템을 설립

자료: 中国一带一路网(2019. 4. 26), 「划重点! 习近平主旨演讲中的新变化」(검색일: 2023. 12. 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일대일로의 전략 조정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변화와 결을 같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한 중국 국가정책과 일대일로 전략 변화의 연관성이 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제75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 탄소정점, 206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대일로 전략 중 녹색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2021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2030년 이전 탄소정점 달성 방안에 대한 통지(国务院关于印发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的通知)」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5년) 동안 중국의 산업과 에너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탄소정점 10대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이와 같은 국가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금융 등에서 협력을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상품 수출 확대, △ 일대일로 녹색투자 원칙 실행,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남남협력 및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 추진 등의 주요 임무를 제시하였다.⁴⁴⁾ 2022년 1월 발개위에서 발표한 「에너지 녹색저탄소 전환체제 시스템 개선과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关于完善能源绿色低碳转型体制机制和政策措施的意见)」에서도 중국의 「2030년 탄소정점 행동방안」에 따라 일대일로의 청정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일대일로의 녹색에너지 실무협력을 추진하며, 청정 저탄소 에너지 산업망의 상·하류 기업의 협력 시스템을 모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정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해외직접 투자를 장려하여 자원절약, 환경보호, 생산안정 등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생산·유통·무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밝히고 있다.⁴⁵⁾ 2022년에 발표된 「일대일로 녹색발전 공동건설에 대한 의견(关于推进共建“一带一路”绿色发展的意见)」에서도 일대일로의 녹색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44) 中国政府网(2021. 10. 4), 「国务院关于印发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的通知」(검색일: 2023. 12. 4).

45) 中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2021. 1. 30),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完善能源绿色低碳转型体制机制和政策措施的意见」(검색일: 2023. 12. 4).

2025년까지 일대일로에서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와 관련되 국제협력을 심화할 것과 녹색 실크로드의 개념이 일대일로 연선국에 인식될 것을 목표로 하고, 녹색인프라 · 녹색에너지 · 녹색교통 · 녹색금융 등의 분야에서 실무협력을 추진하여 일대일로 녹색발전의 성과를 거둘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탄소정점 실현 시기인 2030년까지 ‘저우추취’ 기업의 녹색발전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프로젝트의 환경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일대일로 녹색발전의 기본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일대일로의 고도화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초기에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일대일로 고도화의 타임라인과 발전 목표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의 국가전략을 투영하고 있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대일로 전략 속 중국 국가전략의 투영은 해외직접투자를 국가발전 전략의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진핑 정부 2기의 전략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라. 새로운 해외투자 모멘텀 창출: 녹색산업 및 디지털 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강화

2021년 중국정부는 소강사회 달성 이후 두 번째 100년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5개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미 · 중 갈등과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 중국경제가 대면하고 있는 국내외 복잡 · 다양해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변혁기의 중국 차세대 경제발전 전략으로 ‘신(新)발전구도’, 즉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제시하였다. 쌍순환 전략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대순환을 촉진시켜 국내외 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발전 개념이다. 즉 강력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무역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자원과

생산요소에 대한 강력한 증력장을 형성하여, 국내외 수요·수출입·외자투자·대외투자를 아우르는 경제발전구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해외직접투자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 해외투자의 구조를 개선하여 리스크 방지 및 수익창출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서비스 네트워크와 물류 시스템의 개선, 금융·컨설팅·회계·법률 등 생산서비스업을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중국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기술·브랜드·표준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글로벌 경영 능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며, 다자간 투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해외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명시하였다.⁴⁶⁾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 △ 디지털 산업, △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격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위하여 2021년 국무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提升中小企业竞争力若干措施)」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품 박람회, 중국 국제 중소기업 박람회, APEC 중소기업 기술 교류 박람회 등의 다양한 박람회와 해외 중소기업 협력구, 해외경제무역 협력구, 중소기업 국경 간 협력 서비스 플랫폼 등의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G20, APEC, BRICS 등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고, FTA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⁴⁷⁾ 2021년 이후 중국정부가 ‘전정특신(专精特新)’⁴⁸⁾의 강소기업

46) 「14차 5개년 계획」 16장 2절을 참고하여 작성. 中国政府网(2021. 3. 1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검색일: 2023. 12. 5).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자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11월 국무원에서는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리스트(为“专精特新”中小企业办实事清单)」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박람회에 ‘전정특신’ 전시구역을 설치하여 ‘전정특신’ 기업의 상품과 기술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국경 간 매칭 활동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⁴⁹⁾

둘째,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중국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해외투자 협력 업무 가이드라인(数字经济对外投资合作工作指引)」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디지털 인프라 시장진출을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해상 광케이블, 광역 네트워크, 위성통신,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5G 등의 네트워크·컴퓨팅·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해외 도시, 교통, 에너지, 전략, 수자원 등의 전통 인프라의 디지털화 분야에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⁵⁰⁾ 2021년 10월에는 「‘14차 5개년’ 전자상무 발전 계획(“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 특허 출원, 자체 브랜드 설립 등을 지원하여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영향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를 ‘실크로드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정책적 협력 수준을 높이고 공통의 전자상거래 규칙을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협력 수준을 제고할 것을 명시하였다.⁵¹⁾ 2021년 12월에는 「‘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발전 계획에

47) 澎湃新闻(2021. 11. 22), 「提升中小企业竞争力若干措施」(검색일: 2023. 12. 5).

48) ‘전정특신’ 정책은 중국 중소기업의 전문화·정밀화·특수화·혁신화 역량을 키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49) 国际科技创新中心(2021. 11. 23), 「《为“专精特新”中小企业办实事清单》解读」(검색일: 2023. 12. 6).

50) 中国工信新闻网(2021. 8. 9), 「《数字经济对外投资合作工作指引》印发鼓励抓住海外数字基础设施市场机遇」(검색일: 2023. 12. 6).

51) 中国政府网(2021. 10. 9), 「商务部 中央网信办 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的通知」(검색일: 2023. 12. 6).

대한 통지(关于印发“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的通知))를 통하여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추진될 대외협력 분야의 디지털 경제발전 방향으로 중국-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과 중국-중동유럽 디지털 경제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세안,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국경 간 광케이블 건설,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저장 및 스마트 컴퓨팅 등의 신형 서비스 역량 제고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⁵²⁾

셋째, 녹색 협력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일대일로로 녹색발전 전략 추진 이외에도 녹색발전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자 한다. 2021년 상무부와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협력 녹색발전 업무 가이드라인(对外投资合作绿色发展工作指引)」에서는 향후 해외투자의 녹색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협력 관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여 중국의 신발전구도를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녹색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명시하고, 글로벌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중요한 방향성인 그린전환을 고려하여 해외투자에서 녹색발전 이념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녹색 생산과 운영, 녹색 기초인프라 건설, 녹색 경제무역 협력구 건설, 녹색기술 혁신 추진,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전환 추진과 글로벌 친환경 규정 준수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녹색발전 인식을 제고할 것을 명시하였다.⁵³⁾

52) 中国政府网(2021. 12. 12), 「国务院关于印发“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的通知」(검색일: 2023. 12. 6).

53) 中国商务部(2021. 7. 16), 「商务部、生态环境部联合印发《对外投资合作绿色发展工作指引》」(검색일: 2023. 12. 6).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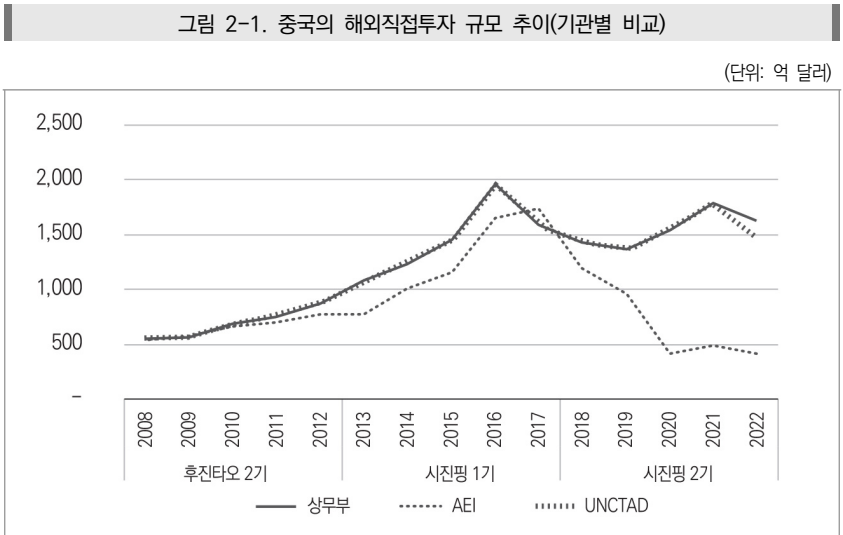
가. 데이터 비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 비교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집계 방법과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수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으로는 중국 상무부,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CGIT), 그리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있다.

[그림 2-1]은 앞서 언급한 3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이전 3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였던 반면, 2019년 이후 실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기록을 기반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AEI는 빠르게 감소하며 동기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무부 및 UNCTAD의 데이터와는 다른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이후부터 AEI와 중국 상무부 및 UNCTAD의 데이터 차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AEI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신속하게 증가하여 2017년 역대 최대치인 1,7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8년의 미·중 갈등 발발과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200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동 기간 상무부에서 보고한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에 최대치인 1,96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7~19년 동안 일정 수준 하락하였지만, 코로

나19 팬데믹이 진행된 2020년과 2021년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2년에는 일부 하락하였지만, AEI에서 보고한 수치보다 약 1,000억 달러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발표기관에 따른 통계 결과의 차이는 단순한 집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AEI의 집계방식은 기업에서 공시하는 9,500만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 기준은 2020년 이전과 2020년 이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 확대된 AEI와 상무부 데이터 차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자료: CEIC DB; AEI Database DB; UNCTAD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12. 9).

이러한 차이는 중국 상무부와 AEI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에 대한 상이한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국내의 안정적인 경제 여건을 형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AEI는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

향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오히려 빠르게 감소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⁵⁴⁾

AEI와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두 기관의 통계 집계 차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표 2-9]에서는 AEI의 CGIT와 중국 상무부에서 보고한 중국 해외직접투자 연간 총액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의 차이(중국 상무부 데이터 - AEI 데이터)는 2020년 933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차이를 보였으며 이후 두 기관의 차이는 평균 9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8~19년의 평균 차이(53억 달러)의 약 18배가량 확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 중국 상무부와 AEI가 발표한 비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차이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 데이터의 근본적인 차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해외직접투자 집계 규모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EI의 데이터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해외직접투자 데이터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추이는 AEI와 상무부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였다. 다만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AEI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표 2-9. 중국 상무부와 AEI 비금융업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비교

(단위: 억 달러)

구분	AEI	중국 상무부	상무부 - AEI
	집계 규모	집계 규모	규모 차이
2008	546.3	559.1	12.8
2009	573.3	565.3	-8.0
2010	666.4	688.1	21.7
2011	704.5	746.5	42.0
2012	775.0	878.0	103.0
2013	770.2	1,078.4	308.2

54) AEI(2023. 6), "China's Global Investment Surges, Finally," pp. 1-4.

표 2-9. 계속

(단위: 억 달러)

구분	AEI	중국 상무부	상무부 - AEI
	집계 규모	집계 규모	규모 차이
2014	1,005.8	1,231.2	225.4
2015	1,163.0	1,456.7	293.7
2016	1,651.3	1,961.5	310.2
2017	1,739.1	1,582.9	-156.2
2018	1,189.8	1,430.4	240.6
2019	956.8	1,369.1	412.3
2020	421.0	1,537.1	1,116.1
2021	493.9	1,788.2	1,294.3
2022	419.4	1,631.2	1,211.8

자료: AEI; CEIC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12. 14).

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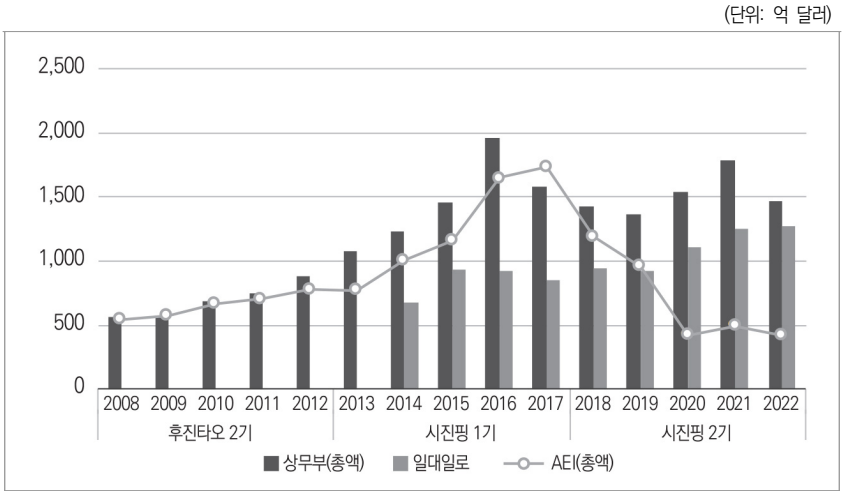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초반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던 ‘저우추취(走出去)’ 전략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54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6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3년 만에 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의 행정 간소화,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의 해외직접투자 장려정책의 시행과 함께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1기에 들어서면서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선진기술 분야에 대한 M&A 촉진, 국유·민영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면서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6~17년에는 역대 최대치(상무부 기준 2016년 1,962억 달러, AEI 기준 2017년 1,7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8년의 미·중 갈등 발발과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다. 상무부 데이터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다시 일부 상승하였지만, AEI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41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시기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비중이다.⁵⁵⁾ 후진타오 정부 2기에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2008~11년간 북미에 대한 투자도 평균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2년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2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시진핑 정부 1기의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는 시진핑 정부 1기 해외직접투자 총규모의 46%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으로 투자되었다.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진타오 정부 2기 마지막 해인 2012년부터 시진핑 정부 1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과 유럽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2-2. 중국의 일대일로와 전체 지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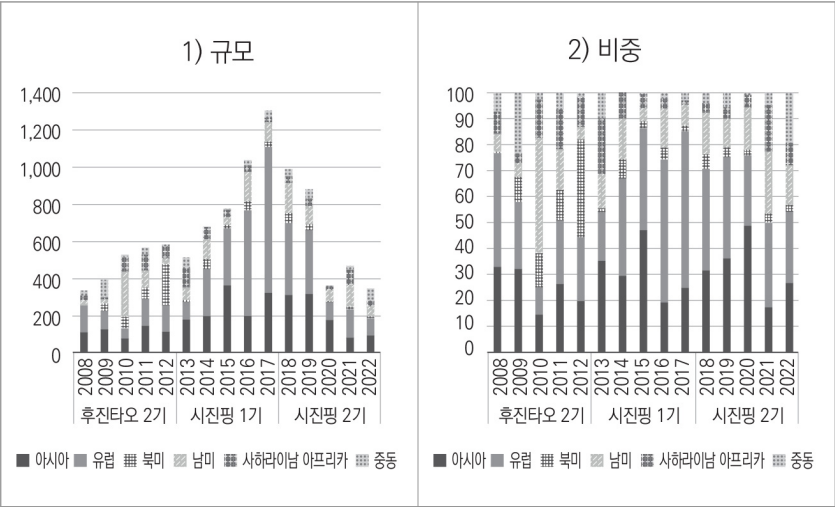
자료: CEIC; AEI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8. 7).

55) 이후의 분석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AEI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미·중 갈등이 시작되면서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점차 줄어들었고, 2020년 이후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과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반면 동 기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에 대한 투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실제로 유럽 투자가 가장 활발하였던 시진핑 정부 1기의 2016~17년 기간과 미·중 갈등이 가장 심화되었던 시진핑 정부 2기의 2021~22년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유럽(57.7% → 30.1%)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아시아(22.0% → 22.0%)와 북미(3.4% → 3.0%)는 비슷한 추이를 유지한 반면, 중남미(11.5% → 19.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8% → 13.3%) 그리고 중동(2.7% → 12.1%)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3.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AEI)

(단위: 규모-억 달러, 비중-%)



자료: AEI(검색일: 2023.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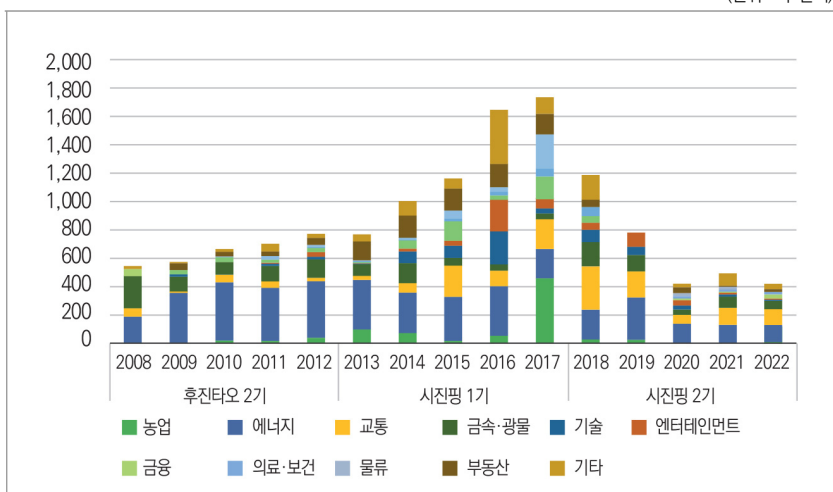
이러한 중점 투자 지역의 변화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장 앞에서 설명하였다시피,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호혜적인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시행으로 다양한 지역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골고루 증가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1기에 들어서면서 첨단기술과 전략적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8년 시진핑 정부 2기가 집권하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의 규제를 받으며 일부 감소하였지만,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밸류체인·물류에 대한 투자가 장려되면서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고, 일대일로에 따른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변화에 따라 산업별 투자 유형도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특징으로는 에너지와 금속·광물 등 자원 투자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진핑 정부 1기에는 교통, 의료·보건 등의 관련 산업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산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금융, 부동산 및 기타(여행, 화학,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 당시에는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2016년에는 총해외직접투자의 14%가량 차지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외화관리 차원에서 비생산성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고, 부동산과 오락 등의 산업을 해외직접투자 제한산업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및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17년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기업의 선진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투자 규제로 인해 2020년부터 기술 분야의 투자 역시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2020년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에너지, 교통, 금속·광물 등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산업들로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대일로 전략과 글로벌 공급

망과의 연계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4. 중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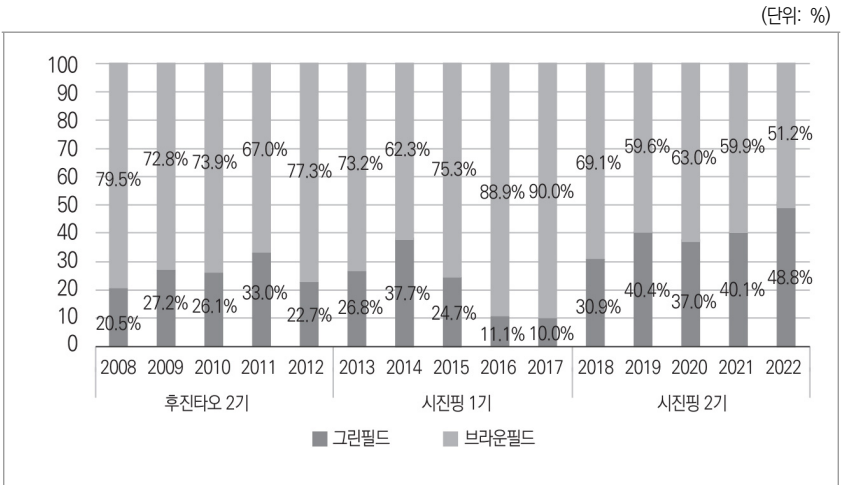
자료: AEI, CGIT(검색일: 2023. 8. 7).

투자 형식을 살펴보면 산업별 투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은 약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로 구성된다. 자원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유전, 광산에 대한 M&A가 대폭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투자가 브라운필드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1기에서도 투자 산업의 변화는 있지만 브라운필드 중심의 투자 방식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이전의 에너지와 자원 확보 위주의 투자에서 부동산, 가전,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업 혁신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별 기업에 대한 M&A도 확대되었다. 2016~17년에는 대부분의 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하는 브라운필드로 구성되면서, 브라운필드 투자 비중은 85%를 넘어섰다. 2016년 중국의 10대 M&A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 분야인 TMT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에 대한 인수가 3건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석유화학, 에너지, 항공기,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대규모 M&A가 진행되었다.⁵⁶⁾

하지만 시진핑 정부 2기부터는 브라운필드에 대한 투자가 일부 빠르게 감소하면서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가 40% 이상까지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이 비중이 48.8%까지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후진타오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에너지와 금속·광물 분야에, 시진핑 정부 2기는 에너지, 금속·광물 그리고 교통 산업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 투자유형별 비중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진핑 정부 2기에서는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

그림 2-5. 중국의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자료: AEI, CGIT(검색일: 2023.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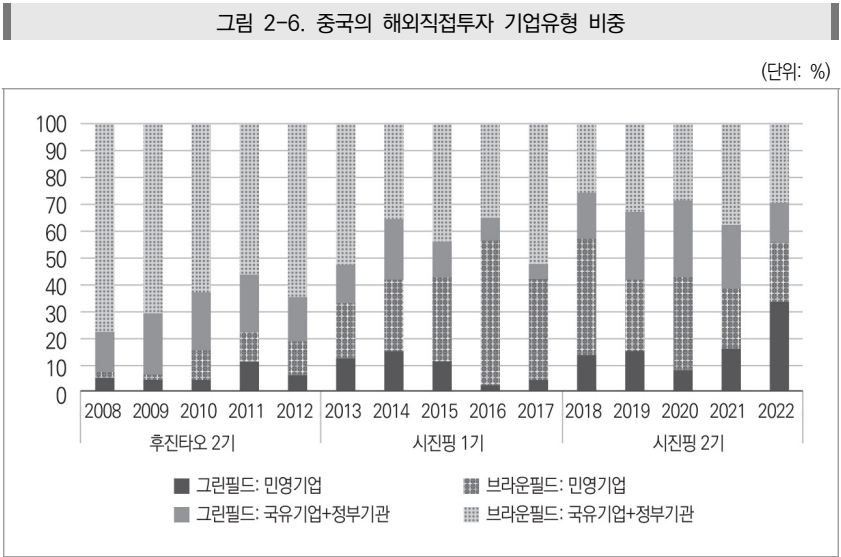
56) 이승신 외(2018), pp. 46~47.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산업 구분 속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되는 세부 산업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에서 과거 중국기업들은 유전 등의 에너지 자원을 위한 브라운필드의 투자를 하였다면 최근 중국은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그린필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기업유형에도 다양한 다이내믹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국 해외직접투자 주체를 ‘국유기업과 정부기관’ 그리고 ‘민영기업’으로 구분한 결과,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시진핑 정부 기간 동안에는 민영기업의 비중이 40~50%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브라운필드가 85%를 차지하였던 2016년에는 국유기업, 정부기관, 민영기업 모두에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확대한 양상을 보이며, 반면 그린필드가 확대된 2021~22년에는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의 그린필드 투자 확대가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업유형의 변화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구조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에서도 국유기업 주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민영기업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이 장려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후진타오 정부 2기 후반부와 시진핑 정부 1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1기에 민영기업의 M&A를 중심으로 하는 브라운 필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대체한 것도 M&A 촉진, 민영기업 해외진출 장려의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민영기업 주도의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더 확산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동일한 해외진출 지원과

더불어 국유기업의 해외진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자국 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 국유기업/정부기관이 민영기업과 공동 투자한 경우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자료: AEI, CGIT(검색일: 2023. 8. 7).

5. 소결

이 장에서는 중국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과 전략의 변화가 중국 해외직접투자 추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으며,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는 [표 2-10]에 정리하였다.

표 2-10.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구분	시기별 정책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정책	- 지속적인 규제 완화 - 호혜성 장려 정책 -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 경제무역협력구를 활용한 해외직접투자 확대 - 심사제 → 승인제	- 지속적인 규제 완화 - 전략적 자원 확보, M&A, 선진기술 습득의 투자 확대 -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 육성 제시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도입과 전략적 연계 - 승인제 → 등록제 - 후반: 비이성적 해외직접투자 규제 시작	- 장려, 민간산업 목록을 통한 전략산업 투자 장려 및 관리제도 도입 - 해외투자의 규범화 - 일대일로 고도화에 따른 협력 분야 확대 - 등록제 중점, 일부 승인제 적용 - 중소기업 해외진출 등 새로운 해외투자 모멘텀 구축
산업	- 해외자원 개발 - 인프라 건설 - 경쟁우위가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	- 철강, 인프라, 자동차, 통신, 기계, 항공우주, 선박, 해양공정 등 다분야 투자 진행 - 첨단 제조 능력 보유 기업과의 M&A 장려 - 인프라 건설, 기술협력, 기술 원조 - 글로벌 산업망, 밸류체인, 물류 네트워크와의 높은 수준의 융합	- 일대일로 연계 산업 분야 투자 확대 -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설비, 장비 · 기술 표준 수출 - 해외 최첨단 및 선진 제조업 투자 협력 - 경제적 효용이 있는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분야 - 금융기관의 해외 분점 건설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제한: 부동산, 술집,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자료: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먼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정책 노선을 선택한 이후 약 40여 년간 해외직접투자는 대외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0년 초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저우추취’ 전략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정부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에 집중되었고 제한된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국정부는 제도적 개혁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

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제도적 규제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해외투자 규모의 성장세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의 시기와의 맞물리는데, 이 당시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인 ‘저우추취’ 전략과 해외자본 유치 전략인 ‘인진라이(引进来)’를 통합하여 해외자본과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 제도는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해외직접투자 심사가 필요한 규모의 상한이 높아지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직접투자의 주체가 점차적으로 민영기업으로 확대되면서,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에서는 ‘저우추취’ 전략의 심화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 참여 등을 장려하였다. 이 시기에 해외직접투자 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다. 기업은 생산 우위가 있거나 수출 대체를 위한 해외생산거점을 위한 투자 그리고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여전히 국유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지역과 산업에서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와 투자 범위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다양한 정책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질서 있는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 조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다자와 양자 협정을 적극 활용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은 국내 경제성장으로 누적된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자본력을 기반

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분야를 정밀화하기 시작하였고,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원 확보’형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다. 전략적 자원에는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과 같은 물리적인 자원 이외에 선진 기술과 같은 전략적 무형 자원도 포함되었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집권하면서 제시한 ‘중국몽’이라는 장기적 중국의 거시적 경제발전 목표를 반영하듯 해외직접투자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투자를 반영하기 위한 투자구조조정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 해외직접투자가 장려된 산업은 철강, 인프라, 자동차, 통신, 항공 우주, 선박, 해양공정 등 중국이 중시하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고, 첨단 제조 능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에 대한 M&A가 장려되었다. 일대일로와 관련된 분야의 투자 또한 장려되었으며, 기술 협력과 기술 원조 등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추진되었다.

시진핑 정부 1기 후반과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러서는 전략적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제도적 시스템을 통한 관리 방식이 도입되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의 3가지 분야로 규정하여, 중국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였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점이 없는 부동산, 술집, 영화관, 오락업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면서 관련 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또한 국내의 생산능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투자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주체의 규범화를 추진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를 구축하여 투자 분야를 관리함은 물론 해외직접투자 사전·사중·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과 연계되고 해외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 이후 미·중 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 발전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 발전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산업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설비와 장비, 최첨단 제조업, 경제 효율성이 있는 자원 탐사, 일대일로와의 연계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미국과 유럽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줄어들면서도, 정책 연계성이 높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는 비중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중점이 M&A 중심에서 그린필드 분야로 전환되면서 관련 지역의 민영기업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의 측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였던 반면, 분야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서는 중국의 국가 경제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도 점차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 분포와 기업 유형 및 투자 유형은 발전전략에 필요한 민영기업의 전략적 산업과 정부가 장려하는 투자 유형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대외협력전략에서 국가 발전전략의 특징을 반영하는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대일로의 고도화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초기에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일대일로 고도화의 타임라인과 발전 목표 중 많은 부분이 중

국의 국가전략을 투영하고 있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대일로 전략 속 중국 국가전략의 투영은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전략의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진핑 정부 2기의 전략방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장



중국의 대미 · 대EU 해외직접투자

-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1. 개요⁵⁷⁾

2000년 초반 중국의 해외투자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으로 집중되면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투자가 활발하였다. 이후 중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자원이 풍부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으로 투자국을 다변화했다.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선진국 시장 진출 목적은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취득을 도모하는 데 있다. 중국은 미국 및 유럽에 투자하기 위해 초기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를 확대했으나, 최근에는 인수합병에서 그린필드 위주로 투자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시진핑 시기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대미투자는 총 731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4.9%에 달한다. 중국의 대미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2016년에는 전체 해외투자의 8.7%가 투자되었다. 동 기간(2013~22년) 중국은 EU 지역에도 총 903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전체 투자규모의 6.0%이다. 즉 중국 내 해외투자가 가장 크게 증가되었던 시기에 미국과 EU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⁵⁸⁾

한편 중국 상무부 2022년 해외투자통계공보(2022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에 따르면, 2022년 누적기준 선진시장에서 대미국, 대EU 해외투자가 각각 26.5%(791억 7천만 달러), 33.9%(1,011억 9천만 달러)를 차지해 선진시장 내 두 지역(60.5%)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홍콩과 케이맨제도를 제외한 단일국가로는 2022년 누적기준 미국(2.9%)⁵⁹⁾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다. 그 외 상위 20대 지역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등 EU 내 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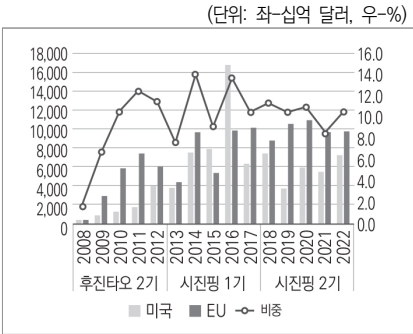
57) 본 절에서 활용한 중국 상무부의 해외투자 데이터와 AEI Database를 활용하여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과 업종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두 자료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 상무부 데이터의 경우 국가별 해외투자 투자유형과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AEI Database를 혼용하여 분석하였다.

58) 중국 상무부 해외투자 통계(검색일: 2023. 11. 22)를 이용하여 계산.

59) 위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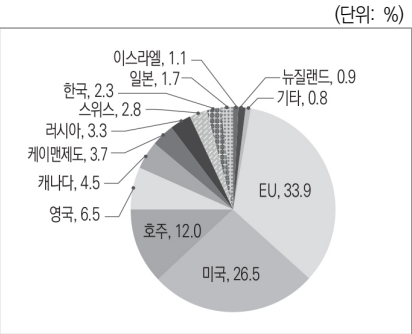
다. 미국과 EU 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해외투자 지역으로 이 두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0년에 10%를 상회한 후 2014년에는 15.3%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에 10.4%로 하락했다.

그림 3-1. 중국의 대미·대EU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CEIC DB(검색일: 2023. 11. 22).

그림 3-2. 중국의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주: 2022년 누계 기준임.
 자료: 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2023), 「2022 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 21.

중국의 대미·대EU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를 시기별로 나눠보면 조금 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시진핑 정부 1기와 시진핑 정부 2기 비교 시 해외투자 규모가 크게 감소되었다. 특히 중국의 대미국 투자는 시진핑 정부 1기인 2016년에 168억 8천만 달러로 최고치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64억 2천만 달러로 급감했다. 시진핑 정부 2기인 2019년에는 38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여 2022년에는 7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대EU투자는 시진핑 정부 1기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02억 7천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시진핑 정부 2기에도 등락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110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도 불구하고 EU 지역이 중국의 주요한 해외투자 지역임을 확인시켰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 이후 중국의 대미국, 대EU 투자는 기존의 투자 규모, 투자방향, 투자방식 모두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대미·대EU 해외직접투자를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시기별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해외투자 추이를 유형별, 시기별(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해외투자의 변화 기초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여 시진핑 3기의 해외투자 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상무부 해외투자 통계를 사용하여 중국의 대미국, 대EU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해외투자 추이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AEI 통계를 활용하여 중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인 미국과 유럽(EU 중심)의 해외투자 현황을 시기별·유형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본 절에서는 미국과 EU 지역의 시기별 해외투자 현황과 유형별·업종별 분석에 AEI DB를 활용했다. AEI DB를 이용하여 미국과 EU 지역의 시기별 투자 추세를 살펴보면 중국 상무부 데이터와는 투자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미국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201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추이는 유사하다. 반면 EU 지역의 경우 조금 다른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중국의 대EU 지역의 투자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동일하나, AEI DB에서는 2017년 이후 투자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미국지역과 EU 지역의 투자 추이를 파악하는 데 상무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지역별·유형별·분야별 기업사례와 업종별 특징을 파악하는 데 AEI DB를 사용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시행한 이후 미국과 EU 지역은 브라운필드의 주된 방식인 인수합병(M&A) 투자를 통해 해외투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2기 이후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증가되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유형별·시기별로 변화된 대미·EU 지역의 투자특징에 기업사례를 반영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가. 미국

1)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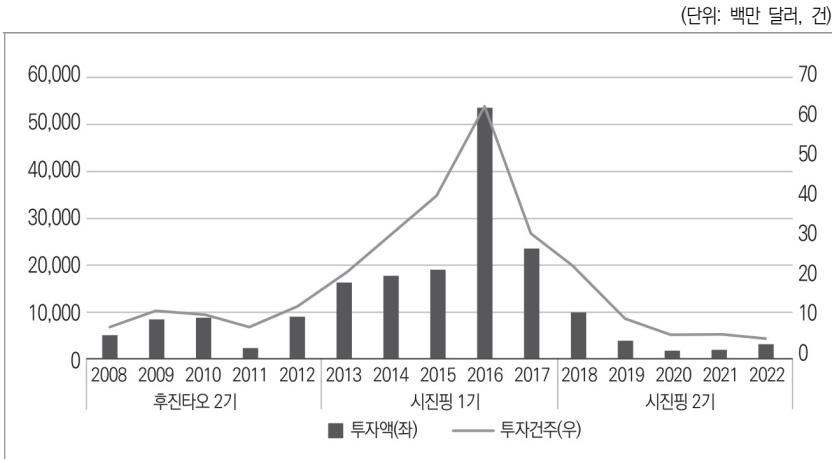
중국의 해외투자는 시진핑 정부 들어 첨단기술 산업 육성 정책 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중국의 해외 주요 투자지역에도 반영되었다. 즉 첨단산업 분야 제조업이 중국의 최대 해외 투자업종이라는 것은 미국, 유럽, 일부 아시아 등 선진국시장으로 주요 해외투자지역이 변화되었음을 반영한다. 그 결과 미국·유럽·아시아가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근접한다.⁶⁰⁾ 단일국으로는 미국이 중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이다.

이렇게 중국의 최대 투자국이던 미국으로의 해외투자는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의 이유는 크게 대내외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적 규제강화이다. 중국정부는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해외투자를 선별하여 장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1월에는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2018년판)」 정책을 발표하여, 투자제한 분야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호텔,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분야의 경우 해외투자 민감산업으로 분류하여 해외투자를 제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투자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60) 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2023), 「2022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 21.

그림 3-3. 중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검색일: 2023. 11. 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 결과 미국정부는 중국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해외투자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2017년 이후 관련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강화로 인해 인수합병(M&A)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⁶¹⁾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와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으며,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와 외국인투자 심사 관련 법제도(FIRRMA)로 인해 투자규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7~18년 동안 반도체 및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통령 인수 금지 명령, 대통령 투자 철회 명령 등을 원인으로 무산⁶²⁾되기도 했다.

또한 시진핑 정부 1기인 2017년 7월 중국 HNA 그룹과 미국 기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글로벌 이글 엔터테인먼트(Global Eagle Entertainment) 간

61) 2019년 기준 미국은 더 이상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M&A 상위 10대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순위는 2015년, 2016년 연속 1위, 2017년 2위, 2018년 9위, 2019년 10위권 밖으로 크게 하락했다.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2020), p. 87.

62) 나수엽, 김영선(2020), p. 10.

투자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⁶³⁾ 시진핑 정부 2기인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는 더욱 강화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표 3-1).

표 3-1.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규제 주요 사례(2017~21년)

일시	제재 사유	제재 근거 및 유형	업종 및 관련 분야	제재 대상
2017. 9	첨단 기술 유출, 지재권 보호	대통령 인수 금지 및 투자 철회 명령	반도체	Canyon Bridge Capital (중국제 사모펀드)
2017. 7	와이파이 사용자 정보 보호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인터넷 서비스	HNA 그룹
2017. 11	기업 정보 유출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Orient Hontai Capital
2018. 3	중국의 5G 기술 지배력 확대 우려	대통령 인수 금지 및 투자 철회 명령	반도체, 5G	Broadcom (싱가포르)
2018. 1	국가안보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온라인 금융서비스 (디지털 송금 결제)	앤티파이낸셜 (Antfinancial)
2018. 2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반도체, 전자	Hubei Xinyan Equity Investment Partnership
2018. 3	기술 유출 우려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전기자동차	CNHTC (중국중형기차그룹)
2018. 4	민감 기술 및 정보 접근, 데이터 보호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금융서비스 (헤지펀드)	HNA Capital
2018. 9	국가안보	대통령 명령으로 인수 금지 및 주식 양도	통신 서비스	베이징중창지정보 기술유한공사

63) “U.S. regulatory scrutiny scuppers deal for unit of China’s HNA”(2017. 7. 2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2. 12. 7).

표 3-1. 계속

일시	제재 사유	제재 근거 및 유형	업종 및 관련 분야	제재 대상
2019. 4	개인정보 유출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의료 관련 앱	iCarbonX
2019. 5	미국 시민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 우려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소셜커뮤니티 (온라인 데이팅)	Beijing Kunlun Tech
2020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우려	대통령 인수 금지 및 투자 철회 명령	소프트웨어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
2021. 6	중국 군산복합체의 국가안보위협(감시기술 활용 미국 및 동맹국의 인권유린, 안보 위협)	대통령 행정명령(E.O. 14032); 제재 대상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 주식투자 거래 금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 NS-CMIC List 등재	반도체, 통신 (국방 및 관련 물자, 보안감시기술)	SMIC,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화웨이, 중국북방공업그룹, 향조우하이테크비전, 등 59개 중국기업
2021. 6	국가안보	인수 중단	반도체	와이즈로드 캐피탈 (Wise Road Capital Ltd.)

자료: 연원호 외(2020), p. 158; 현상백 외(2021), p. 37;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2022a),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美国2022年版」, pp. 35-36을 이용하여 정리.

2) 투자유형 및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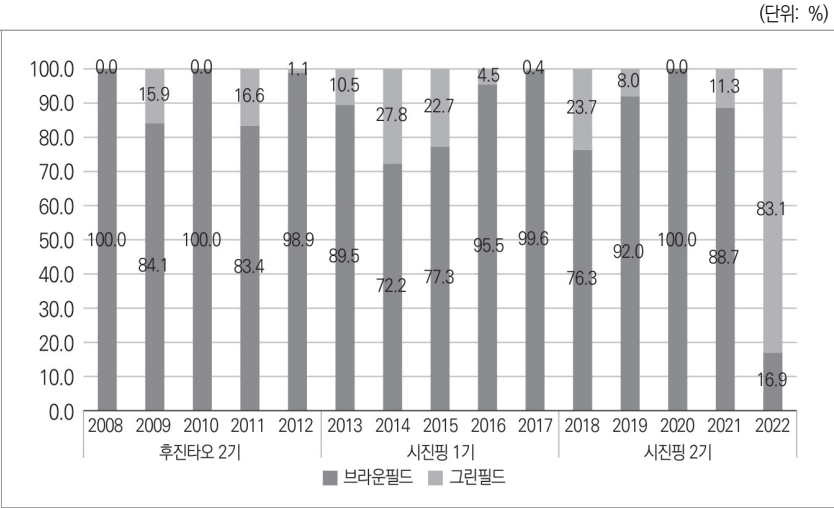
투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미투자는 2000년대 초기부터 대부분 인수 합병(M&A) 방식을 통해 확대되었다. 과거 중국은 해외 우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브라운필드 투자의 주된 방식인 M&A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중국의 대미 M&A 규모는 2003년 5,000만 달러 수준에서 2005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⁶⁴⁾했으며, 이후 M&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진핑 정부 1기인 2015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했

64) The US-CHINA INVESTMENT HUB(검색일: 2023. 9. 18).

다.⁶⁵⁾ 그 결과 미국은 단일국 기준 중국의 최대 M&A 투자처로 부상했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금액 기준 비중은 시진핑 1기에는 평균 86.8%였으나 시진핑 2기에는 74.8%로 하락했다. 이는 M&A 투자 방식이 여전히 중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다.

그림 3-4. 중국의 대미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하지만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대미 그린필드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22년의 경우 1건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19억 5,000만 달러)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브라운필드 투자 규모를 초과했다. 그 결과 2022년 중국은 2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린필드 투자가 전체 투자의 83.1%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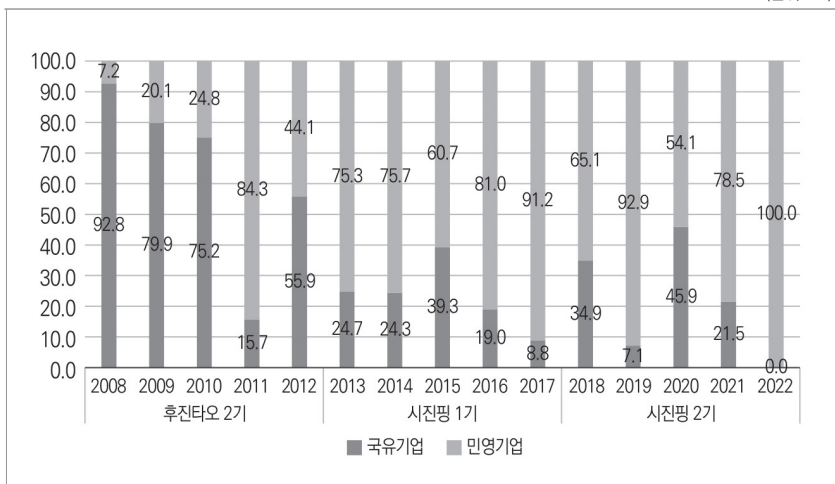
투자유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 중국의 대미 투자는 국유기업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총 52건의 투자 중 31건이 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되

65) The US-CHINA INVESTMENT HUB(검색일: 2023. 9. 18).

었으며, 투자규모는 전체 69.9%에 해당한다. 미국에 투자를 시행한 주요 국유기업으로는 중국외환관리국(SAFE),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석유화공(Sinopec),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 등이다.

그림 3-5. 중국의 대미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함께 투자하면 국유기업으로 분류하였고, 정부기관은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민영기업에는 중외합자기업도 포함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면 시진핑 시기(2013~22년)에는 민영기업 위주의 해외투자가 주를 이뤘다. 2013년 중국 대미 투자의 국유기업 비중이 24.7%로 감소한 반면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75.3%로 크게 상승했다. 이렇듯 시진핑 시기 중국 민간기업의 급격한 해외투자 증가는 중국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민영기업 육성화 정책의 효과 때문이다.

시기별로 해외투자를 살펴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 중국의 대미투자는 국유기업 중심의 M&A 투자가 주류였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에 중국의 대미투자는 민영기업 중심이며,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인 M&A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2기(2018~22년)에는 중국의 대미 투자

가 민영기업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로 변화되었다. 특히 시진핑 정부 2기 초인 2018년부터 중국정부는 기업환경 개선, 대규모 감세 지원책 등 종합적인 지원 조치를 발표하여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⁶⁶⁾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민영경제 활성화 조치⁶⁷⁾를 시행한 결과 민영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민영기업이 크게 성장했다.

2018년 2월 중국의 민영 패션 전문기업인 산둥루이(山东如意科技集团有限公司)가 미국에 20억 달러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를 시행했으며, 2022년 시행된 중국의 대미 투자(총 5건)가 모두 민영기업에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 중국의 대미 기업유형별 그린·브라운 필드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국유기업		민영기업	
	브라운필드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그린필드
2008	4,610	-	360	-
2009	6,550	-	350	1,300
2010	6,630	-	2,190	-
2011	340	-	1,470	360
2012	5,020	-	3,860	100
2013	3,980	-	10,440	1,700
2014	1,520	2,770	11,210	2,120
2015	6,840	590	7,770	3,700
2016	8,280	1,890	42,800	540
2017	1,960	100	21,340	-
2018	3,060	400	4,510	1,950
2019	260	-	3,090	290
2020	780	-	920	-
2021	380	-	1,190	200
2022	-	-	540	2,650

주: 정부기관은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6) KIEP 북경사무소(2019), p. 8.

67) 中国政府网(2019. 12. 22), 「中共中央 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검색일: 2023. 9. 20).

3) 분야별 투자 추이

중국의 대미 해외투자는 총 18개 산업에 투자되었으며, 2022년 누적기준 제조업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년대비 13.6% 감소한 15억 4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투자 비중에서 금융업(45.1%) 다음으로 높은 21.1%가 제조업에 투자되었다.

시기별 주요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기술, 관광, 교통운송 분야에 집중되었던 반면,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운송, 헬스, 부동산, 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시진핑 1기 최대 투자 분야였던 부동산 투자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후진타오 정부 2기 약 17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진핑 정부 1기 들어 약 188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시진핑 정부 1기와 시진핑 정부 2기를 비교 시 기술 분야(첨단기술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격화된 미·중 갈등이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제재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화웨이를 시작으로 5G, 반도체, 슈퍼컴퓨터,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제제가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기술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가 급감했다. 한편 후진타오 정부 2기 92억 7천만 달러, 시진핑 정부 1기 73억 8천만 달러였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5억 2천만 달러로 급감했다.

표 3-3. 중국의 대미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후진타오 정부 2기 시기(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 (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 (2018~22년)
교통·운송	1,750	18,760	3,350
의료보건	480	3,570	3,330
부동산	4,370	25,500	2,350

표 3-3. 계속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후진타오 정부 2기 시기(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 (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 (2018~22년)
화학	-	110	2,150
기술	-	20,980	850
농업	140	7,450	700
에너지	9,270	7,380	520
엔터테인먼트	3,330	11,800	450
금속	1,560	-	170
금융	10,230	4,970	110
물류	-	1,620	-
관광	280	19,170	-
기타	1,730	8,240	6,24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EU68)

유럽은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처로 2022년 말 중국의 대유럽 누적 투자액은 1,410억 7천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5.1%를 차지한다.⁶⁹⁾ 그중 EU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은 1,205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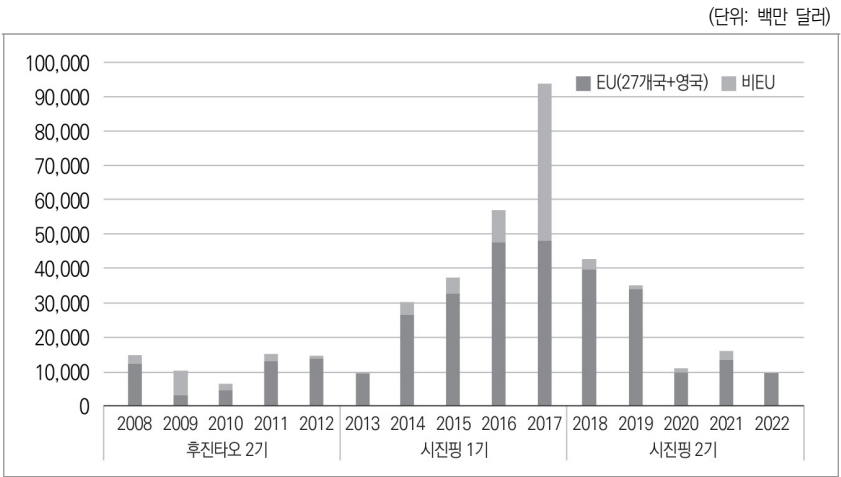
중국의 대유럽 투자를 EU 지역과 비EU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09년과 시진핑 정부 1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시기에 상관없이 대부분 EU 지역으로 해외투자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9년과 2017년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비EU 지역인 스위스 지역으로 시행되었다. 즉 2009년에는 중국 시노펙이 스위스 아닥스 석유에 7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7년 6월

68) 본 소절에서는 AEI Database의 지역 구분 중에서 유럽(Europe)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EI데이터의 유럽 지역으로 분류된 데이터에서 EU 27개국과 영국을 EU(EU 27개국+영국)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69)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외(2022), p. 21.

중국 국유기업 시젠타가 스위스 농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약 430억 달러)를 시행했다. 이 외에도 2017년에는 스위스 3건, 이스라엘 1건, 몬테네그로 1건 등 5건의 비EU 지역으로의 투자가 시행되었다.

그림 3-6. 중국의 대유럽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에 본 소절에서는 연구의 분석대상인 유럽 그중 대부분의 투자가 시행되는 EU(27개국+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EU 지역의 지역별 · 투자유형별 · 기업유형별 · 분야별 특징은 AEI DB를 활용했으며, 필요시 상무부 통계와 기타 통계 자료원(Rhodium 등)을 이용했다.⁷⁰⁾

1)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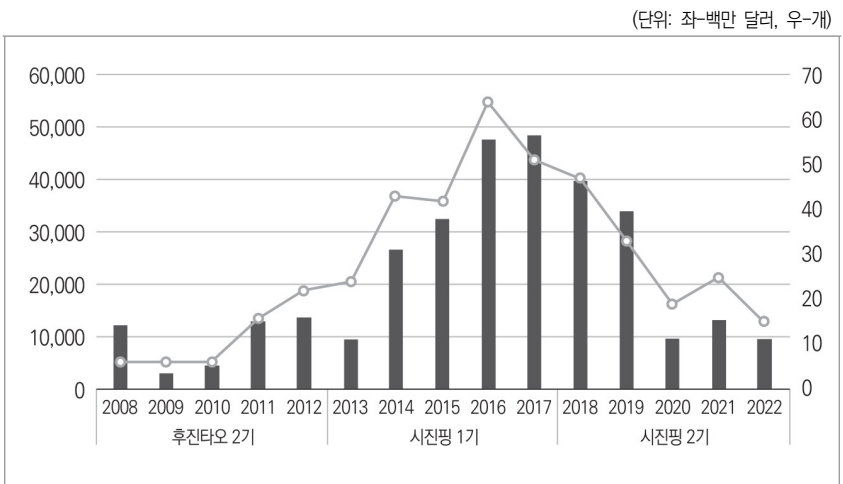
2022년 말 중국의 대EU 누적 투자액은 1,347억 7천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4.8%를 차지한다.⁷¹⁾ 중국의 EU 지역 내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70) AEI DB에는 EU 27개국 중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대한 해외투자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기 6개국에 대한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관련 한계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독일 등이며, 2021년 기준 중동부 유럽 17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금액이 30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유럽 투자의 3.2%를 차지한다.⁷²⁾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EU 지역의 투자 비중은 시기별로 후진타오 정부 2기 8.1%, 시진핑 정부 2기 6.6%, 시진핑 정부 2기 6.7% 수준이다.

AEI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EU 직접 투자액은 시진핑 정부 1기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481억 9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되었으며 투자 건수 역시 2017년 51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중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U 지역의 주요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영국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다음으로는 독일,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동 시기 영국

71)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7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外(2022), p. 23.

에는 에너지 분야, 독일에는 교통·운수 분야, 프랑스는 엔터테인먼트 분야⁷³⁾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표 3-4. 시기별 중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후진타오 정부 2기 (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 (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 (2018~22년)	
영국	12,470	영국	57,570	영국	25,890
스위스	8,170	스위스	52,540	독일	24,690
프랑스	7,160	독일	23,810	프랑스	15,840
그리스	5,910	이탈리아	20,030	스웨덴	8,980
독일	4,880	네덜란드	11,260	네덜란드	8,290
노르웨이	4,880	프랑스	10,580	핀란드	7,250
포르투갈	4,490	핀란드	8,790	스페인	4,190
헝가리	3,310	이스라엘	8,120	헝가리	3,980
스웨덴	2,700	아일랜드	6,800	세르비아	3,310
네덜란드	1,780	포르투갈	4,530	이탈리아	2,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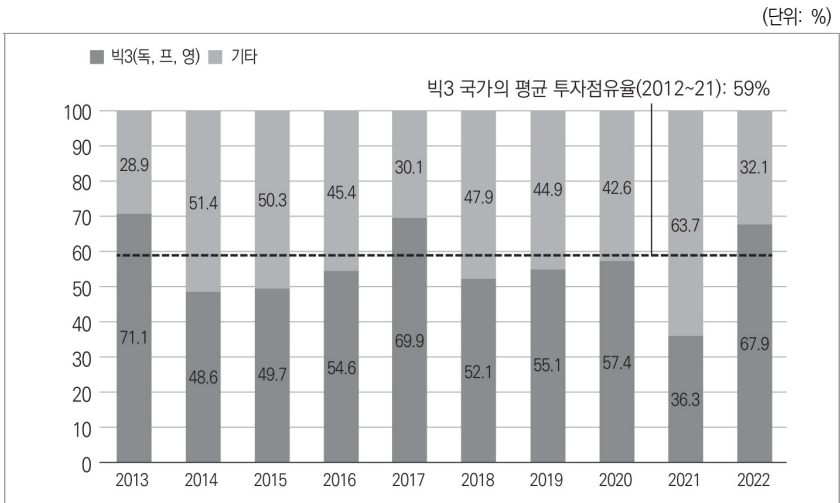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시진핑 시기(2013~22년) EU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특정 지역에 집중도가 높은 편이며 2022년 기준 중국의 대EU 투자의 67.9%가 3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하 빅3)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빅3 국가에 대한 평균 투자점유율인 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그림 3-8). 빅3 중 영국이 가장 많은 중국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텐센트의 스모 디지털 인수투자, 엔비전 AESC에 대한 지속적인 그린필드 투자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영국 자동차 기업인 로터스그룹에 대한 지분투자, 독일 의료 장비 제조업체인 Wallaby 인수, 텐센트의 프랑스 기업 유비소프트 지분 인수 등이 빅3 국가에

73) 중국 텐센트는 2020년부터 프랑스에 5건의 투자를 시행. 우선 2018~20년 3차례에 걸쳐 비방디에 70억 달러 투자를 시행했으며, 2020년에는 프랑스 모바일 게임회사 부두(Voodoo)에 3억 3천만 달러 투자를 시행하였다. 2022년에는 프랑스 게임개발사인 UBISOFT에 3억 달러를 투자했다.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정리.

대한 투자를 집중시켰다.⁷⁴⁾

그림 3-8. 중국의 유럽 내 빅3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Merics-Rhodium(2023. 5), p. 8.

한편 최근 EU 지역에서도 외국인 투자심사가 강화되었다. 2017년 기준 EU 회원국 중 11개국에만 외국인 투자심사 규정이 있었지만, 2022년 기준 2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⁷⁵⁾ 특히 그동안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왔던 영국 역시 최근 새로운 「외국인 투자규제 법안(국가보안 및 투자법, NSI)」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NSI는 특히 소급제도를 마련하여 신고대상 산업군을 포함해 국가안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⁷⁶⁾이 가능한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영국정부는 2022년 NSI에 근거하여 중국기업에 뉴포트 웨이퍼 팹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인수 철회 명령을 내렸다. 관련 거

74) Merics-Rhodium(2023. 5), p. 7.

75) *Ibid.*, p. 16.

76)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21. 6. 7),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강화」(검색일: 2023. 12. 7).

래는 이미 1년이 지난 건으로 중국 소유 반도체 기업이 영국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뉴포트 웨이퍼 팩을 인수(100% 지분 확보)한 건이다. 영국정부는 중국기업에 뉴포트 웨이퍼 팩 지분을 최소 86% 매각하도록 소급 적용하면서 관련 투자가 거래 1년 후에 무산되었다.

독일정부 역시 시진핑 정부 2기인 2017년부터 독일의 투자심사 규정(「대외무역법」, Außenwirtschaftsverordnung)을 여러 차례 보완했으며, 그 결과 중국에 대한 투자심사 건수가 증가했다. 2023년 3월 말, 독일정부가 11개 투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는데, 그중 10건이 중국기업의 대독일 투자 건이었다.⁷⁷⁾

표 3-5. EU가 규제한 중국의 대EU 투자 사례(2022년)

중국기업	투자기업	투자국	분야	조치
Aeonmed	Heyer Medical	독일	의료 장비	정부에 의해 무효
Beijing Infinite Vision Technology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카메라 기술	정부에 의해 거래 차단
CCUI and CRRC	Alpi Aviation	이탈리아	드론	정부에 의해 무효화
CIMC	Maersk's box manufacturing unit, MCI	덴마크	물류	제안 철회
China General Nuclear(CGN)	Sizewell Nuclear Project	영국	원자력 발전	영국정부가 CGN 지분 매입.
China Power International Holding	XRE Alpha Limited	영국	핵심인프라	제한적 허용 (단, 특정 규칙 적용)
COSCO	HHLA Container Terminal Tollerort	독일	물류	제한적 허용
EFORT Intelligent Equipment	Alpi Aviation	이탈리아	로봇	지분증가 허용 (기술이전 거부)
Nexperia	Newport Wafer Fab	영국	반도체	최초 청산 후 추가 주식 강제 매각

77) 위의 자료, p. 16.

표 3-5. 계속

중국기업	투자기업	투자국	분야	조치
Redrock Investment Limited	Electricity North West	영국	핵심인프라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 후 무산
SAI Microelectronics	Elmos	독일	반도체	차단
Shanghai Kington Technology	Perpetuus	영국	Graphene	검토 후 무산
Shanghai Sierchi Enterprise Management Partnership	Flusso	영국	반도체	검토 후 무산
Super Orange HK Holding Limited (Univista)	Pulsic Limited	영국	반도체	차단
Syngenta (Chinese owned)	Verisem	이탈리아	농업	법원, 정부 거부권 인정
Unknown Chinese Company	ERS Electronic	독일	반도체	차단

자료: Merics-Rhodium(2023. 5), p. 17.

2)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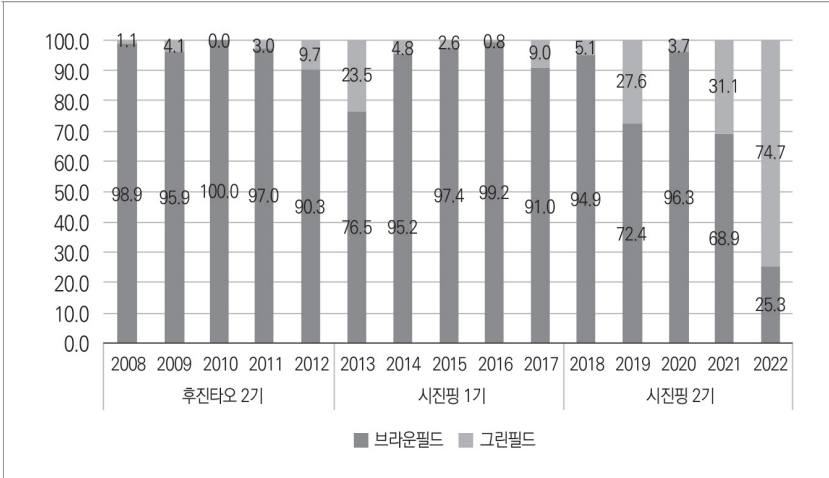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EU 지역의 우수한 기술 확보를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하고자 브라운필드의 주요 방식인 인수합병(M&A) 위주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시행되고 있어 기존 투자방식에 변화를 보였다.

중국의 대EU 그린필드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그린필드 투자 금액이 71억 4천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74.7%를 차지하면서 브라운필드 투자(24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그린필드 투자 증가와 더불어 2016년 정점 이후 M&A가 감소했기 때문이다.⁷⁸⁾

78) Merics-Rhodium(2023. 5), p. 5.

그림 3-9. 중국의 대EU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최근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EU 회원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 검토 정책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장벽이 낮은 그린필드 투자 형태로 EU 지역에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CATL이 헝가리 데브레첸에 배터리 산업 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8월에는 Envision Power가 프랑스 북부에 제조 기지를 건설하고 2025년부터 생산한다는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⁷⁹⁾

또한 2022년 중국의 대EU 그린필드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그린필드 방식의 대규모 투자가 6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배터리 대기업은 2017년 이후 그린필드 투자 형태로 EU 지역에 투자를 확대⁸⁰⁾하고 있다. 특히 CATL, Envision AESC 및 SVOLT 등 중국기업이 독일, 헝가리, 영국 및 프랑스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주로 자동차 부문에 집

79) 欧盟中国商会CCCEU(2023. 11. 15), 「欧盟中国商会发布中企在欧发展报告欧盟营商环境总体得分连续第四年下行但降速趋缓」(검색일: 2023. 12. 1).

80) Merics-Rhodium(202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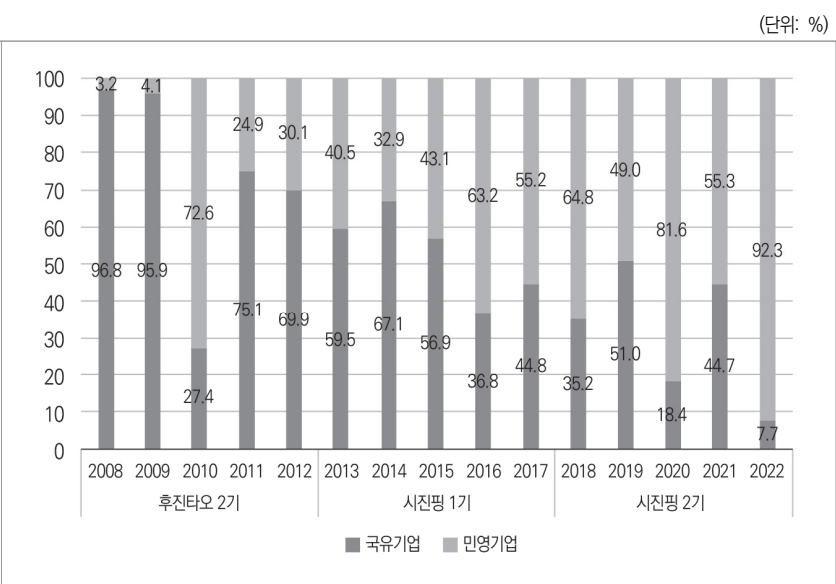
증된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표 3-6).

표 3-6. 중국의 투자유형별 상위 10대 대EU 투자 사례							
(단위: 백만 유로)							
투자형태		발표일	투자기업	투자 분야	투자국	투자 분야	투자액
1	그린필드	2022. 8. 12	CATL	Battery plant	헝가리	자동차	7,600
2	그린필드	2017. 5. 24	Zhejiang Geely Holding Group	Group Lotus	영국	자동차	2,600
3	그린필드	2021. 6. 28	Envision AESC	Battery plant	프랑스	자동차	2,000
4	그린필드	2020. 11. 17	SVolt Energy Technology Co.	Battery plant	독일	자동차	2,000
5	그린필드	2018. 6. 6	CATL	Battery plant	독일	자동차	2,000
6	브라운(M&A)	2022. 1. 17	Tencent	Sumo Digital	영국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및 교육	1,260
7	브라운(M&A)	2021. 6. 1	Wallaby Medical	phenox GmbH	독일	보건, 의약 및 바이오	539
8	그린필드	2021. 5. 15	Envision AESC	Battery plant	영국	자동차	450
9	그린필드	2020. 8. 6	Bytedance (Tiktok)	Data center	아일랜드	ICT	420
10	브라운(M&A)	2021. 11. 17	China Three Gorges(CTG)	Wind farm portfolio (181 MW)	스페인	에너지	349

자료: Merics-Rhodium(2023. 5), p. 6.

중국의 대EU 기업유형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국유기업에서 민영기업 중심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유기업 주도로 투자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진핑 시기 들어 민영기업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40.5%에서 2016년 63.2%로 민영기업의 투자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시기는 해외투자의 주체가 국유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변화되는 시기다. 2018년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비중이 64.8%로 국유기업의 비중을 상회했으며, 2022년에는 해외투자가 대부분 민영기업에 의해 진행되었다. 2022년 중국의 대EU 투자는 총 15건 시행되었는데 그중 3건을 제외한 12건이 모두 민영기업의 투자 건이다.

그림 3-10. 중국의 대EU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함께 투자한 경우에는 국유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부기관은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민영기업에는 중외합자기업도 포함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분야별 투자 추이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왔다. 상무부 투자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누적기준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3조 4,345억 달러(34%)로 나타났으며, 주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등지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업(19억 7천만 달러), 도소매업(65억 달러) 순으로 투자가 많이 시행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시진핑 정부 2기(2013~17년)에는 교통·운수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다. 시진핑 정부 2기 동안 이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후진타오 정부 2기와 비교 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AEI DB에서 교통·운수 분야는 교통 관련 장비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 3-7. 중국의 대EU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후진타오 정부 2기 (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 (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 (2018~22년)
교통·운수	10,970	26,480	33,830
엔터테인먼트	-	15,180	17,170
에너지	18,150	15,950	14,360
기술	3,990	15,850	12,940
금융	1,680	27,020	5,830
의료보건	270	2,410	5,510
농업	2,430	6,400	2,020
관광	-	8,990	1,340
부동산	3,830	21,360	1,320
물류	-	16,700	1,100
금속	1,440	230	790
유틸리티	1,120	2,030	570
화학	2,110	130	360
기타	250	5,550	9,01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대EU 상위 10대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총 10건 중에 4건이 교통·운수 관련(258억 달러)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물류, 금융 등 순으로 투자가 많이 되었다.

한편 시진핑 정부 1기인 2017년에 단일 투자로 물류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이 M&A 투자 건은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관리하는 유럽 물류기업인 Logicor를 중국 투자회사(CIC)가 매입한 사례다. 매입금액이 약 137억 달러에 달하면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표 3-8. 중국의 상위 10대 대EU 분야별 투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시기	투자기업	투자대상기업	관련산업	규모	방식
2017. 7	China Investment Corporation(CIC)	Blackstone, 영국	물류	13,790	B
2017. 12	Ping An	HSBC, 프랑스	금융	9,660	B
2018. 2	Zhejiang Geely	Daimler, 독일	교통·운수	9,030	B
2019. 6	China General Nuclear	Hinkley Point C, 영국	에너지	8,860	G
2016. 6	Tencent-led consortium	Supercell, 핀란드	엔터테인먼트	8,600	B
2015. 6	China National Chemical (ChemChina),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SAFE)	Pirelli, 이탈리아	교통·운수	7,860	B
2015. 9	HNA	Avolon, 아일랜드	교통·운수	5,170	B
2019. 3	Anta Sports-led consortium	Amer Sports, 핀란드	엔터테인먼트	5,050	B
2016. 8	Midea	Kuka, 독일	기술	4,680	B

표 3-8.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시기	투자기업	투자대상기업	관련산업	규모	방식
2021. 3	Hillhouse Capital	Philips, 네덜란드	기타(소비재)	4,380	B
2022. 9	Contemporary Amperex Tech	헝가리	교통 · 운수	3,750	G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분야별 투자 특징

가. 교통 · 운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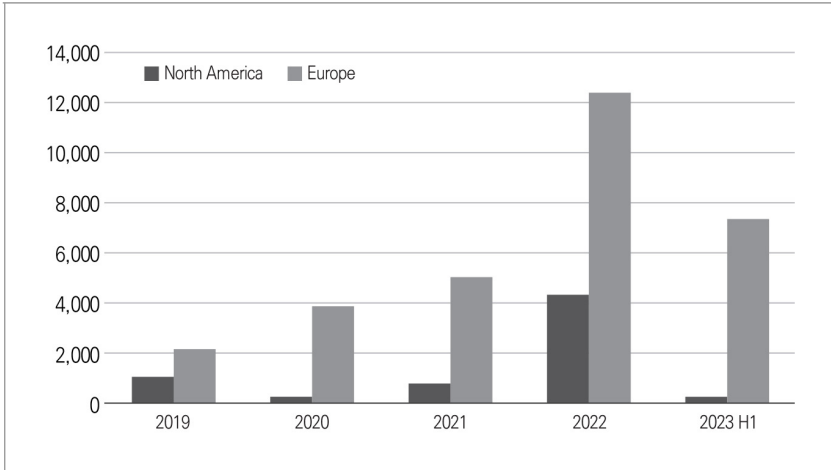
교통 · 운송 분야는 2008년 이후 미국과 EU 지역에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다.⁸¹⁾ 교통 · 운송 분야에는 철도, 항공, 자동차, 선박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이 미국과 EU 지역에 주로 투자한 분야는 자동차 관련 분야다. 이 분야에는 신에너지 관련 첨단 제조업 시설 분야(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시설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진핑 시기 들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다.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중국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생산시설과 차량 생산을 포함한 전기자동차(EV)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과 EU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는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로 기존에 비해 투자가 어려웠으나, EU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투자 규제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9년 이후 중국기업은 프랑스, 영국, 헝가리 등 EU 지역에 전기자동차 공급망 구축을 위해 3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시행한 반면, 대미투자액은 70억 달러 미만이었다(그림 3-11).

81)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교통과 운송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다. 기타 분야에는 소비재 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으며, 의류 분야 2건, 교육 분야 2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11. 중국의 대미·대EU EV 공급망 구축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Rhodium GROUP(2023. 9), "Vanishing Act: The Shrinking Footprint of Chinese Companies in the US," p. 7.

중국의 대미 교통·운수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영기업 주도의 브라운필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미 해외투자는 2009년 이후 총 34건 시행되었는데, 대부분 자동차 관련 분야(25건)에 시행되었다.

그동안 브라운필드 중심이었던 교통·운수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는 시진핑 시기 들어 그린필드 형태로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건의 그린필드 투자가 진행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로는 2022년 중국 엔비전(远景能源有限公司) 그룹이 미국 켄터키주에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공장 구축⁸²⁾을 위해 투자한 사례다. 새롭게 구축될 배터리 공장의 초기 연간 생산능력은 30GWh(순수전기차 30만 대 기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비전은 2025년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벤츠 등 자동차 회사에 고성능 차량용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다.⁸³⁾

82) 网易(2022), 「远景投资20亿美元在美国建设第二座锂电池工厂, 拟寻求剥离电池部门上市 | 前线」(검색일: 2023. 9. 18).

83) 위의 자료.

중국의 EU 교통·운수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영기업 주도의 브라운필드 형태 위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EU 해외투자는 2008년 이후 총 81건 시행되었는데, 대부분 자동차 관련 분야(54건)에 시행되었다.

중-EU 교통·운수 분야 주요 해외투자국은 시기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시진핑 정부 2기 기준 독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투자로는 2018년 중국 지리자동차(Geely)가 기술협력 및 공유를 위해 독일 다임러에 10%의 지분 투자를 시행한 건이다.⁸⁴⁾

한편 2022년 중국의 대EU 투자 현황 중 헝가리에 시행된 대규모 투자가 가장 눈에 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 지역이 아니었다. 동 기간 헝가리에 대한 중국의 해외투자는 평균 0.05%로 1% 미만 수준이다. 하지만 2022년 이례적으로 중국기업이 헝가리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했으며, 시행 주체는 세계 최고 2차 전지 기업인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이었다. CATL은 헝가리 동부 데브레첸에 100GWh 배터리 공장의 건설계획을 공개했다.⁸⁵⁾ 데브레첸은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CATL 고객의 자동차 공장과 거리적으로 가깝다. 향후 신규 공장이 건설되면 CATL은 EU 시장 진출과 동시에 EU 시장 내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다른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인 EVE도 헝가리 데브레첸 인근에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10억 유로)를 시행하여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⁸⁶⁾

84) “Geely to launch China ride-hailing venture with Daimle”(2018. 10.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7).

85) CATL(2022. 8. 12), “CATL announces its second European battery plant in Hungary”(검색일: 2023. 12. 7).

86) “Chinese battery maker EVE Power to build plant in Hungary”(2023. 5.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7).

표 3-9. 교통·운수 분야 중국의 EU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독일	520	6,050	20,060	26,630
이탈리아	460	8,290	-	8,750
스웨덴	2,700	-	5,950	8,650
그리스	5,790	520	480	6,790
아일랜드	-	6,370	-	6,370
헝가리	-	-	3,870	3,870
영국	730	2,290	670	3,690
프랑스	-	2,260	1,360	3,620
스페인	-	350	880	1,230
네덜란드	270	-	420	690
룩셈부르크	-	350	-	350
오스트리아	280	-	-	280
핀란드	-	-	140	140
불가리아	120	-	-	120
폴란드	100	-	-	10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EU 빅3 경제권과 헝가리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는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시기별로 투자동기가 변화되고 있다. 먼저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10년의 중국 자동차 기업의 투자(지리자동차의 스웨덴 볼보 인수)는 인수합병을 통해 자동차 제조기업을 인수가 주된 목적이었다. 즉 EU 지역 내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하여 해당 국가 및 인접 국가에 관련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시진핑 정부 2기 이후 중국기업은 EU 지역을 전기차 분야 글로벌 공급망 확장의 기지로 활용하고자 그린필드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

나. 에너지 분야

중국은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및 공급 루트의 다각화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 지원하에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은 에너지 분야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⁸⁷⁾

중국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은 미국지역과 EU 지역의 경우 시기별로 상이하다. 먼저 미국의 경우 후진타오 정부 2기와 시진핑 정부 1기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시행된 반면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투자규모와 건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반면 EU 지역에 대한 에너지 분야 투자는 시기와 상관없이 여전히 활발하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지역의 경우 시진핑 2기 들어 시진핑 정부 1기에 비해 투자 건수는 감소했지만, 투자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투자 건당 규모가 대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먼저 중국의 대미국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시기와 상관없이 주로 브라운필드 형태로 석유(Oil), 천연가스, 대체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었다. 중국의 대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는 2008년 이후 총 27건 투자가 시행되었으며,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10년에 가장 활발했다. 대표사례는 2010년 10월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천연가스 기업 체사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의 셰일가스 개발사업 프로젝트⁸⁸⁾에 23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석유와 가스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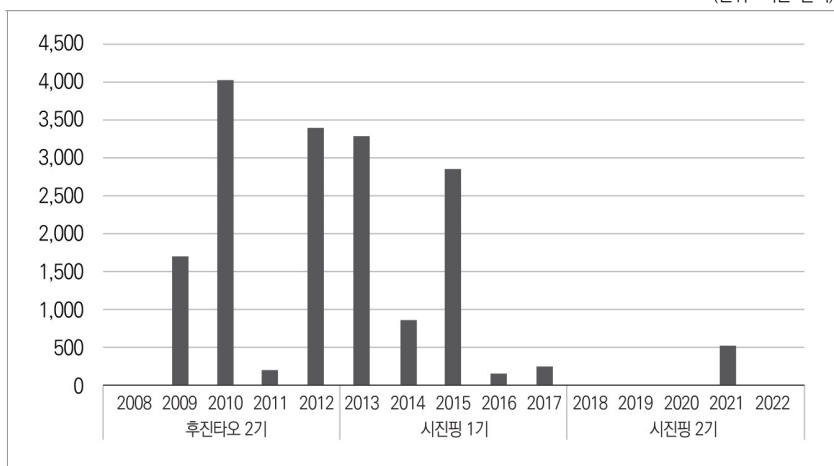
반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11년 이후로 대체에너지 분야에 7건의 투자가

87) 이승진 외(2018), p. 105.

88) Chesapeake Energy(2015. 11. 15), "CHESAPEAKE ENERGY CORPORATION AND CNOOC LIMITED ANNOUNCE CLOSING OF EAGLE FORD SHALE PROJECT COOPERATION AGREEMENT"(검색일: 2023. 12. 7).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도 중국의 대미 에너지 분야 투자는 모두 브라운필드 방식으로 석유⁹¹⁾분야와 대체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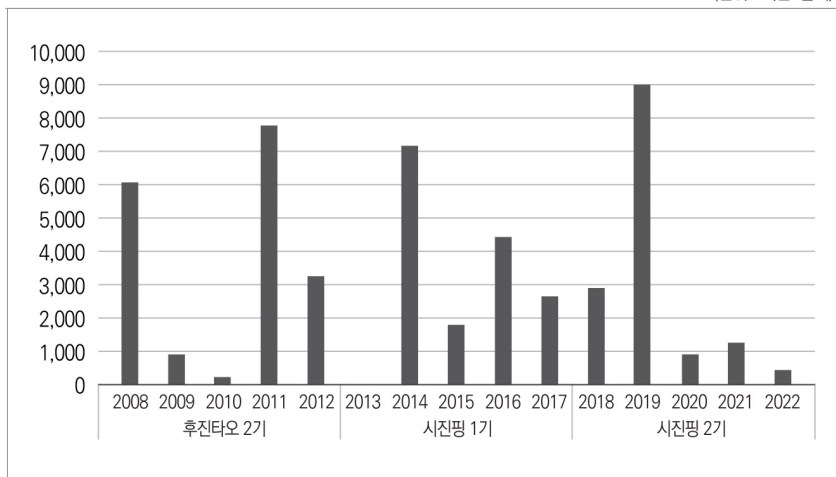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1) 대표적으로 2021년 2월 중국 신차오 에너지(烟台新潮实业股份有限公司)가 미국 텍사스 위치한 그레 나디르 에너지(Grenadir Energy Partners)의 가스전을 4억 2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투자를 시행 했다. Yicai Global(2021. 2. 3), “China’s Xinchao Energy Jumps as It Snaps Up Another Texas Oil Field for USD420 Million”(검색일: 2023. 12. 7).

중국의 대EU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유기업 주도의 브라운필드 위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EU 해외투자는 2008년 이후 총 50건 시행되었는데, 대부분 대체에너지 분야다. EU 지역 내 에너지 분야는 전 시기에 걸쳐 영국(35.4%)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다. 가장 대규모 투자는 시진핑 정부 2기인 2019년 중국기업이 영국 힙클리 포인트(Hinkley Point)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투자한 건이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원전 관련 해외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힙클리 포인트 C원전 건설 사업은 영국 남부 서머셋주에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집단(CGN)이 공동 출자해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림 3-13. 중국의 대EU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중국기업은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원자력 분야에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2013년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원전 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원전 기업의 해외진출 방향을 제시

했다.⁹²⁾ 2015년 5월에는 ‘설비제조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재원조달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⁹³⁾

그 밖에 시진핑 정부 2기 중국 국영기업인 장강삼협유한공사(中国三峡新能源(集团)股份有限公司, China Three Gorges)가 스페인에 4차례에 걸쳐 대체 에너지 분야(태양광, 풍력)에 17억 7천만 달러 투자를 시행하면서 중국의 스페인 투자가 급증했다.

표 3-10. 중국의 대EU 에너지 분야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영국	4,900	1,450	10,790	17,140
프랑스	6,550	110	-	6,660
이탈리아	200	6,280	-	6,480
포르투갈	4,490	850	260	5600
독일	510	3,130	-	3640
스페인	-	730	1,770	2500
그리스	-	1,990	-	1990
네덜란드	1,240	-	-	1240
스웨덴	-	-	1,210	1210
폴란드	-	540	-	540
몰타	-	440	-	440
아일랜드	-	430	-	430
벨기에	260	-	-	260
크로아티아	-	-	220	220
헝가리	-	-	110	11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2) 김정인(2016), p. 22.

93) 위의 자료,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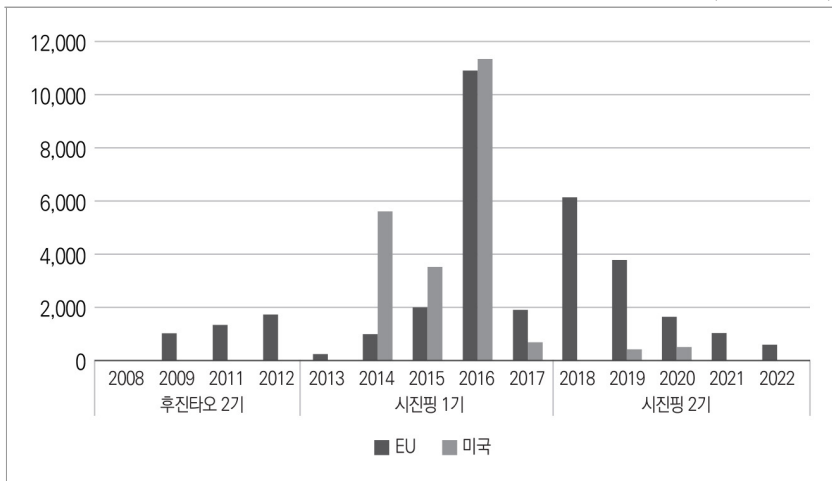
다. 기술 분야

중국의 대미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는 시진핑 정부 1기에 부동산 다음으로 많이 투자되었던 분야였으나, 미국의 대중 투자견제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분야다. EU 역시 2016년 이후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미 기술 분야 투자는 2014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113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중국 통신 기업인 화웨이 등을 시작으로 5G, 반도체, 슈퍼컴퓨터,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서 투자가 감소했다. 그 결과 2017년 6억 달러로 급감했으며, AEI DB 기준 2022년 미국 기술분야에 투자한 중국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중국의 대미·대EU 기술 분야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술 분야 투자사례를 통해 중국기업의 대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투자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들은 시진핑 정부 2기에는 텐센트(1억 5천만 달러)를 제외하고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중국의 대미 기술 분야 주요투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기업명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HNA	6,340	-	6,340
Lenovo	5,050	-	5,050
Zhuhai Seine Technology, Legend	3,400	-	3,400
Tsinghua Holdings, 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ITIC)	1,900	-	1,900
Uphill Investment	730	-	730
Suzhou Dongshan	610	-	610
Oceanwide Holdings, IDG Capital	540	-	540
Beijing Shanhai Capital, National IC Fund	510	-	510
Tencent	230	150	380
Baidu	300	-	300

주: 2008년 이후 중국의 대미국 기술분야 투자액 합계 상위 10대 기업.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대EU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는 민영기업 주도의 브라운필드 위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EU 기술 분야 투자는 2008년 이후 총 40건 시행되었는데, 대부분 통신 관련 분야(20건)에 시행되었다. EU의 경우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특정 국가의 일부 산업의 경우 투자가 증가되고 있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1기 이후 영국 최대 데이터센터의 인수를 위해 민간기업 컨소시엄(AVIC, 장수사강그룹 등)을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브라운필드 형식으로 글로벌 스위치(Global Switch)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했다. 2016년 영

국 글로벌 스위치의 지분 49%를 인수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 시진핑 정부 2기에도 2018년에 약 24억 달러를, 2019년에 약 22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편 시진핑 정부 2기 중국기업의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TikTok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투자한 것이다.

표 3-12. 중국의 대EU 기술 분야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영국	-	4,040	4,850	8,890
네덜란드	-	4,550	2,140	6,690
독일	670	5,140	370	6,180
프랑스	490	310	3,260	4,060
이탈리아	130	630	1,250	2,010
스페인	1,500	-	-	1,500
헝가리	1,200	210	-	1,410
아일랜드	-	-	650	650
핀란드	-	190	420	610
그리스	-	560	-	560
벨기에	-	220	-	22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소결

본 장에서는 중국 상무부 해외투자 통계와 AEI DB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미국·대EU 투자 현황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했다. AEI DB에서 조사된 기업들로만 중국의 대미국·대EU 투자 현황을 대표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대미국·대EU 투자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주요 분야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AEI DB에 포함된 기업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먼저 후진타오 정부 2기 적극적으로 시행된 중국의 대미 해외투자는 시진핑 시기 이후 미국의 투자규제 강화 조치로 투자 규모와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투자강화 조치가 최근 들어 EU 지역에도 정비되면서 중국기업의 EU 지역 내 투자규제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EU는 2022년 들어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로봇 등) 투자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 투자 주체와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국 해외투자의 경우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11년부터 투자주체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시진핑 시기에는 민영기업 주도의 해외투자로 변화되었다. EU 지역 역시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민영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중국의 대미·대EU 주요 투자분야인 교통·운수, 에너지, 기술분야의 경우 시기별로 투자동기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그동안 중국의 교통·운수 분야의 대미·대EU의 해외투자는 해당 국가 혹은 인접 국가에 생산품을 공급하는 등 시장개척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로 중국기업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필요해졌다. 특히 주요 해외투자처인 미국으로의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들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기업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제한이 낮은 EU 지역으로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2기 중국 전기차 시장진출과 관련 분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그린필드 투자가 EU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둘째, 중국기업은 안정적인 해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중국의 대미 에너지 분야 투자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유가스전에 투자를 집중했다. 반면 EU 지역에는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

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영국 원자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국의 원자력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원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중국기업은 첨단기술 분야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미, 대EU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특히 중국기업은 2014년 이후 미국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반도체, AI,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강화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감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2012년 이후 외국인투자심의회(CFIUS)를 재정비하여 중국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심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은 시진핑 정부가 첨단제조업의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심사된 중국의 투자심사 건수는 총 143건으로 전체 투자의 25.9%에 해당⁹⁴⁾한다. 이 중 다수의 투자가 대통령 투자 금지명령, 인수 포기 등으로 무산되었다.

동 시기 중국기업의 EU 지역에 대한 기술분야 투자 역시 소폭 감소했다. EU 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투자지역이자 자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다. 그동안 중국은 EU 지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특히 시진핑 시기 들어 EU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EU에 대한 기술분야 투자는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특정 국가의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기도 했다.

94) CFIUS(2016-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p. 18.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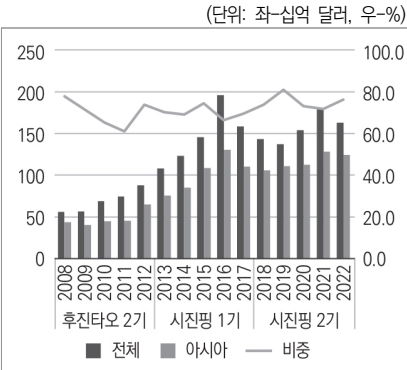
- 
1. 개요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1. 개요⁹⁵⁾

중국정부가 ‘해외진출(走出去)’ 전략을 공식화한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아시아는 중국의 핵심적인 투자대상지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중국 상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국해외직접투자통계공보(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아시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1위 지역을 차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22년 말 기준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 잔액은 1조 8,319억 달러로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 대상국(지역)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UAE,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⁹⁶⁾ 그중에서 홍콩에 대한 투자 잔액이 8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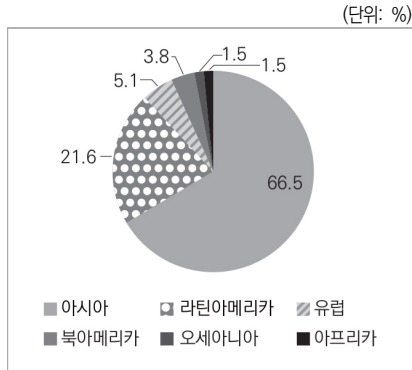
[그림 4-1]과 같이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10년대 들어 증가세

그림 4-1.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추이
(중국 상무부 기준)



자료: CEIC DB(검색일: 2023. 11. 9).

그림 4-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분포



주: 2022년 누적 기준임.

자료: 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2023), p. 21.

95) 본 장에서 활용한 중국 상무부 데이터와 AEI Database의 아시아 지역의 국가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국 상무부는 아시아 46개국에 홍콩을 포함하나 AEI Database의 아시아 지역 범주에 홍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AEI Database는 서아시아에 러시아를 포함하나 중국 상무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AEI의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표와 그림 자료는 중동(Arab Middle East), 동아시아(East Asia), 서아시아(West Asia)의 총 45개국이 포함된다. 45개국의 국가 리스트는 [부록 표 1] 참고.

96) 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2023), p. 21.

를 보이다가 2016년 1,30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해왔다. 2022년에는 1,240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2%를 기록하여 2016년의 6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상무부 데이터와는 국가 구성, 집계 방식 및 기준 등의 차이로 연도별 투자 규모는 상이하나 AEI DB 역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AEI DB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액 기준으로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4-3]에 따르면 2008년 150억 달러 미만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액이 2015년 392억 2,000만 달러로 투자 건수(16건 → 63건)와 비중(24.5% → 33.7%) 모두 증가했다. 반면 2016년에는 전년대비 39.6% 감소한 237억 달러에 그쳤다. 이후 시진핑 정부 2기에 접어들어 약 350억 달러 수준에 머물던 대아시아 직접투자액이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20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전체

그림 4-3.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추이



주: '비중'은 중국의 대세계 직접투자액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상위 15개 국가(투자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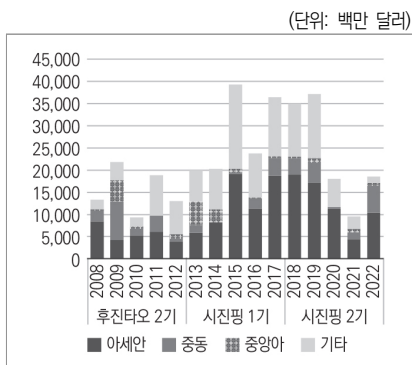
순위	2008-22년 누적	순위	2022년		
1	싱가포르*	39,730	1	사우디 아라비아**	5,550
2	인도네시아*	35,130	2	인도네시아*	3,910
3	러시아	29,450	3	싱가포르*	2,500
4	말레이시아*	21,310	4	말레이시아*	1,570
5	파키스탄	16,570	5	라오스*	750
6	인도	16,400	6	캄보디아*	690
7	라오스*	14,600	7	이라크**	610
8	카자흐스탄	13,750		태국*	610
9	이라크**	13,590	9	방글라데시	530
10	일본	12,550	10	타지키스탄	480
11	사우디 아라비아**	11,580	11	한국	400
12	한국	10,980	12	베트남*	290
13	캄보디아*	10,550	13	인도	260
14	베트남*	8,480	14	일본	140
15	UAE**	8,020	15	파키스탄	130
				우즈베키스탄	130

주: *표시는 아세안, **표시는 중동 국가임.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보다 높은 42.7%를 기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중요한 해외투자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022년의 투자액은 186억 달러로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보다 못 미치나 비중 측면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최고치인 44.2%를 기록하여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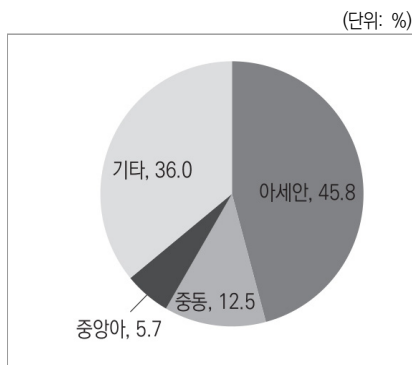
중국은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추진해왔다. 2008~22년까지 누계 기준 투자 상위 국가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라오스, 카자흐스탄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22년 기준 투자 상위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이라크, 태국 순이다. 그중에서도 아세안, 중동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그림 4-4]와 [그림 4-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2018년~22년)를 거치면서 각각 36.5%, 45.3%, 52.5%로 점

그림 4-4.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직접투자 추이



주: 아세안 10개국, 중동 9개국, 중앙아 5개국, 기타 21개국임.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5.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직접투자 비중



주: 2008~22년 누계 기준임.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차 증가해왔다. 중동 9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에 각각 22.3%, 6.1%, 13.8%로 나타난다. 중국의 대 중동 직접투자는 투자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하면 시진핑 시기에 감소했으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어느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역대 지도부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투자액 기준으로 후진타오 정부 2기의 상위 5개 분야는 △ 에너지, △ 금속·광물, △ 부동산, △ 교통·운송, △ 물류 순이다. 시진핑 정부 2기에는 △ 에너지, △ 교통·운송, △ 금속·광물, △ 부동산, △ 기술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후진타오 정부 2기와 시

표 4-2. 중국의 대아시아 분야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후진타오 정부 2기 (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 (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 (2018~22년)	합계
에너지	45,650	63,030	37,280	145,960
교통·운송	3,870	8,170	27,870	39,910
금속·광물	11,220	7,240	13,280	31,740
부동산	5,170	13,830	7,180	26,180
물류	2,630	12,780	2,820	18,230
기술	980	5,570	4,880	11,430
금융	1,990	4,640	4,330	10,960
관광	1,510	6,790	1,090	9,390
농업	790	4,270	1,460	6,520
엔터테인먼트	340	1,180	2,260	3,780
의료·보건	900	1,320	770	2,990
유틸리티	-	1,640	-	1,640
화학	-	110	860	970
기타	1,320	8,870	14,150	24,340

주: '기타'에는 소비재, 교육, 섬유, 목재 등이 포함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진핑 1, 2기 모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1위를 차지하였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시진핑 정부 1기에 63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시진핑 정부 2기에는 373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대아시아 직접투자 1위 분야를 유지했다.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는 후진타오 정부 2기에 39억 달러에서 시진핑 정부 2기에 279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투자 규모는 에너지, 교통·운송 분야보다 적지만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투자가 확대된 분야 중 하나로 기술 분야를 꼽을 수 있다.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⁹⁷⁾

가. 아세안

중국과 아세안은 1991년 대화관계를 시작한 이후 무역 규모 확대와 산업망·공급망 연계 강화, 양방향 투자 확대, RCEP 발효와 같은 지역 경제 통합 추진 등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⁹⁸⁾ 2021년 11월 중국-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함으로써 양측은 더욱 높은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⁹⁹⁾ 여기에는 중국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키고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¹⁰⁰⁾

97) [그림 4-5]와 같이 AEI DB에 따르면 2008~22년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에서 아세안과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8%, 12.5%로 아시아 내 다른 지역 중에서도 아세안과 중동에 대한 직접투자가 두드러진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를 아세안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98)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外(2023), p. i.

99) 위의 자료, p. ii.

100) 현상백 외(2021), p. 181.

투자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중국의 중점 협력 대상지역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에 관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투자 협력 강화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해왔다. 대표적으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hina-ASEAN Free Trade Area)¹⁰¹⁾의 설립 과정에서 △ 투자 시스템의 점진적 자유화, △ 투자 분야의 협력 강화, △ 투자 편리화 촉진, △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의 투명성 제고, △ 투자 보호를 위해 2009년 투자 협정을 체결하였다.¹⁰²⁾ 또한 중국-아세안 정상회의, 중국-아세안 엑스포, 중국-아세안 비즈니스·투자 정상회담 등과 같은 경제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 고위급 대화 협의체 구축, △ 정부와 재계 간 교류·협력 촉진, △ 재계 간 정보 교류·비즈니스 확대, △ 시장 개척 등을 도모해왔다.¹⁰³⁾

둘째, 시진핑 정부 1기 이후에는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높은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 협력이 더욱 심화되었다.¹⁰⁴⁾ 2013년 출범한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¹⁰⁵⁾ 중국 입장에서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일대일로’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노선과 6대 경제회랑의 핵심지역이 관통하기 때문에 협력 파트너로서

101)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hina-ASEAN Free Trade Area, 中国-东盟自由贸易区)’는 개발도상국 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2002년 11월 ‘제6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과 아세안 10개국이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 1월 1일에 출범하였다. 「기본협정」은 △ 경제, 무역, 투자 협력 강화 및 증진,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촉진,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실현, △ 투명하고 자유롭고 편리한 투자 메커니즘 구축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 목표를 명시하였다. 중국과 아세안은 「기본협정」에 서명한 이후 「상품무역 협정」(2004년 11월 서명), 「서비스무역 협정」(2007년 1월 서명), 「투자 협정」(2009년 8월 서명) 등을 추진하였다. 2015년 11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 기본협정 및 일부 협정 개정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동 의정서는 2019년 10월에 발표되었다. 또한 2023년 2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의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外(2023), p. 49; 百度百科, 「中国-东盟自由贸易区」(검색일: 2023. 11. 24)].

102) 「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东南亚国家联盟成员国政府 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投资协议」.

103) 현상백 외(2021), p. 182.

104) 黄立群, 钟惠泽(2023), p. 82.

105) 현상백 외(2021), p. 185.

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¹⁰⁶⁾ 그리고 ‘일대일로’와 연계된 각종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 협력 수요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대일로’의 5대 중점 협력 분야(5通)¹⁰⁷⁾의 추진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 간 투자 편리화 수준이 향상되고 상호 연결성이 확대되어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¹⁰⁸⁾ 아세안 각국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따라 중국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¹⁰⁹⁾

셋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목적은 ‘시장 지향형’, ‘자원 추구형’으로 요약된다.¹¹⁰⁾ 투자 환경 측면에서 아세안은 △ 약 7억 명의 거대한 인구 규모와 시장 잠재력, △ 주요 회원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 △ 역내 소비·무역의 급속한 성장 추세 시현, △ 풍부한 자원 부존량과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비용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 경쟁력 보유, △ 인프라 및 디지털경제 성장에 대한 거대한 수요 등의 장점이 있다.¹¹¹⁾ 특히 아세안 역내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5G 기지국 건설이나 AI 및 산업 인터넷 측면에서 건설 수요가 많다.¹¹²⁾ 아세안 국가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는 시장 및 전략적 자산 확보를 위한 동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³⁾

한편 아세안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FDI 유입에서 아세안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기준 아세안의 외국인투자국 순위는 미국(400억 달러, 전년대비 41% 증가) 다음으로 중국(약 140억 달러, 전년대비 96% 증가)인 것으로 나타난다.¹¹⁴⁾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 전기차, 디지

106) 위의 자료, p. 185.

107)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무역원활화(贸易畅通), 자금유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

108) 黄立群, 钟惠泽(2023), p. 82.

109) 위의 자료, p. 82.

110) 张岩, 王丽(2013), p. 170.

111)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外(2023), p. 31.

112) 위의 자료,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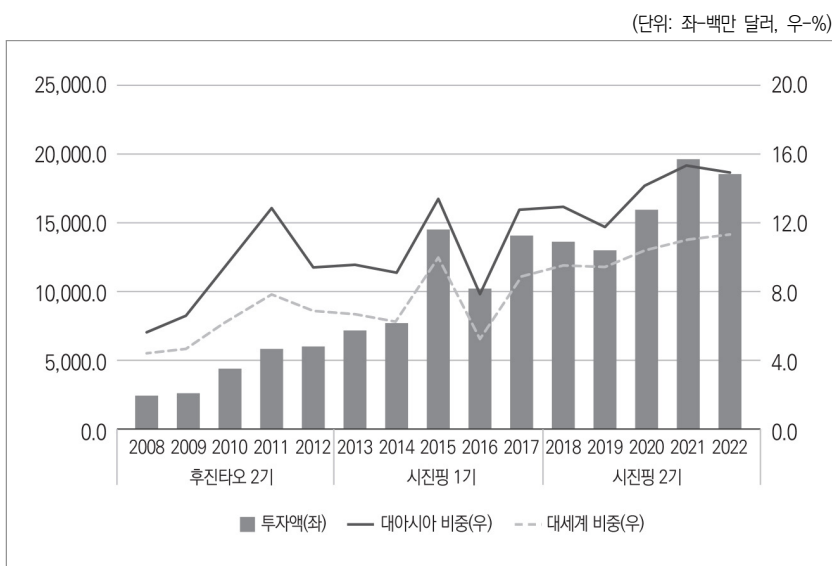
113) 走出去公共服务平台(2018. 3. 13), 「夏飞委员: 大力促进中国对东盟直接投资」(검색일: 2023. 11. 27).

114)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2022. 10. 20), 「东盟发布2022年投资报告(一): 东盟外国直接投资疫后强

털경제,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¹¹⁵⁾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상무부 통계에 근거하면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09년 중국-아세안 투자 협정 체결과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출범에 이어 시진핑 정부 1기의 시작인 2013년 ‘일대일로’가 추진되면서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2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년 146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인 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4-6.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추이(중국 상무부 기준)



주: 2022년 투자액은 「2022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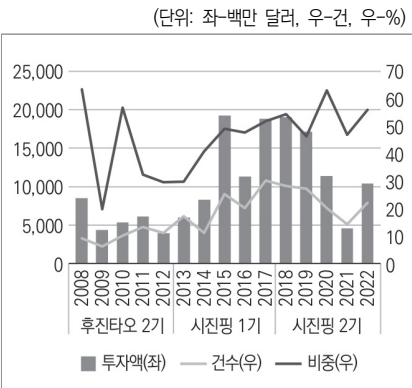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23. 11. 9); 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2023), p. 31.

劲复苏.(검색일: 2023. 11. 28).

115) 위의 자료.

AEI DB에 따르면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우선 규모 측면에서 후진타오 정부 2기와 비교하여 시진핑 집권 시기 들어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 상무부 데이터와 추세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각 시기별 5년간의 투자액을 비교하면 후진타오 정부 2기의 279억 달러에서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각각 632억 달러, 621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이 19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에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112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2017년, 2018년에 다시 약 190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그림 4-3]과 같이 같은 기간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액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4-7.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AEI 기준)



주: '비중'은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3.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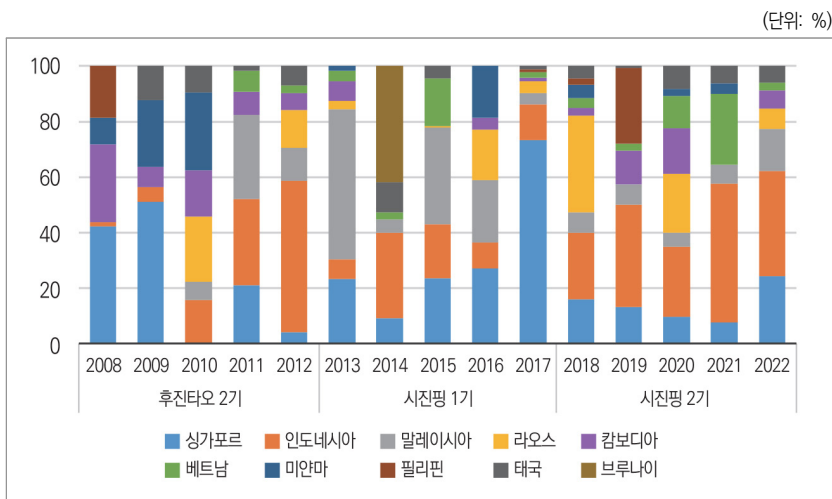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합계
싱가포르	7,160	23,360	9,210	39,730
인도네시아	5,160	10,160	19,810	35,130
말레이시아	2,640	13,580	5,090	21,310
라오스	1,750	3,100	9,750	14,600
캄보디아	4,300	1,140	5,110	10,550
베트남	560	4,050	3,870	8,480
미얀마	3,310	2,200	1,360	6,870
필리핀	1,580	190	5,060	6,830
태국	1,400	1,970	2,810	6,180
브루나이	0	3,440	0	3,44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둘째, 시진핑 정부 2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

자 규모가 19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당시 대아시아 직접투자에서 아세안 이 차지하는 비중은 48.8%였으나 2022년에는 투자 규모가 103억 달러로 대 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55.6%로 증가했다.

그림 4-8.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별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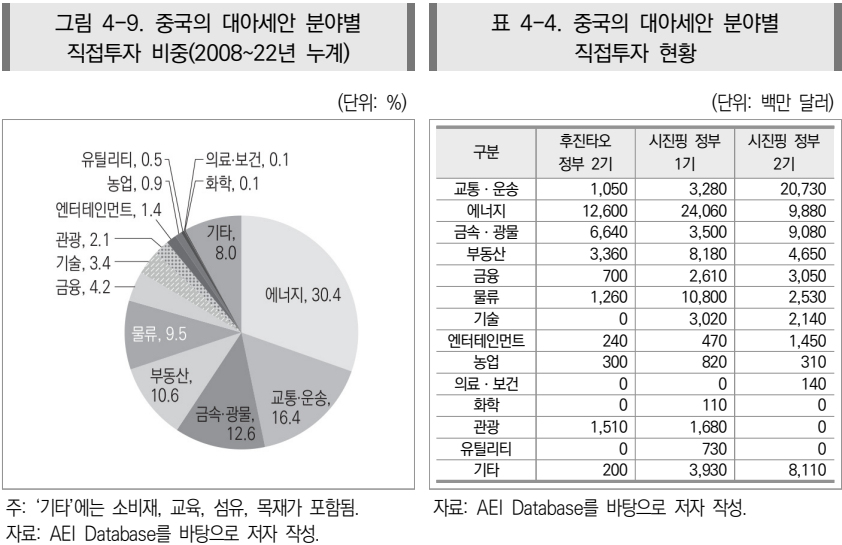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셋째,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의 국가별 분포는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표 4-3]과 [그림 4-8]을 종합해보면 싱가포르는 2008~22년 누적액 기준 중국의 아세안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연도별로 투자액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시진핑 정부 1기 대비 2기에는 61%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은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까지 중국의 직접투자액이 꾸준히 증가한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 1기 대비 2기에 투자액이 95% 증가했는데 시진핑 정부 2기에 금속·광물, 교통·운송 분야에서 이전 시기보다 투자액이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농업, 금융, 물류, 기술 분야로 투자 분야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후진타오 정부 2기에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투자 비중(45%)이 높았던 것에 비해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 교통·운송, 금속·광물, 금융, 기술, 엔터테인먼트,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2008~22년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에너지 분야가 3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운송, 금속·광물, 부동산, 물류 분야가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표 4-4]와 같이 역대 지도부 시기별로 살펴보면 중점 투자 분야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에너지 분야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규모는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99억 달러를 기록하여 시진핑 정부 1기 대비 59% 감소했다. 반면에 교통·운송 분야는 후진타오 정부 2기의 11억 달러에서 시진핑 정부 1기에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시진핑 정부 2기에는 무려 207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시 투자 규모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분야이다.

한편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투자 거래가 집계되지 않았던 기술 분야가 시진핑 시기에 대아세안 신규 투자 분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黃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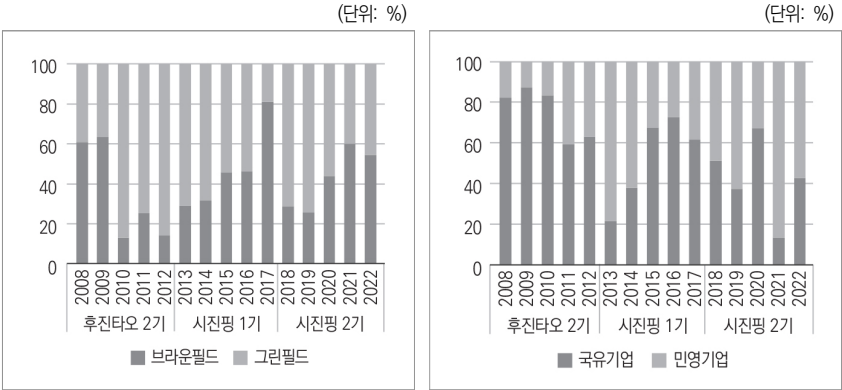


群, 钟惠泽(2023)에 따르면 ‘일대일로’ 출범 이전의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전기·가스·물 생산 및 공급, 채광업 등 자원형 산업과 전통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하에서 연선 국가와 신흥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기업이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이나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점차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투자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⁶⁾

다섯째,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유기업 주도로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추진되었다. 주로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석유천연가스(CNPC), 중국알루미늄(CHINALCO) 등과 같은 국유기업의 금속·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다.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투자 유형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높은 연도가 많았고 민영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림 4-10.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그림 4-11. 중국의 대아세안 기업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함께 투자한 경우에는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국유기업에는 정부기관도 포함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16) 黄立群, 钟惠泽(2023), p. 84.

나. 중동¹¹⁷⁾

[그림 4-5]와 같이 2008~22년 누적 기준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에서 아세안(45.8%) 다음으로 중동지역(12.5%)의 비중이 높다. 특히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내 중국의 제1위 직접투자 대상국이며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중동지역 내 핵심 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중동을 중점 투자 대상지역으로 삼는 배경과 최근 중국정부와 중동 국가 간의 협력 동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중국 입장에서 중동지역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원유 수입에서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2019~22년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였다.¹¹⁸⁾ 2022년 기준 중국의 10대 원유 수입국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17.1%), 이라크(10.9%), UAE(8.7%), 오만(7.8%), 쿠웨이트(6.5%)로 중동지역 5개국에 대한 원유 수입 비중이 51%에 달한다.¹¹⁹⁾

둘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도 중동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동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기 때문에 중동 내 국가들과의 ‘일대일로’ 협력 추진은 단순히 양자간의 경제 협력 증진에서 더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²⁰⁾ 중국은 2013년부터 아랍국가와의 협력과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중국-아랍국가 박람회’를 개최해왔으며 2023년 9월 제6회 박람회가 중국 닝샤 회족자치구 인촨(银川)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6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아랍 협력포럼

117) 본 소절의 본문과 데이터에서 지칭하는 중동지역은 AEI DB의 지역별 국가 분류에 따라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예멘 등 총 9개국을 의미한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포괄하여 ‘아랍국가(阿拉伯国家)’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동지역과 아랍국가를 혼용하여 서술한다.

118) 유광호 외(2023), p. 11.

119) MEES(2023. 4. 28), “China & India Import New Record Russian Volumes”(검색일: 2023. 10. 5).

120) 이동규(2021), p. 4.

제6차 장관급회의의 개막식에서 양측이 ‘일대일로’를 공동 추진하고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과 무역·투자 촉진을 도모하며 원자력, 항공우주, 신에너지와 같은 첨단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¹²¹⁾ 최근에는 ‘일대일로’와 중동국가의 발전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시진핑 지도부는 사우디아라비아 ‘Vision 2030’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기회 창출을 강조해왔으며 실제로 다수의 중국기업들이 네옴시티(Neom City) 등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인프라, 플랜트,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과 관련된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¹²²⁾

셋째,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중동지역 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 지역의 막대한 개발 수요에도 주목하고 있다.¹²³⁾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기간 동안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비롯하여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과 양자간 정상 교류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중동지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제1회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와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UAE 역시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첨단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¹²⁴⁾

넷째, 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동의 중요성이 커진 데는 이들 지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과 중동국가의 협력 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하면서 에너지(원유), 인프라, 무역, 투자, 금융,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사를 전달했고 빈

12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12. 1), 「新时代的中阿合作报告」(검색일: 2023. 12. 3).

122) 유광호 외(2023), p. 12.

123) 김영선(2022), 「시진핑 주석,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동향 및 전망」(검색일: 2023. 9. 15).

124) 강문수 외(2023), p. 1.

살만 왕세자는 중국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화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제한한 바 있다.¹²⁵⁾ 그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의 순방 기간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수소, 태양광, IT, 클라우드 서비스, 운송, 물류, 의료 등의 분야에서 34개 항목의 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중동지역 직접투자 규모와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¹²⁶⁾ 중동지역의 입장에서든 탈석유산업 육성, 외국 자본 및 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¹²⁷⁾ 이에 중국의 대중동 직접투자는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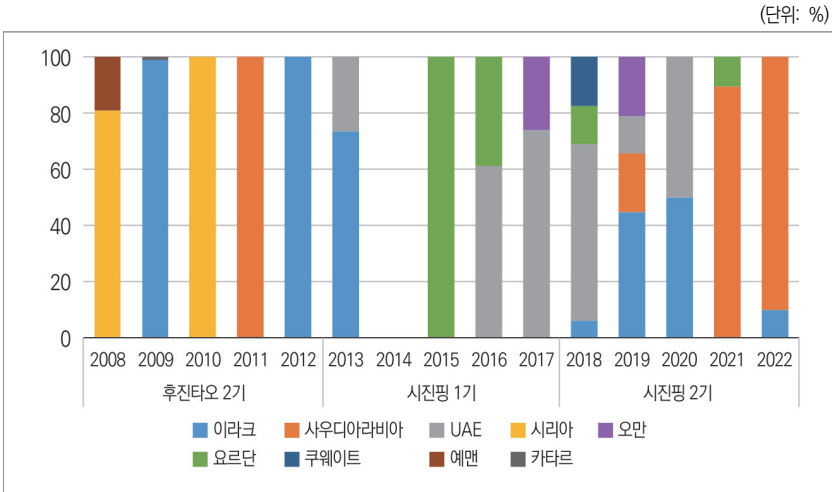
AEI DB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중동지역 9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22년 중국의 대중동 직접투자 건수는 총 40건에 불과하나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투자 규모 면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5년 동안의 대중동 직접투자가 총 17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시진핑 1, 2기에는 각각 85억 달러, 1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표 4-1]에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아시아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22년 누계 기준 투자 상위 15개 국가에 이라크(9위), 사우디아라비아(11위), UAE(15위)가 포함되며, 2022년 아시아에서 중국의 직접투자 제1위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난다. [그림 4-12]와 같이 중국의 대중동 직접투자 규모는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09년 8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2009년에는 중국석유천연가스(CNPC)의 이라크에 대한 2건의 에너지 분야 투자액이 약 86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에 는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가 시진핑 정부 1기 후반

125) 김영선(2022), 「시진핑 주석,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동향 및 전망」(검색일: 2023. 9. 15).

126) 위의 자료.

127) 위의 자료.

그림 4-13. 중국의 대중동지역 국가별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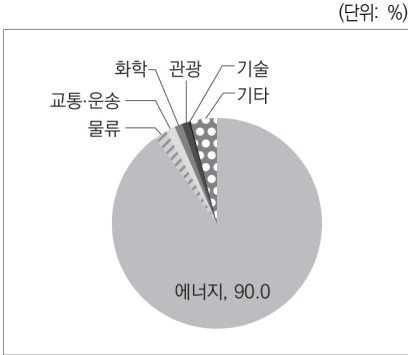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셋째, 중동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가 주도해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대중동 직접투자가 에너지 부문에서만 이뤄졌다. 이를 통해 중동에 대한 중국의 투자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에 대해 최근 중국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 경제 협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²⁸⁾ 후진타오 시기 에너지 일변도의 대중동 직접투자에서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운송, 화학, 기술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변화되었다. 시진핑 정부 2기 5년 동안 상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 건수가 각각 1건에 불과하고 투자 규모도 에너지 분야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나 투자 분야가 다양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8) 서상현(2023), p. 2.

그림 4-14. 중국의 대중동지역 분야별
직접투자 비중(2008~22년 누계)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6. 중국의 대중동지역 분야별
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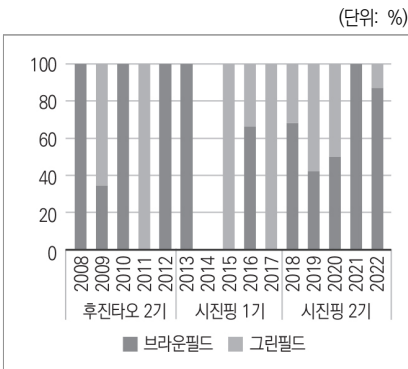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에너지	17,030	5,680	14,970
교통·운송	0	0	610
화학	0	0	500
물류	0	670	140
기술	0	0	110
관광	0	450	0
기타	0	1,690	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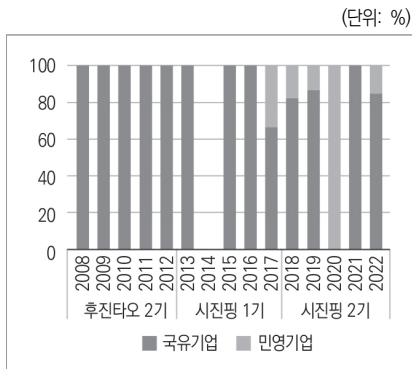
넷째, 중국의 대중동 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이 주도해왔으며 투자유형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2008~22년 브라운필드는 225억 달러, 그린필드는 194억 달러로 투자유형별 투자 규모는 브라운필드가 더 많으며, 각 연도별로 투자 건수가 1~6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 4-15]와 같이 나타난다. 분야별

그림 4-15. 중국의 대중동지역 투자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6. 중국의 대중동지역 기업유형별
직접투자 비중 추이



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함께 투자한 경우에는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국유기업에는 정부기관도 포함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로는 지난 15년 동안 브라운필드는 화학, 에너지, 물류, 기술, 관광 분야, 그린 필드는 에너지, 교통·운송, 기타 분야에서 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 각 분야별로 투자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유기업 위주로 추진되던 대중동 직접투자는 시진핑 정부 1기 후반부터 알리바바, United Energy(联合能源), Jinko Solar(晶科能源) 등과 같은 민영기업의 투자가 점차 확대되었다.

3. 분야별 투자 특징

가. 에너지 분야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에너지 부문은 ‘일대일로’의 핵심 영역으로,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¹²⁹⁾ [표 4-2]와 같이 에너지는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분야 중에서 2008~22년 누적 투자액이 약 1,46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역대 지도부 집권 시기별로도 투자 1위 분야로 꼽힌다. [그림 4-17]과 같이 지역별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투자 규모와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중동 9개국은 후진타오 정부 2기의 직접투자액이 17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의 대아시아 에너지 분야 투자의 37%를 차지했으나 시진핑 정부 1기에 57억 달러(9%)로 감소하였다. 반면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액은 후진타오 정부 2기의 126억 달러에서 시진핑 정부 1기에는 241억 달러로 91% 증가했다.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대아시아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가장 높고 아세안은 27%를 차지하여 기타 15개국의 33% 보다 그 비중

129) 杨永明(2023. 9. 22), 「“一带一路”能源国际合作报告(2023)」(검색일: 2023. 12. 5).

유화공(SINOPEC)의 석유 관련 투자가 각각 37억 달러, 2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중동 주요 투자 대상국을 중심으로 석유 관련 직접투자가 주를 이뤘다. 시진핑 정부 1기 역시 이라크, UAE, 요르단에 대해 중국 국유기업의 석유, 석탄 관련 직접투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표 4-8.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합계
이라크	9,280	1,250	3,060	13,590
사우디아라비아	3,710	0	7,620	11,330
UAE	0	3,480	2,510	5,990
시리아	3,470	0	0	3,470
요르단	0	950	160	1,110
오만	0	0	970	970
쿠웨이트	0	0	650	650
예멘	470	0	0	470
카타르	100	0	0	10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는 주요 투자 대상국이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로 나타나며, 투자 주체 측면에서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United Energy(联合能源), Jinko Solar(晶科能源)와 같은 민영기업의 대중동 투자 진출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투자 분야도 후진타오 정부 2기와 시진핑 정부 1기의 화석 연료 위주에서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가스 and 대체에너지로 확대되었다. 일례로 2019년 6월 중국 실크로드 기금은 ACWA Power와 계약을 체결하여 ACWA Power의 재생에너지 플랫폼인 ACWA Power Renew Co의 49% 지분을 확보했다.¹³¹⁾ 그 밖에 중국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태양

131) China Invests Overseas(2019. 6. 24), “Silk Road Fund Becomes a 49% Shareholder in ACWA Power Renewable Energy Holding Ltd”(검색일: 2023. 12. 6).

광, 풍력, 원자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¹³²⁾

표 4-9. 중국의 중동 주요국에 대한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에너지원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라크	가스	-	-	-	-	-	-	-	-	-	-	-	2,050	-	-	-
	석유	-	8,580	-	-	700	1,250	-	-	-	-	220	-	180	-	610
사우디	대체에너지	-	-	-	-	-	-	-	-	-	-	-	960	-	-	790
	가스	-	-	-	-	-	-	-	-	-	-	-	-	-	-	4,650
	석유	-	-	-	3,710	-	-	-	-	-	-	-	-	-	1,220	-
UAE	대체에너지	-	-	-	-	-	-	-	-	-	-	1,030	-	180	-	-
	석탄	-	-	-	-	-	-	-	-	820	-	-	-	-	-	-
	석유	-	-	-	-	-	-	-	-	-	2,660	1,180	-	-	-	-

주: 에너지원 구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6년 발표한 ‘Vision 2030’을 기반으로 경제구조 다각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면서 특히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전략산업 육성이 중국의 대중동 직접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¹³³⁾¹³⁴⁾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0월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中国能建)은 사우디의 ACWA Power와 2.6GW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일대일로’와 ‘Vision 2030’,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를 연계한 핵심 성과로 알려져 있다.¹³⁵⁾ 또한 2023년 8월

132)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외(2022), p. 83.
 133)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국 전력 생산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나머지 50%는 천연가스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 암모니아 운송 등에서 다양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유광호 외 2023, p. 5).
 134) 유광호 외(2023), pp. 4~5.

SUNGROW(阳光电源)는 글로벌 EPC 업체인 인도의 Larsen & Toubro(L&T)와 네움시티의 2.2GWac 단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인버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¹³⁶⁾

다음으로 아세안에서 중국의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는 2008~22년 누적 투자액 순으로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집중되어 왔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2008년 3월 Huaneng Power(中国华能)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으로부터 Tuas Power(싱가포르 전력의 약 25% 생산)를 30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가 있다.¹³⁷⁾ 이는 당시 중국 전력회사의 최대 해외 인수 거래로 중국 업체의 해외 자산 다각화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⁸⁾ 이는 후진타오 정부 2기에 정책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던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다.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가장 많았다. 일례로 2015년 11월 중국광핵그룹(中国广核)이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의 모든 에너지 부문의 자산을 23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1MDB의 부채 부담 완화가 매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¹³⁹⁾ AEI DB에 따르면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는 시진핑 정부 1기 기간 동안 총 7건의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6건이 석탄 관련 투자였고 1건이 가스 관련 투자였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기준 총 발전 설비용량 중 화력발전 비중이 88%에 달하며 그중에서 석탄전원의 비중이 47.3%로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¹⁴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에 한계가 있고

135) 위의 자료, p. 12.

136) 위의 자료, p. 13.

137) “China’s Huaneng buys Singapore’s Tuas Power for \$3 bln”(2008. 3.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6).

138) *Ibid.*

139) “Update: Malaysia’s 1MDB agrees sale of power assets to China firm for US\$2.3B”(2015. 1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6).

140) 김유리(2016), p. 19.

동·서부 지역 간 전력화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¹⁴¹⁾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화율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왔으며 2015~19년에는 35,000MW의 설비용량 신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¹⁴²⁾ 한편 중국정부는 석탄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대일로’와 연계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구조조정 방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¹⁴³⁾ Angela Tritto(2021)에 따르면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이 ‘일대일로’ 출범 이후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¹⁴⁴⁾

또한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집계되지 않으나 시진핑 정부 1기에 들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분야 투자가 확대되었다. 시진핑 정부 2기에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석탄과 석유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했고 대체에너지 분야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4-10. 중국의 대아세안 에너지 분야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합계
인도네시아	1,830	5,530	1,650	9,010
라오스	1,030	2,500	3,290	6,820
말레이시아	0	6,080	600	6,680
싱가포르	5,220	370	300	5,890
베트남	360	3,170	1,220	4,750
캄보디아	1,560	410	2,250	4,220
브루나이	0	3,440	0	3,440

141) 위의 자료, pp. 21~22.
 142)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정한 FTP(Fast Track Program) 3단계(2015~19년)는 35,000MW의 설비용량 신설을 목표로 하며, 이는 석탄화력 20GW(56%), 가스화력 13GW(36%), 수력 및 지열 2GW(6%) 등으로 구성된다(위의 자료, p. 23).
 143) KIEP 북경사무소(2016), p. 8.
 144) Angela Tritto(2021),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perceptions to realities in Indonesia’s coal power sector”(검색일: 2023. 12. 6).

표 4-10. 계속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합계
미얀마	1,020	2,100	170	3,290
필리핀	1,580	0	400	1,980
태국	0	460	0	46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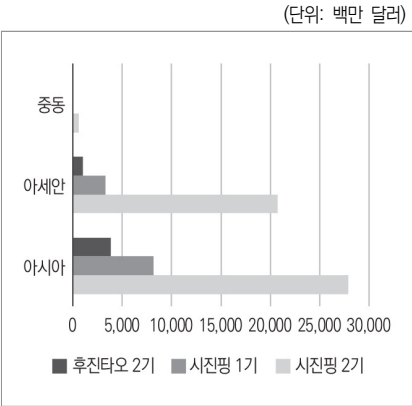
나. 교통·운송 분야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에서 교통·운송은 2008~22년 누적 투자액 기준 400억 달러로 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규모가 많은 분야이다(표 4-2). 같은 기간 에너지 분야에 대한 누적 투자액인 1,460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나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 투자액이 대폭 증가한 분야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아시아 교통·운송 분야 직접투자는 후진타오 정부 2기의 39억 달러에서 시진핑 정부 1기에 82억 달러로 111% 증가했고,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 279억 달러를 기록하여 시진핑 정부 1기 대비 24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그림 4-18]과 같이 아세안과 중동지역 투자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표 4-11]을 통해 중국이 아시아 지역 중에서 교통·운송 관련 직접투자를 시행해온 국가를 투자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10개국에 아세안 국가가 다수 포함된다(시진핑 정부 2기 기준). 즉 중국의 대아시아 교통·운송 관련 직접투자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분석된다.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 규모는 후진타오 정부 2기에 11억 달러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운, 철도, 자동차 관련 투자가 이뤄졌다. 일례로 2012년 10월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인 Shandong Linglong Tire(山东玲珑轮胎)는 태국에 자동차 및 소형 트럭 타이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약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는 자

동차 조립 및 부품제조 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¹⁴⁵⁾ 같은 해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SAIC Motor(上海汽车)는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역내의 자동차 제조 허브인 태국에서 MG cars를 생산하기 위해 Charoen Pokphand Group과 조인트 벤처 설립에 합의하고 51%의 지분을 확보했다.¹⁴⁶⁾

그림 4-18.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교통·운송 분야 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1. 중국의 대아시아 교통·운송 분야
직접투자 상위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1	인도네시아*	120	840	8,240
2	라오스*	0	0	5,400
3	캄보디아*	0	0	2,750
4	태국*	270	400	2,080
5	일본	0	1,590	1,730
6	스리랑카	0	0	1,420
7	방글라데시	0	0	1,100
8	미얀마*	0	0	910
9	한국	0	180	800
10	베트남*	200	440	750
11	UAE**	0	0	610

주: *표시는 아세안 **표시는 중동 국가임. 순위는 시진핑 정부 2기 기준임.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진핑 정부 1기에도 투자 대상국은 후진타오 정부 2기와 동일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으로 나타나며 투자 분야는 해운(2건), 철도(1건) 외에 자동차 연관 산업(10건) 관련 투자가 주로 이뤄졌다. 이 시기에는 철도 운송장비 공급업체인 CRRC(中国中车), SAIC Motor(上海汽车), 완성차 및 부품 제조 민간기업인 Zhejiang Geely(浙江吉利) 외에 2017년부터

145) “Shandong Linglong to build plant in Thailand”(2012. 10.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7).

146) “SAIC and Charoen Pokphand Group form Thai joint venture”(2012. 12.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7).

Tencent(腾讯), Didi Chuxing(滴滴出行), JD.com(京东)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투자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동남아시아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차량 호출 스타트업인 Go-Jek에 투자하거나¹⁴⁷⁾¹⁴⁸⁾ 동남아의 대표적인 교통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Grab에 자금 투자를 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¹⁴⁹⁾

2013년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중국-라오스 철도, 중국-태국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¹⁵⁰⁾ [표 4-11]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 2기에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대한 투자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상당 부분이 상술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정부 2기 대아시아 교통·운송 분야 직접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아세안 진출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比亚迪)는 태국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연간 15만 대의 승용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⁵¹⁾ 향후 BYD는 태국 내 판매와 동남아 및 유럽 국가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는 한편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태국정부는 최근 전기차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우대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¹⁵²⁾

147) “China’s Tencent invests in Indonesia’s Go-Jek amid SE Asia push: sources” (2017. 7.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7).

148) “China’s JD.com invests in Indonesia’s Go-Jek amid SE Asia push – sources”(2017. 8.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7).

149) Grab(2017. 7. 24), “Grab Announces Didi Chuxing and SoftBank As Lead Investors for Current Round of Financing”(검색일: 2023. 12. 7).

150) 中国服务贸易指南网(2023. 9. 8), 「中国东盟携手共建高质量“一带一路”」(검색일: 2023. 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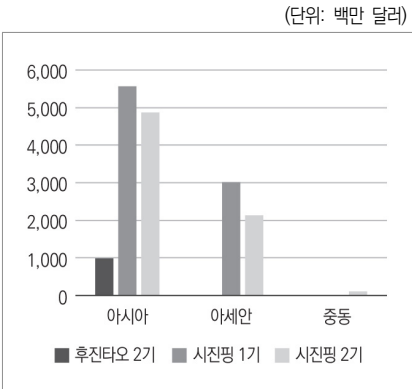
151) “China’s BYD to start EV production in Thailand by 2024”(2022. 9.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7).

152) *Ibid.*

다. 기술 분야

중국의 대아시아 기술 분야 직접투자는 에너지, 교통·운송, 금속·광물과 비교하여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나 시진핑 시기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EI DB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총 14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집계되며 시진핑 정부 2기 투자액 기준 상위 10개국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전기통신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19. 중국의 대아시아 지역별 기술 분야 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2. 중국의 대아시아 기술 분야 직접투자 상위 10개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1	인도	0	270	1,200
2	말레이시아*	0	370	760
3	필리핀*	0	0	760
4	한국	0	470	760
5	러시아	300	100	480
6	싱가포르*	0	1,660	260
7	베트남*	0	110	260
8	일본	180	610	190
9	사우디아라비아**	0	0	110
10	인도네시아*	0	0	100

주: *표시는 아세안, **표시는 중동 국가임. 순위는 시진핑 정부 2기 기준임.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EI DB에 모든 투자 사례가 집계되지 않으나 중국의 대아시아 기술 분야 직접투자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 추진과 아세안, 중동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육성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발 프로젝트 수요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 및 첨단기술과 ‘일대일로’의 융합 추진을 강조해왔고 2017년 이후

디지털 실크로드를 본격적으로 주창해왔다.¹⁵³⁾ ‘일대일로’ 협력국가(지역)와 정보 인프라, 무역, 금융, 산업, 과학, 교육 등 각 분야별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의 핵심이며, 주요 분야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인터넷 금융,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경제의 전반이 포함된다.¹⁵⁴⁾

그중에서도 아세안은 5G 기지국 구축, 인공지능 및 산업 인터넷 발전 측면에서 건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¹⁵⁵⁾ 이에 중국과 아세안은 2020년 ‘중국-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의 해’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¹⁵⁶⁾ 중국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와 5G 장비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5G 네트워크 및 통신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주요국에 투자 진출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¹⁵⁷⁾

중동지역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및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은 아랍국가와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 행동 계획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기술 이전, 5G, 원자력,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다양한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해왔다.¹⁵⁸⁾ 특히 5G 통신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아랍국가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 국가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¹⁵⁹⁾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을 기반으로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탈석유산업 육성을 가속화함에 따라 첨단기술 협력 수요가 대폭 증대

153) 현상백 외(2021), p. 169.

154) 위의 자료, p. 170.

155)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外(2023), p. 35.

156) 위의 자료, pp. 38~39.

157) 이승신 외(2022), p. 167; 정혜영(2022), p. 13.

15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12. 1), 「新时代的中阿合作报告」(검색일: 2023. 12. 3).

159) 위의 자료.

되었다. 이에 최근 들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재생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생태·농업, 디지털 경제 등 다방면에서 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¹⁶⁰⁾ UAE 역시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¹⁶¹⁾ 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디지털 산업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중에서 아시아의 위상에 대해 개괄하고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의 투자 전략 및 현황, 주요 분야별 투자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AEI DB를 바탕으로 분석한 각 지역별 투자 현황 및 주요 투자 사례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모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각 시기별 해외투자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에 있어 아세안은 지난 30여 년 동안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전략적 파트너로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중국은 아세안과 2009년 투자 협정 체결 등과 같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왔으며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는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한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 협력이 더욱 심화되었다. 투자 동기 측면에서 중국은 여러 요인 중에서도 아세안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자원 확보 그리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협력 수요를 우선시해왔다. 시진핑 정부 2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아세안 직접투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60) 유광호 외(2023), p. 13.

161) 강문수 외(2023), p. 11, p. 64.

증가했다는 점이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아세안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그림 4-7).

다음으로 중동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시진핑 시기 이후에는 ‘일대일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시진핑 정부 2기에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국이 추진하는 산업 구조 다각화 전략 및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를 역대 지도부 집권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아세안, 중동에 대한 에너지, 교통·운송, 기술 분야 관련 투자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대중동 에너지 투자는 후진타오 정부 2기와 시진핑 정부 1기의 화석 연료 위주에서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그 분야가 가스와 대체에너지로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중국의 대중동 직접투자 역시 ‘일대일로’와 연계한 친환경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의 경우에도 시진핑 시기에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분야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전략에 녹색 전환, 친환경 발전의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대아시아 교통·운송 분야 관련 직접투자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운, 철도, 자동차 연관 산업에서 추진되어 왔다. 본문에서 설명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동기 및 목적을 종합하면 태국의 자동차(부품) 제조 허브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기지 건설 및 조인트 벤처 설립, 동남아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 활용,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교통 인프라 관련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다. 시진핑 정부 1기(2017년)에 중국 플랫폼 기업이 투자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시진핑 정부 2기(2022년)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아세안 투자 진출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태국

을 전기차의 생산-판매-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술 분야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시진핑 시기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의 대아시아 기술 분야 관련 직접투자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 추진과 아세안, 중동 각국의 디지털 경제 육성, 디지털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아세안 주요국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기술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향후 아세안과 중동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첨단기술 관련 분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 ·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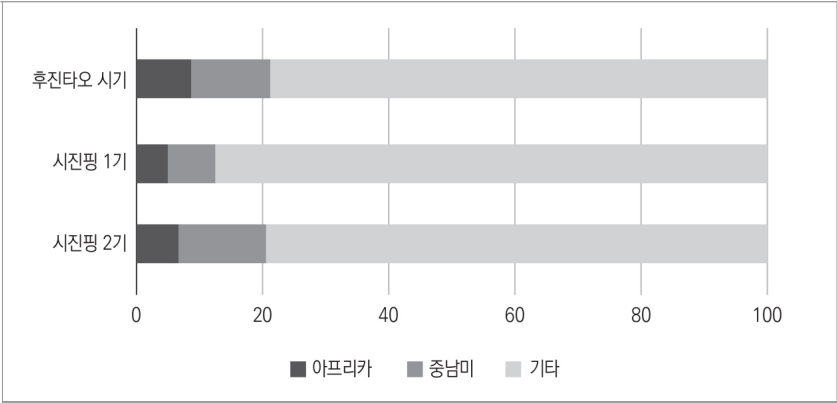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중국정부의 대외진출전략 발표와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증했으며 에너지·발전,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아프리카 및 중남미 투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¹⁶²⁾ 그러나 중국의 FDI 총액 대비 아프리카와 중남미 비중을 살펴보면 양 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진핑 정부 1기 들어서 대아프리카 및 중남미 FDI 비중이 감소했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야 두 지역을 합친 비중이 20%를 소폭 상회한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와 금속·광물 분야로 한정해 본다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2008년 아프리카·중남미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99.4%에 달했으나 2021년에는 아프리카·중남미에 대한 투자 비중이 62.8%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으며, 특히 중남미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높았다. 금속·광물 분야 역시 2008년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77.1% 수준이었으나 대아프리카 투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2021년에는 아프리카 투자 비중이 68.6%에 달할 정도로 중국의 투자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남미 금속·광물 투자 비중 역시 연도별로 차이는 크나 2022년에는 30.1%에 달하기도 하였다. 즉 에너지와 금속·광물 분야로 한정해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시기별 대아프리카 및 중남미 투자 전략과 추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두 지역에 대한 중국의 FDI 특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62) 한재현, 강지연(2013), pp. 4~5.

그림 5-1. 중국의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FDI 비중

(단위: %)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 중국의 에너지 및 금속·광물 분야 지역별 FDI 비중 및 총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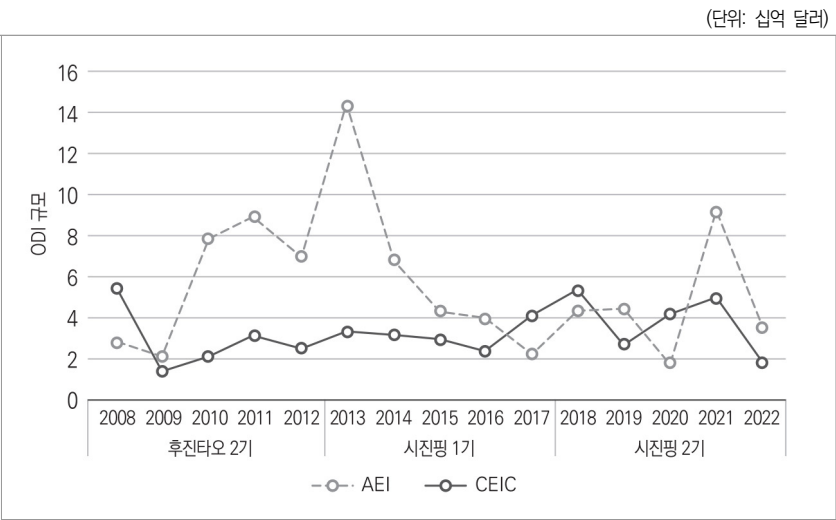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연도	에너지 분야				금속·광물 분야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총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총계
2008	0.0	0.6	99.4	18.6	12.5	10.4	77.1	22.8
2009	2.0	0.0	98.0	35.7	3.6	19.3	77.1	10.3
2010	12.0	45.7	42.3	41.5	19.0	46.6	34.5	8.9
2011	5.4	13.5	81.1	38.0	48.6	17.7	33.6	11.0
2012	6.8	5.2	88.0	40.4	26.8	0.8	72.4	12.8
2013	26.6	19.2	54.2	33.7	18.1	0.0	81.9	6.6
2014	1.7	1.8	96.5	30.1	20.8	62.3	17.0	14.4
2015	3.4	9.7	86.9	32.1	28.5	0.0	71.5	5.3
2016	0.3	41.4	58.3	35.0	58.6	4.6	36.7	4.5
2017	0.8	29.1	70.1	20.8	44.1	35.6	20.2	4.1
2018	13.6	22.4	64.0	23.2	5.5	51.2	43.3	17.3
2019	0.7	29.0	70.3	30.5	15.5	3.8	80.7	15.2
2020	0.0	33.4	66.6	13.2	18.3	5.6	76.2	4.3
2021	16.8	46.1	37.2	13.2	68.6	15.3	16.1	8.6
2022	5.1	23.9	71.1	12.9	50.1	30.1	19.8	6.5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대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ODI 규모는 2008년 28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 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후진타오 정부 2기에 연평균 57억 5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1기 들어 연평균 63억 7천만 달러 수준의 직접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 시기 대비 연간 약 6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투자 규모가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2018~22년 연평균 투자 규모는 46억 7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¹⁶³⁾

그림 5-2. 중국의 대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 CEIC China Premium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3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다른 연도보다 컸던 것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와 중국

163)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본 연구에서는 AEI, 중국 상무부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공보를 기반으로 하는 CEIC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심층적 분석 대상 데이터인 AEI와 달리 CEIC 데이터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가 2017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AEI와 CEIC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상이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투자 추이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석유화공집단공사(이하 시노펙)가 각각 모잠비크와 이집트의 에너지 분야에 약 42억 달러와 31억 달러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CNPC와 시노펙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는 2008~22년 사이 각각 111억 5천만 달러와 9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아프리카 중국기업별 투자 규모로 따졌을 때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기 두 기업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 투자를 많이 한 낙양몰리브덴(China Molybdeum, 광물자원), China Dreal(부동산),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에너지) 등의 아프리카 내 투자 규모가 2008~22년에 걸쳐 각각 63억 달러, 38억 달러, 그리고 24억 3천만 달러 수준인 것을 보면 CNPC와 시노펙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⁴⁾

연도별로 해외직접투자 추이가 상이한 것은 에너지와 금속·광물 분야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양몰리브덴(China Molybdeum, 광물자원)은 DR 콩고 금속·광물 분야에 63억 달러 수준의 직접투자를 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CNPC가 니제르(57억 달러), 모잠비크(42억 달러) 등지에, 그리고 시노펙은 이집트(31억 달러), 나이지리아(25억 달러), 앙골라(25억 달러) 등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다. CNPC는 주로 니제르, 모잠비크, 차드, 수단,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시노펙은 주로 이집트, 나이지리아, 앙골라, 카메룬, 알제리, 상투메프린시페 등지에서 에너지 관련 투자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국알루미늄공사(Chinalco), 산둥 철강(Shandong Iron) 등은 기니(약 24억 달러), 시에라리온(22억 6천만 달러) 등지에 투자하는 등 금속·광물 분야에서 비교적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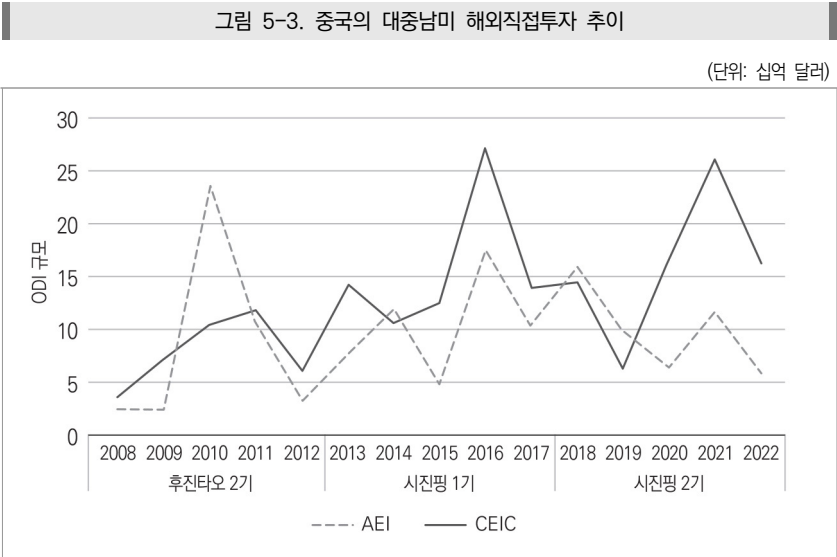
중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시진핑 집권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08~12년에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중남미 직

164)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65)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접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가 도래하면서 2013년부터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후진타오 정부 2기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이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중남미에 투자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중남미 국가를 초청한 시기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대통령을 초대했으며 중남미에 대해 해양 실크로드의 자연적 확장지역으로 언급하였다.¹⁶⁶⁾ 2018년에는 중국-CELAC 정상회담을 통해 33개국이 베이징에 초대되었으며 경제 및 정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8년에 중국과 일대일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20개국에 이를 정도로 중국-중남미 간 경제협력에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중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 CEIC China Premium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6) Wintgens(2022), p. 5.

CEIC 데이터를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AEI 데이터와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과 2021년 양 기관의 수치 격차가 큰 점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가. 아프리카

중국의 대아프리카 전략은 1996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장쩌민 주석의 아프리카 6개국 순방 이후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처음 개최되는 등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이 증가했다.¹⁶⁷⁾ 특히 2006년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China's African Policy) 문서가 발간되면서 중국-아프리카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의 기본 원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정부가 국제 기구 내 중국-아프리카 상호간 지원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발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중국정부의 외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이 중국-아프리카 협력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¹⁶⁸⁾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문건은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무역, 투자, 금융, 농업, 인프라, 자원, 관광, 교육, 과학기술, 의료·보건, 미디어, 정부 행정, 환경, 군사, 평화, 법률·경찰·정보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 탕감, 경제 지원, 남남협력 등에 대해서도

167) 이승호, 강문수(2021), p. 49.

168) Chinese Government Issues African Policy Paper(2006. 1. 14),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Ghana"(검색일: 2023. 9. 8).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범위가 분야별 협력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2000년대 들어 확대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뽑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¹⁶⁹⁾ 소위 앙골라 모델¹⁷⁰⁾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인프라 투자는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2013년 이래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등극했으며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수입 다변화 전략이 요구되었다.¹⁷¹⁾ 이에 따라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은 원유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서방과 아프리카 주요국의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부 재정 부실로 대중국 부채 상황이 어려웠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켰다.¹⁷²⁾

둘째,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 방문 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고 2014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발표되면서 대아프리카 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¹⁷³⁾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따른 대아프리카 투자 규모 확대는 시진핑 정부 1기 이후 더욱 증가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2013년 동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아프리카 내 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기업의 진출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69) Brookings(2021), "FOCAC 2021: China's retrenchment from Africa?"(검색일: 2023. 9. 7).

170) 중국 수출입은행은 2000년대 초반 앙골라 전후 재건복구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앙골라산 원유 수입권을 받았다(Johnston 2023, p. 3).

171) Begu *et al.*(2018), p. 2.

172) Johnston(2023), p. 4.

173) Chatham house(2021. 9. 13), "What i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검색일: 2023. 9. 12).

셋째, 중국정부가 1999년부터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한 것도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늘어난 데 주요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1999년 대외진출 전략(Going out Strategy)을 펼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¹⁷⁴⁾ 2015년 제6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회의에서는 중국-아프리카 산업화 파트너십 협력을 위해 BOT, PPP 등 민간투자자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이 확대되었으며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The 2035 Vision for China-Africa Cooperation)에서도 투자 촉진을 위한 민간 투자 플랫폼 구축이 명시되었다.

중국의 최근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원유 및 원자재 확보 중심에서 중국-아프리카 간 무역 확대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였다.¹⁷⁵⁾ 시진핑 주석은 제8차 FOCAC 회의에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규모를 2020년 기준 727억 달러에서 2025년 이내에 연간 3천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¹⁷⁶⁾ 이러한 중국의 기조 변화는 2009년 중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이 되면서 중국-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관계가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아프리카 내 교통·운송 및 발전 인프라 투자와 차관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중국 수출망이 구축되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¹⁷⁷⁾ 중국은 2018년 개최된 FOCAC 7차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무관세 품목을 97%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프리카지역자유무역지대(AfCFTA) 지원 및 중국-아프리카 FTA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가고 있다.¹⁷⁸⁾

174) Chatham House(2023. 1. 18), "China-Africa relations"(검색일: 2023. 9. 11).

175) Brookings(2021), "FOCAC 2021: China's retrenchment from Africa?"(검색일: 2023. 9. 7).

176) *Ibid.*

177) 이승호, 강문수(2021), p. 53 재인용.

178) 위의 자료, p. 52 재인용.

둘째,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다. 중국은 제8차 FOCAC 회의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를 채택했는데, 그중에서 9개의 분야에 관한 3개년 협력 계획을 살펴보면 투자 및 무역 촉진과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농업, 디지털, 녹색 발전,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 이래 매 3년마다 개최된 FOCAC 회의에서 농업, 보건의료, 부채 탕감, 인력 개발 등이 지속해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포괄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¹⁷⁹⁾

이러한 맥락하에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¹⁸⁰⁾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국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원자재 수입 측면에서 이뤄졌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른 인프라 투자 전략은 대아프리카 협력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¹⁸¹⁾

표 5-2.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내용
의료 협력	• 아프리카에 백신 공급(60% 기부, 40% 아프리카와 협력 생산) • 10개의 보건의료 프로젝트 시행, 1,500명의 의료·공공보건 전문가 파견
빈곤 극복 및 농업 개발	• 10개의 빈곤 극복 및 농업 개발 프로그램 시행, 500명의 전문가 파견 • 중국-아프리카 기술 전수·시험·훈련 센터 설립 •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농촌 지역 시험장 건립 도모 • 아프리카 내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원

179) 위의 자료, p. 50.
 180)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Ghana(2006. 1. 14), “Chinese Government Issues African Policy Paper”(검색일: 2023. 9. 8).
 181) Begu *et al.*(2018), p. 2; Chatham house(2021. 9. 13), “What i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검색일: 2023. 9. 12).

표 5-2. 계속

프로그램	주요 내용
무역 촉진	- 저소득국 무관세 지원 및 검역 절차 간소화를 통해 2024년까지 중국의 아프리카 상품 수입 규모 3,000억 달러 달성 - 무역 금융을 위해 100억 달러 제공 - 중국 내 단지 조성을 통한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경험 공고화와 일대일로를 위한 중국-아프리카 산업단지 조성 - AfCFTA 발전을 위해 전문가 집단 형성, 10개의 프로젝트 시행
투자 촉진	- 중국-아프리카 민간 투자 촉진 플랫폼 구축, 2024년까지 중국기업의 투자 금액 100억 달러 달성 - 아프리카 내 10개의 산업화 및 고용 촉진 프로젝트 시행, 아프리카 금융기관에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차관 제공, 아프리카 중소기업 발전 지원, 중국-아프리카 국경 간 위안화 거래소 설립 - 아프리카 저소득국의 부채 금리 면제
디지털 협력	10개의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시행, 중국-아프리카 위성 원격탐사 활용 협력, 공동 연구소 · 파트너 연구소 · 과학기술혁신기업 지원 - 전자상거래 실크로드 확대, 아프리카산 상품의 온라인쇼핑 축제 개최 및 관광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활동 촉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100개의 아프리카 상점과 1,000개의 상품 입점
녹색 발전	10개의 그린 · 환경보호 · 기후변화 행동 프로젝트 시행, 녹색장벽 및 저탄소 · 기후변화 대응 센터 지원
역량 강화	10개의 학교 건립, 10,000명의 아프리카 고위 전문직 초청을 통한 아프리카의 미래 (Future of Africa: 중국-아프리카 직업훈련 협력) 실시 - 중국 내 아프리카 학생의 고용 연계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중국 지원의 직업훈련 프로젝트(Luban workshop) 설립 지속 및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내 일자리 80만 개 창출 도모
문화 및 인적 교류	- 외교관계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 내 중국인 관광객 유입 지원 - 아프리카 내 중국 영화제 및 중국 내 아프리카 영화제 개최, 중국-아프리카 청년 및 여성 서비스 포럼 개최
평화, 안보	10개의 평화안보 프로젝트 구상, 아프리카 연합에 군사 지원 지속, 역내 안보 및 항공기 테러리즘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노력 지원, 중국-아프리카 평화유지군 공동 훈련 - 소규모 무기 제어 협력

자료: Johnston(2023), pp. 6-7 재인용.

1) 국별 투자 추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대체로 큰 국가는 DR콩고, 앙골라, 기니 등이다. 후진타오 정부 2기 주요 투자대상국은 니제르(51억 8천만 달러), DR콩고(38억 2천만 달러), 남아공(32억 6천만 달러), 나이지리아(29억 7천만 달러), 앙골라(21억 7천만 달러) 등이며, 이들 국가는 석유와 금속·광물자원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중국과 앙골라 간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앙골라 모델¹⁸²⁾ 구현에 따라 중국과 앙골라 간 협력관계는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원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했으며 DR콩고와 남아공에서는 구리 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다. 한편 후진타오 정부 2기 잠비아에 투자한 규모도 13억 달러에 달하며 이 역시 구리광산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후진타오 정부 2기에 이뤄진 국별 투자는 주로 원유와 구리 등의 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상기 언급된 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시진핑 정부 1기 들어서 중국의 투자가 증가한 국가는 DR콩고(53억 6천만 달러), 모잠비크(46억 1천만 달러), 이집트(35억 2천만 달러), 기니(29억 6천만 달러), 시에라리온(24억 7천만 달러), 나미비아(23억 8천만 달러) 등이 있다. DR콩고는 시진핑 정부 1기 들어서 중국의 아프리카 내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등극했으며 중국기업의 모잠비크 투자 규모도 2008~12년 2억 1천만 달러에서 46억 1천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중국의 모잠비크, 이집트 내 투자 규모가 급증한 것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3년 CNPC가 모잠비크 천연가스 부문에 42억 1천만 달러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같은 해 시노펙은 이집트 에너지 부문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기니에 대한 투자 증가는 중국 부동산 기업인 China Dreal이 2014년 2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이다. 나미비아, 시에라리온에 대

182) 중국이 앙골라 금속·광물자원 인프라에 투자하는 대가로 앙골라 내 원유 및 금속·광물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투자 모델을 지칭한다.

한 투자가 증가한 것은 금속·광물 자원, 특히 철광석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나미비아의 경우 Kingho 에너지 그룹과 산둥철강(Shandong Iron)이 2013년과 2015년에 각기 17억 달러와 7억 7천만 달러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철광석 탄광을 확보하였다.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투자가 두드러지는 국가는 탄자니아와 짐바브웨이다. 2019년 탄자니아에 이뤄진 중국의 투자는 부동산 건설 부문으로 약 11억 4천만 달러 수준에 달하며, 2021년에는 CNOOC가 원유 개발을 위해 7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하였다. 한편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짐바브웨에 투자한 분야는 금속·광물 자원,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와 금속·광물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듯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도 중국기업은 아프리카 내 에너지 및 광물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투자대상국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3.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DR콩고	3,820	5,360	4,960	14,140
기니	1,350	2,960	2,910	7,220
니제르	5,180	0	700	5,880
남아공	3,260	1,350	1,000	5,610
이집트	510	3,520	870	4,900
모잠비크	210	4,610	0	4,820
나이지리아	2,970	0	1,710	4,680
앙골라	2,170	2,240	0	4,410
시에라리온	1,750	2,470	0	4,220
짐바브웨	500	250	3,080	3,830
우간다	100	2,540	200	2,840
잠비아	1,300	500	1,010	2,810
나미비아	0	2,380	350	2,730

표 5-3. 계속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카메룬	1,700	200	680	2,580
가나	1,200	700	470	2,370
탄자니아	0	0	1,930	1,930
에티오피아	140	650	850	1,640
케냐	0	670	790	1,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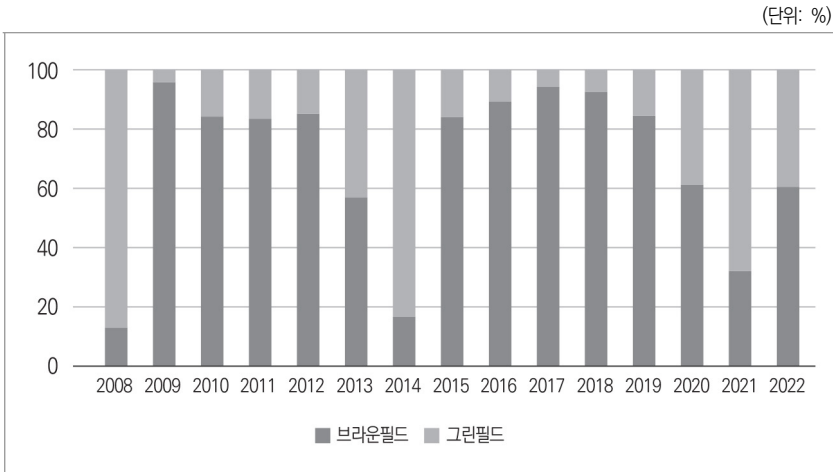
주: 2008~22년 사이 총 투자 규모가 10억 달러 이하인 국가(알제리, 차드,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라위, 모리셔스, 모로코,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수단, 토고 등)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투자유형 및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이어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유형은 대체로 브라운필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2008~10년, 2019~20년 사이에는 그린필드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브라운필드에 비해 큰 연도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시진핑 정부 1기가 들어서고 대체로 브라운필드의 비중이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서는 2018~20년 동안 그린필드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에 대해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국유기업의 투자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래 민영기업의 투자 규모가 더 컸던 시기는 2014년밖에 없으며, 이 외에는 국유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 금속·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림 5-4. 중국의 대아프리카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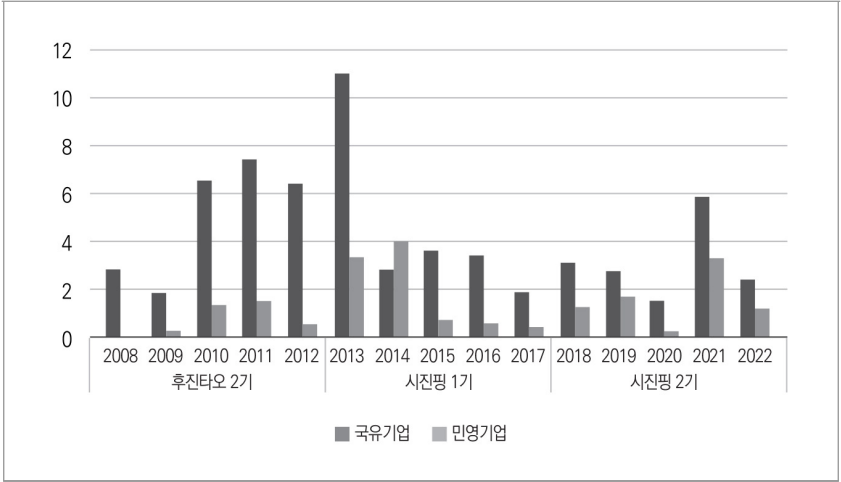
민영기업의 주요 투자 분야는 금속·광물 자원과 부동산이며 특히 후진타오 정부 2기와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분야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았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금속·광물 자원과 부동산 투자 이외에 눈에 띄는 민영기업의 투자가 없으나 시진핑 정부 1기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영기업 투자가 증가했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서 눈에 띄는 부문은 수력발전, 면직 및 제조업 분야 투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8~22년 사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민영기업(Startimes) 투자(약 2억 7천만 달러)가 이뤄졌다는 점도 중국기업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013~14년에 걸쳐 민영기업 투자 규모가 증가한 데는 철강, 부동산 분야 해외직접투자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사이 중국 민영기업의 금속·광물 분야 투자는 철강(17억 달러), 알루미늄(약 5억 달러) 순이며 부동산 투자는 32억 4천만 달러에 달해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금속·광물자원 및 부동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 수준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민영기

업의 투자 규모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민영기업 투자 규모가 컸던 데는 산둥웨이차오창업그룹유한공사(Shandong Weiqiao)가 기니 철광석 채굴권 확보를 위해 SMB-Winning 컨소시엄을 통해 철광석 분야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¹⁸³⁾

그림 5-5. 중국의 대아프리카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함께 투자한 경우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분야별 투자 추이

분야별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에너지와 금속·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가 다른 분야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83) People's Daily Online(2021. 9. 7), "Risks of Guinea coup to Chinese projects manageable" (검색일: 2023. 9. 17); SMB-Winning 컨소시엄은 기니 정부, 싱가포르 해운사인 Winning Shipping, 중국 Hongqiao, 그리고 기니 물류기업인 UMS International Group이 합작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이다. SMB-Winning 컨소시엄은 기니 정부와 보크사이트 산업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 규모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기니에 알루미나(산화알루미늄) 제련·정련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내 신규 광산 개발 및 가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한-아프리카 재단(2018. 11. 27), 「아프리카 투데이」(검색일: 2023. 11. 17); "SMB, Winning sign deal with Guinea for alumina refinery"(2018. 11.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7)].

5-4). 특히 금속·광물 분야 투자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약 137억 달러, 시진핑 정부 1기 약 121억 달러, 그리고 시진핑 정부 2기 약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평균 20억 달러 이상 투자되었다. 금속·광물자원과 에너지 분야 투자에 이어 눈여겨봐야할 분야는 부동산 분야¹⁸⁴⁾이며, 최근 들어 교통·운송 분야 투자 규모 역시 급증하여 2018~22년 사이 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5-4. 중국의 대아프리카 시기별·분야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금속·광물	13,670	12,110	11,420	37,200
에너지	10,490	12,440	4,460	27,390
부동산	2,660	4,760	1,780	9,200
교통·운송	790	640	2,380	3,810
농업	330	420	170	920
물류	340	200	230	770
화학	0	740	0	740
기술	0	0	720	720
금융	250	0	300	550
엔터테인먼트	0	0	270	270
기타	230	540	1,630	2,40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중남미

중국과 중남미 간 협력 관계는 1990년대 경제 개방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1990년 양상쿤 주석이 최초로 중남미 5개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 2001년 장쩌민 주석의 중남미

184) 다만 부동산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가 감소하면서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투자 규모가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문을 계기로 중국-중남미 간 무역이 급증하였다.¹⁸⁵⁾ 2001년은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이기도 하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급속히 증가하였다.¹⁸⁶⁾ 중국의 중남미 진출은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뤄진 것이나, 중남미로서는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한 측면도 있다. 2003~13년은 특히 중남미에 있어 차이나붐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2008년 이래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영미권의 대중남미 투자가 급감했으나 중남미 내 중국의 경제협력이 지속되었다.¹⁸⁷⁾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중남미 모두 남남 협력강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단극화 체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남미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안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중남미 관계가 돈독해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중남미는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균형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¹⁸⁸⁾

둘째, 중남미는 원유, 구리, 철광석 등 자원과 농산물(대두, 육류, 어분 등) 주요 생산지로서 중국의 주요 수입 지역이며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중남미와의 협력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으며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따라 농식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외 시장에서 공급량을 확대해왔다.¹⁸⁹⁾ 원자재와 농산물 공급량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은 중국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동시에 중남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중남미 간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185) 이승호, 강문수(2021), p. 40.

186) Wise and Ching(2018), p. 553.

187) Gallagher(2016), p. 2.

188) Schweller and Pu(2011), p. 52.

189) Wise and Ching(2018), p. 554.

그중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농업 대국으로 중국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이며 중국이 상기 국가들을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지정한 점은 두 개 국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중국 내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견제 차원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펼치게 되었다.¹⁹⁰⁾ 중국정부는 일대일로를 통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 구축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였다. 해양 실크로드는 육상 실크로드 구축과 함께 일대일로는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일국양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대일로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 협력 대상국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도록 한 전략 구상을 위해 중남미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확대한 측면도 있다. 중국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면서 중남미 국가들도 협력에 따른 이익이 더 많은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대만과 단교하는 사례가 늘어났다.¹⁹¹⁾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은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에너지 및 자원, 농업, 제조, 운송·전력·정보통신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중남미 및 카리브해 정책 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경제, 사회, 국제 협력, 평화안보 등에 걸쳐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와의 협력 구상을 발표하였다.¹⁹²⁾ 또한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2014 개최된 제6차 BRICS 정상

190) 이승호, 강문수(2021), p. 34.

191) Jenkins(2010), p. 817.

192)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 11. 24), "Full text of China's 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검색일: 2023. 9. 12).

회의에서 중국-중남미 간 ‘1+3+6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다.¹⁹³⁾ ‘1+3+6 협력 프레임워크’에서 1은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간 협력 계획(2015~19년)을, 3은 무역, 투자, 금융 협력 등 협력 방식을, 6은 에너지 및 자원, 인프라 건설, 농업, 제조, 과학기술혁신, 정보 기술 등 우선 협력 분야를 의미한다. 2015년 중국-브라질 비즈니스 서밋에서 리커창 총리는 3×3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앞쪽 3은 운송(logistics pathway, 주로 철도), 전력(power pathway, 송배전 및 지능형 그리드), 정보(information pathway,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분야를, 뒤쪽 3은 협력 형태로서 기업, 사회, 정부 간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이렇듯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한 측면이 있으며, 2012년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2014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대중남미 협력 역시 확대되었다. 중국의 2020년 대중남미 교역 규모는 2001년 대비 21.5배 증가한 3,1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차관 규모 역시 1,410억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전체 대비 5.74%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중국의 미국 및 유럽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에는 미미한 수준이다.¹⁹⁴⁾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대중남미 협력 수요와 연관되어 있으며 원유 및 광물 자원 확보, 그리고 곡물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다음으로 중국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는 브라질이며,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가

193) Guo(2023), p. 114.

194) fDI Intelligence(2023. 3. 10), “China’s growing footprint in Latin America”(검색일: 2023. 9. 12).

뒤를 잇는다. 특이점은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대아르헨티나 투자가 감소한 반면 대페루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며,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대칠레 투자 규모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페루와 칠레가 핵심광물인 리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브라질 투자는 광물, 농업 등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기를 통틀어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한다.

표 5-5. 중국의 대중남미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브라질	24,860	29,800	11,430	66,090
페루	3,250	10,560	10,320	24,130
칠레	2,100	350	13,760	16,210
아르헨티나	6,960	1,670	3,040	11,670
콜롬비아	980	0	5,010	5,990
에콰도르	1,260	2,570	920	4,750
베네수엘라	1,100	2,860	610	4,570
멕시코	210	2,200	2,060	4,470
가이아나	100	0	2,680	2,780
자메이카	140	1,030	0	1,170
트리니다드 토바고	1,170	0	0	1,170

주: 2008~22년 사이 총투자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만 포함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투자유형 및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다음으로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브라운필드 규모가 큰 시기가 많으며, 그린필드 규모가 더 컸던 시기는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대체로 현지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례

가 많았으며 특히 대중남미 투자는 중남미 내 금속·광물자원 및 에너지 기업 인수합병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브라운필드 규모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린필드는 초기 투자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브라운필드에 비해 더 많은 투자 회수 기간이 필요하며 정치·경제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⁹⁵⁾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국가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 스페인은 중남미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린필드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으며 2005~19년 사이 중남미 내 그린필드 투자 중 미국과 스페인 비중은 각각 22.6%와 11.9%를 차지해 중국(5.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 기간 중남미 국가 내 브라운필드 투자 중 중국의 비중은 10.5%를 기록해 미국(18.1%), 라틴아메리카공동체(15.1%)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이었다.¹⁹⁶⁾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5~19년 사이 중남미 내 브라운필드 투자 총액의 16.3%가 중국으로부터 이뤄져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신규 투자보다는 중국의 대중남미 기업 인수합병이 더욱 공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5~09년만 하더라도 중남미 기업 인수합병 규모 면에서 10위권을 기록하였으나 2010~14년에 4위로 올라섰고 2015~19년에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중남미 기업을 합병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시기별로 전 시기 대비 인수합병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시진핑 정부 1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⁷⁾ 중국의 M&A 선호 경향은 유형별 비중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중국기업은 대체로 브라운필드 투자 비중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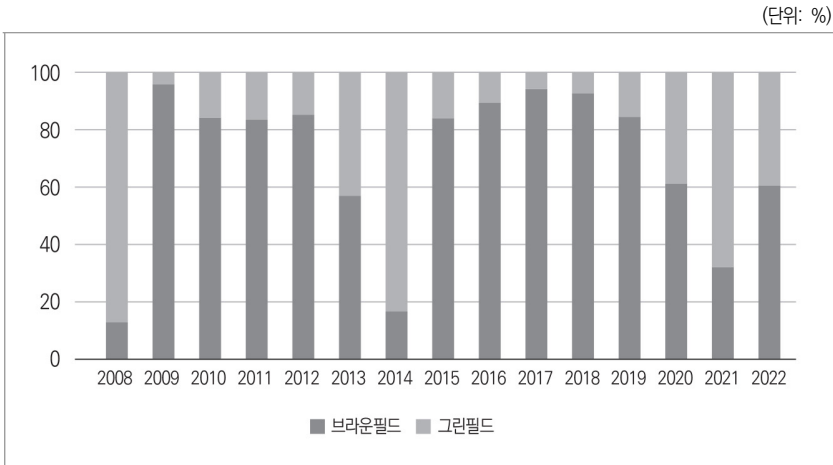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국 국유 및 민영기업의 투자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단행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대중남미 투자가 이뤄졌으며 민영

195)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2021. 7. 12), 「Joining the Game: China's Role in Latin America's Investment Diversific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9. 14).

196) *Ibid.*

197) Ching(2021), p. 15.

그림 5-6. 중국의 대중남미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업의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진핑 정부 1기 들어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규모 역시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민영기업의 해외 투자는 2018년 85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국유기업의 투자 수준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여전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규모가 가장 큰 5대 기업은 국가전망공사, 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장강삼협(Three Gorges Group),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신그룹유한회사(CITIC) 등인데 이들 기업은 모두 국유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CITIC을 제외한 4개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규모는 2008~22년에 걸쳐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광물 자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⁹⁸⁾ 중국 국유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추이가 민영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은 에너지, 금속·광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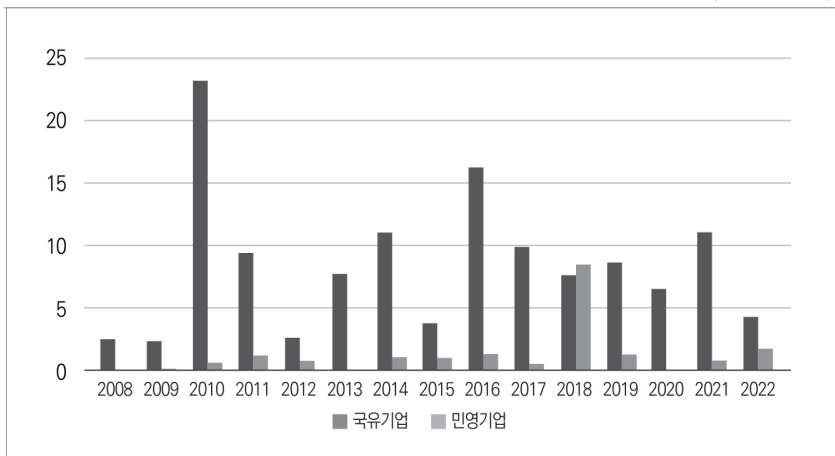
198)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할 수 있다.

민영기업 중에서 대중남미 투자가 가장 활발한 기업은 텐치리튬(Tianqi Lithium)으로 중남미 내 리튬 광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상당(2008~22년 누계 42억 8천만 달러)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민영기업은 강봉리튬(Jiangxi Ganfeng)인데 강봉리튬 역시 리튬, 니켈 등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중남미 내 투자를 지속(2008~22년 누계 15억 3천만 달러)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⁹⁾ 이 외에는 레전드(농업), 체리자동차(교통·운송), Yida(관광), 디디추싱(교통·운송), 골드윈드(Xinjiang Goldwind, 에너지) 등의 기업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골드윈드가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투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외의 분야에서 민영기업이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7. 중국의 대중남미 기업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99)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 분야별 투자 추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주요 분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광물 등 두 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중남미 직접 투자 규모는 시진핑 정부 2기만 하더라도 약 275억 달러에 달해 그 다음으로 투자 규모가 큰 금속·광물 자원(약 122억 달러)과 비교해서도 매우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 광물 자원에 이어 눈여겨 볼 만한 분야는 교통·운송 분야와 농업 분야이다. 교통·운송 분야의 경우 시진핑 정부 1기 들어서 대중남미 투자 규모가 약 32억 달러에 달하면서 후진타오 정부 2기 대비 급증했으며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는 약 7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율이 높은 분야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시진핑 정부 1기인 2013~17년 사이 대중남미 직접 투자 규모가 약 2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투자 규모가 컸으며 투자 순위로 따지면 에너지, 광물, 교통·운송에 이어 네 번째로 투자가 많이 된 분야이다.

특기할 점은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의료·보건 분야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중남미 의료·보건 분야 해외직접투자는 2018~22년 사이 8억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중국의 코로나 외교가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보건 부문 투자는 2021~22년 사이 칠레에서만 이뤄졌으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백 생산공장 설립 등이 주요 투자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²⁰⁰⁾

200) "Chinese investment in Chile sparks opportunities, concerns"(2021.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5).

표 5-6. 중국의 대중남미 시기별 · 분야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에너지	27,490	30,640	27,490	85,620
금속 · 광물	10,560	10,960	12,190	33,710
교통 · 운송	870	3,170	6,980	11,020
농업	710	2,710	830	4,520
금융	1,280	890	670	2,840
화학	110	1,540	0	1,650
기술	750	300	100	1,150
관광	100	990	0	1,090
부동산	200	840	0	1,040
의료 · 보건	0	0	860	950
물류	460	0	230	860
유틸리티	0	0	190	690
기타	0	300	650	19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분야별 투자 특징

가.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는 중국이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투자를 활발히 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중국의 에너지 분야 해외 투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Tan, Chang, and Guo(2021)은 중국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수요 충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대외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 기반 구축을 지적하고 있다.²⁰¹⁾ 중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는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201) Tan, Chang, and Guo(2021), p. 2.

두드러진다. 투자 규모 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프리카보다는 중남미 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중국의 투자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Tan, Chang, and Guo(2021)의 분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투자대상국의 GDP 수준, 투자대상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이민자 수 등이 중국의 대외 에너지 투자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국의 부존자원 규모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²⁰²⁾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중남미 에너지 분야 FDI 결정 요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브라질, 페루 등에 대한 투자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큰 점은 에너지원 확보라는 목적과 함께 양 국가의 GDP 수준이 비교적 높고 중국 내 이민자 수가 많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⁰³⁾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지는 국가는 시기별로 상이하나 투자 규모 순으로는 니제르, 모잠비크 등이 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08~12년 사이에는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등 서아프리카권 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며 앙골라, 차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1기에 들어와서는 모잠비크, 이집트, 우간다 등 동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또한 후진타오 정부 2기에 비해 투자 대상국이 다변화된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 1기까지는 유가 스전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와 기업 인수가 에너지 분야 내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아프리카 전력발전 투자와 협력 분야 역시 석유, 수력,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았다.²⁰⁴⁾

202) *Ibid.*, pp. 9-18.

203) Tan, Chang, and Guo(2021)에 따르면 중국 내 이민자 유입 10대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페루가 각각 2위와 9위를 차지하였다.

204) Heydt(2022), "Towards a Solutions-Oriented Approach: China, Africa and Energy Transition Narrative Building"(검색일: 2023. 11. 20); 그러나 중국-아프리카 국가 간 전력 발전 협력은 투자 보다는 차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AEI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 나타난 특징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급감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 원유 및 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협력 전략이 기존의 전통 에너지 자원 협력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²⁰⁵⁾ 그간 중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가 주로 유가스전 개발 등과 같이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이뤄진 점은 있으나 최근 들어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수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중국은 앙골라, 에티오피아, 남아공, 잠비아 등에 수력발전소를 건립했으며 풍력 발전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로코, 남아공, 튀니지 등에, 태양광 발전은 남아공,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 케냐 등지에서 건설이 이뤄졌다. 또한 2010~20년 사이 중국의 발전 프로젝트 투자 중 56%가 신재생에너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⁰⁶⁾ 특히 2011년 이래 아프리카 내 중국산 태양광 부품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은 중국이 2010년 이후 대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를 확대해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⁷⁾ Heydt(2022)는²⁰⁸⁾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전력 발전 투자가 특히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으며 이는 중국의 그린 일대일로로의 전환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⁰⁹⁾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특징 중 하나는 특정 국가에 대한

205) "China's clean energy investments growing rapidly in Africa"(2022. 8.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7).

206) Lema *et al.*(2021), p. 5. 다만 보스턴 대학교의 중국 글로벌 전력 데이터베이스(China's Global Power Database)에 따르면 중국이 2008~22년 사이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33건의 전력 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 개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 수집 주체에 따라 통계 수치가 다소 상이하다. 또한 2018~22년 사이 이뤄진 10건의 발전 프로젝트 투자 중에서 9건은 수력과 태양광 발전이었으며 1건은 가스 발전인 것으로 파악된다[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2022), 데이터 검색일: 2023. 11. 28].

207) *Ibid.*, p. 7.

208) Heydt(2022), "Towards a Solutions-Oriented Approach: China, Africa, and Energy Transition Narrative Building"(검색일: 2023. 11. 20).

209) *Ibid.*

투자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여러 국가에 걸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니제르와 모잠비크 사례를 보면 2008~22년 투자 총계가 각각 5억 6,900만 달러와 4억 2,100만 달러 수준이며 중남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도는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5-7.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에너지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니제르	4,990	-	700	5,690
모잠비크	-	4,210	-	4,210
이집트	-	3,100	350	3,450
나이지리아	2,630	-	-	2,630
앙골라	980	1,520	-	2,500
우간다	-	1,440	200	1,640
짐바브웨	-	250	980	1,230
차드	840	10	-	850
탄자니아	-	-	790	790
가나	-	700	-	700
남아공	100	490	-	590
카메룬	540	-	-	540
기니	-	-	440	440
알제리	-	-	430	430
에티오피아	-	-	360	360
수단	260	-	-	260
DR콩고	-	-	210	210

주: 2008~22년 누적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억 달러 이상인 국가만 포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남미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국가는 브라질이다. 중국의 대브라질 에너지 분야 투자는 후진타오 정부 2기에만 해도 177억 달러에 달하며 시진핑 정부 1기에는 2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남미 내 다른 국가

에 투자한 에너지 분야 총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²¹⁰⁾ 에너지 분야 투자의 상당 부분은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인 것으로 보인다. Cariello(2022)에 따르면 2007~22년 사이 중국 투자 총계의 45.5%가 전력 산업 관련 분야였으며 원유 시추(30.4%), 광물 추출(6.2%), 제조업(6.2%), 인프라(4.4%), 농업(3.4%) 등이 뒤를 이었다.²¹¹⁾ 전력 분야는 특히 중국 국가전망공사(State Grid)와 중국중면(CTG) 등 2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의 전력 분야 해외투자 중에서 브라질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국가전망공사와 중국중면은 발전 및 배전 분야에서, CEE Power와 Zhejiang Insignia United Engineering 등이 송전 분야에서 중국 내 최대 투자 기업이며 2015~17년 사이 중국의 대 브라질 전력 분야 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국가전망공사는 상파울루 지역 내 CPFL와 CPFL Renovaveis를 인수했으며 중국중면은 Jupia와 Ilha Solteira 등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중국 기업의 브라질 내 전력 관련 기업 인수가 상파울루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²¹²⁾

최근 들어서는 CNOOC와 CNODC가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스와의 제휴를 통해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Búzios 유전의 잉여 물량 135억 달러 어치를 확보했으며, 메로(Mero) 유전 지분을 확보하는 등 브라질 내 중국의 유가스전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다.²¹³⁾ 중국과 브라질 간 에너지 협력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¹⁴⁾

210)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 규모가 다른 국가보다 큰 이유 중 하나는 브라질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유화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골자로 한 투자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에 있어 자산 보유의 안정성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다(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22b, p. 37).

211) Cariello(2022), p. 12.

212) Barbosa(2020), pp. 4-11.

213) bnamericas(2023. 2. 6), "Why Brazil-China energy relations may improve under Lula" (검색일: 2023. 9. 16).

214) CL brief(2023. 2. 9), "Relations between Brazil and China in the energy sector expand"

중국은 시진핑 정부 1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 페루, 칠레 등의 국가 내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 Enel은 자회사인 Enel 페루 지분 29억 달러를 중국남방전력망 인터내셔널(SPGI: Southern Power Grid International)에 매각했으며, 국가전망공사는 칠레 내 호주가 보유하던 퍼시픽 수력발전 시설과 CGE의 배전망을, SPGI가 송전 회사인 Transelec을 인수하는 등 칠레와 페루 내 전력 공급망 내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²¹⁵⁾

특기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 건수는 1,600여 건에 이른다.²¹⁶⁾ 그중에서도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수준으로 유럽(46%)에 이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지역이다.²¹⁷⁾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로만 한정하면 시진핑 정부 1기였던 2013~17년 사이 이뤄진 전력 발전 부문 대중남미 투자 건수는 총 264건이며 이 중에서 수력(178건)과 풍력(54건) 발전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태양광 발전 시설 투자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22년 사이 이뤄진 중국의 전력 발전 투자 92건 중에서 풍력 38건, 수력 28건, 태양광 18건, 가스 8건 순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부문 투자 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²¹⁸⁾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브라질 전임 볼소나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2019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에 서약했으며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협력이 기대된다.²¹⁹⁾ 중국은 자국 기업

(검색일: 2023. 9. 16).

215) bnamericas(2023. 1. 20), "Snapshot: China's involvement in the Chilean power sector" (검색일: 2023. 9. 16); Power Technology(2023. 4. 10), "Ellel reaches \$2.9bn deal for Peruvian assets sale to China's CSGI"(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9. 16).

216) 2023년 기준 중국 에너지 관련 해외직접투자액의 41.7%는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이뤄지고 있으며 2013년 5.93%에 비해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China's Belt and Road gets 'green' reboot and spending boost"(2023. 10.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8)].

217) UNCTAD(2023), p. 35.

218)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2022), DB(검색일: 2023. 11. 28).

219) CL brief(2023. 2. 9), "Relations between Brazil and China in the energy sector expand"

의 글로벌 태양광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브라질에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은 탈탄소화 전략을 성취함과 동시에 전력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어 상호간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²²⁰⁾

이렇듯 중국의 브라질 내 전력 산업 투자가 종전에는 유가스전 확보 및 전통 에너지 기업의 진출을 위한 포석이었다면 향후 에너지 분야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진출이 더욱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발전 분야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표 5-8.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에너지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브라질	17,740	22,100	9,860	49,700
페루	-	3,110	5,540	8,650
칠레	190	140	7,100	7,430
아르헨티나	5,900	410	610	6,920
베네수엘라	900	2,860	610	4,370
멕시코	-	1,490	1,100	2,590
가이아나	-	-	2,440	2,440
콜롬비아	980	-	230	1,210
트리니다드 토바고	1,170	-	-	1,170
에콰도르	610	530	-	1,14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3. 9. 16).
220) Fortune(2023. 7. 8), “‘Global China’ is a big part of Latin America’s renewable energy boom, but homegrown industries and ‘frugal innovation’ are key”(검색일: 2023. 9. 16).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중국의 투자 사례가 많은 브라질의 특징적인 점은 2013년 시진핑 정부 1기 들어 발전소 건립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점이며 수력,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반면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 기반 전력 발전소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2022)의 자료에 의하면 2008~22년 사이 이뤄진 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08~12년 사이 이뤄진 발전소 투자는 발레 도스 벤토스 풍력발전소(Vale Dos Ventos Wind Farm)가 유일했으나 시진핑 정부 1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 투자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브라질 내 중국의 발전소 투자 점유율이 높아졌다.

표 5-9. 중국의 시기별 대브라질 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

(단위: MW)

발전 에너지원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수력	-	12,414	2,337
천연가스	-	-	2,660
풍력	48	1,377	626
바이오매스	-	608	-
태양광	-	293	158
석유	-	175	-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삼협그룹(약 9GW), 중국전망공사(6.2GW), 중국중면(4.4GW), CGNPG (1GW) 등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대브라질 투자의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삼협그룹은 중국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이며, 전력 판매를 위한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²²¹⁾ 중국삼협그룹 브라질 지사는 브라질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전력 생산기업이며 중국-브라질 간 친환경 에너지 협력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²²²⁾ 중국삼협그룹의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 브라질 에너지 시장은 규모와 수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브라질 내 듀크 에너지 기업 소유였던 전력발전 자산(약 12억 달러 규모)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중국삼협그룹 브라질 지사는 2022년 IPO 공고를 통해 2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브라질 내 중국삼협그룹의 자산 규모가 8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²²³⁾

브라질 내 중국삼협그룹을 포함한 국유기업의 진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데는 브라질 정부가 전력 발전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²²⁴⁾ 특히 브라질 내 수력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점은 중국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수력 발전소에 집중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삼협그룹은 브라질 시장 개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최근 에너지 믹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탈탄소화라는 세계적인 기조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브라질 정부가 해상 부유식 풍력, 그린 수소 생산²²⁵⁾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중국정부 역시 녹색 일대일로(Green BR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화두에 맞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어 중국삼협그룹의 브라질 내 행보는 중국의 에너지 협력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21) "China Three Gorges Renewable Group: Hidden Value Stock for the Offshore Wind Power Era"(2022.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9).

222) "Local Integration"(2023. 8.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9).

223) "China Three Gorges could raise US\$2 billion with Brazil IPO"(2022. 3.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9).

224) bnamericas(2021. 7. 5), "China Three Gorges Brasil's clean energy plans"(검색일: 2023. 11. 29).

225) 그린 수소 생산은 브라질 정부뿐만 아니라 칠레, 페루 등에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며, 특히 최근 들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발전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민간협력, 민간기업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Global China' is a big part of Latin America's renewable energy boom, but homegrown industries and 'frugal innovation' are key"(2023. 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30)].

중국정부는 2021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해외 석탄 개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일대일로를 통한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은 수력,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에 대한 신규 투자 규모를 확대해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대외투자 전략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 지역 내 자원 보유량, 전력 수요, 발전 기반 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서도 중국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²²⁶⁾

태양광·풍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중국 부품 기업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기업의 태양광 부품 시장 점유율은 웨이퍼 96.8%, 셀 85%, 폴리실리콘 79.4%, 모듈 74.7%(2021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태양광 전력 발전 투자에 따른 관련 부품 기업의 진출이 이어질 수 있다.²²⁷⁾ 중국기업의 아프리카·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브라질과 같은 아프리카·중남미 주요국 내 중국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과 브라질은 이러한 협력 관계하에 녹색 투자기금(Green Investment Fund) 설립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의 녹색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브라질 협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심해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해상풍력 시설 건설 등 에너지 분야와 해양 경제 분야가 중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양 경제와 관련한 해수담수화 등이 포함된 아프리카·중남미와의 해양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CNOOC, COSCO 등의 기업이 해양 협력을 위해 중남미 국가에 진출하게 되면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심해 에너지

22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2),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p. 51.

227) IEA(2022), p. 18. 다만 중국 내 관련 기업은 유럽, 아세안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 아프리카 및 중남미 시장 내 중국기업 진출 규모는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2),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p. 51].

탐사 활동 및 시추 분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²²⁸⁾

나. 금속·광물자원 분야

에너지 분야와 함께 중국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야는 바로 금속·광물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중남미는 리튬 등과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한 국가가 상당수 있으며 최근 중국이 칠레와 페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점도 양 국가에 대한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이 풍부한 DR콩고에 대한 투자 규모가 시진핑 정부 1기 들어서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내 중국의 금속·광물자원 분야 투자 규모는 시기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시기별로 주요 투자대상국이 조금씩 변화해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DR콩고, 남아공, 시에라리온 등이 투자를 많이 받은 반면 시진핑 정부 1기에 들어서는 DR콩고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하였고 나미비아가 새로운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는 기니와 시에라리온이 주목받았으며 중국 국내 금속·광물 자원 수요에 따라 아프리카 협력대상국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금속·광물 자원 협력은 구리, 철광석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며 후진타오 정부 2기와 시진핑 정부 1기에 걸쳐 인수하거나 신규 투자한 부문도 상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2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2),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p. 67.

표 5-10. 중국의 대아프리카 금속·광물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DR콩고	3,820	5,360	4,520	13,700
기니	1,350	960	2,470	4,780
시에라리온	1,750	2,470	-	4,220
남아공	2,690	230	700	3,620
짐바브웨	500	-	1,980	2,480
나미비아	-	2,110	250	2,360
가나	1,200	-	470	1,670
카메룬	660	-	680	1,340
잠비아	1,300	-	-	1,300
모잠비크	-	400	-	400
콩고	-	150	220	370
라이베리아	110	250	-	360
우간다	100	180	-	280
니제르	190	-	-	190

주: 2008~22년 누적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억 달러 이상인 국가만 포함.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인 AEI 데이터베이스가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에 대해 살펴보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내 금속·광물자원 투자가 주로 구리, 철광석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Vedio(2017)는 중국기업이 아프리카에서 투자하고 있는 금속·광물 자원이 구리와 철광석에 국한되지 않고 보크사이트, 코발트, 망간, 크롬, 우라늄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표 5-11).²²⁹⁾ 즉 중국기업은 일부 자원에 그치지 않고 핵심광물로 구분되는 코발트 등의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 지역 금속·광물 분야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금속·광물 자원 관련 투자가 활발한 국가는 페루와 칠레이며, 이

229) Vedio(2017), p. 2.

표 5-11.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금속·광물 자원 투자 내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종류	매장지	중국 투자 기업
알제리	망간	Guetara	Shaolin Mines
DR콩고	코발트	Kinsevere	China mimmetal Corp.
	구리	Ruashi	Jinchaun Group
가봉	망간	Benbelé	Citik HK
가나	보크사이트	Awaso	Bonsai Mineral
기니	철광석	Simandou	Chinalco
라이베리아	철광석	Bong	China Union
나미비아	우라늄	Langer, Heinrich	China National Nuclear, Corp
시에라리온	철광석	Toukolili	Shandong Iron Steel
남아공	크롬	Dilokone	Simosteel Corp.
	구리	Pelabora	Hebei Iron Steel
	플루오린	Vergenoeg	Jinchuan Group
토고	인광석	Kleme	Weng Fu
잠비아	구리	Chambishi, Chibulima, Baluba, Muliashi	CNMC, Jinchuan Group
짐바브웨	페로크롬	Mutarashanga, Kwekwe	Sinosteel Corp.

자료: Vedie(2017), p. 2.

는 페루와 칠레 내 첨단산업과 관련한 핵심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텐치리튬은 칠레 내 리튬 광산 지분의 23%를 확보했으며, 2022년 강봉리튬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9억 6,200만 달러에 구매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Wischer and Villasmil(2023)²³⁰⁾은 중국이 이전에는 구리 중심으로 중남미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시진핑 정부 2기인 2019~22년 사이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해 리튬 광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²³¹⁾ 한편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측면 역시 최근 들어 중남미 국가 내 중국의 직접

230) New Security Beat(2023. 7. 24), "China's Critical Mineral Model in Latin America"(검색일: 2023. 9. 16).

231) *Ibid.*

투자가 증가하는 데 일조했다. 일례로 칠레는 지열,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칠레 아타카마 사막 리튬 광산 채굴권을 노리고 있어 양국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²³²⁾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은 2022년 초 아르헨티나 트레스 퀘브라다스 리튬 광산을 획득했으며, 지진 광물(Zijin Mining)은 탄산리튬 공장 설립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약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³⁾

중국의 페루 광물 자원 투자는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 이유로는 페루가 2010년대 중반까지 구리, 철, 금 등을 수출하는 주요국이었기 때문이다.²³⁴⁾ 시진핑 정부 1기인 2013년 들어 양국의 파트너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으며 농업, 인프라, 광물, 그리고 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대페루 광물 투자가 지속되었다.²³⁵⁾ 이에 따라 페루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수산물 중심에서 주로 구리, 철, 납, 그리고 어분 등의 광물 및 수산자원으로 다각화되었다.²³⁶⁾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의 광물 자원 총수출 금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에서 2020년 34%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³⁷⁾ 중국의 대중남미 금속·광물 분야 해외직접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남미 내 핵심 광물 확보뿐만 아니라 광물 가공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의 국가가 주요

232) “‘Global China’ is a big part of Latin America’s renewable energy boom, but homegrown industries and ‘frugal innovation’ are key”(2023. 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6).

233) New Security Beat(2023. 7. 24), “China’s Critical Mineral Model in Latin America”(검색일: 2023. 9. 16).

234) Sanborn and Chonn(2015), p. 2.

235) *Ibid.*, pp. 6-7.

236) *Ibid.*, p. 8.

237) New Security Beat(2023. 7. 24), “China’s Critical Mineral Model in Latin America”(검색일: 2023. 9. 16).

협력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5-12.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금속·광물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페루	3,250	7,450	3,660	14,360
칠레	1,910	210	4,070	6,190
브라질	4,440	-	380	4,820
에콰도르	650	2,040	920	3,610
아르헨티나	-	960	2,150	3,110
멕시코	210	-	310	520
수리남	-	-	360	360
가이아나	100	-	240	340
자메이카	-	300	-	300
콜롬비아	-	-	100	10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중국의 협력 확대 사례는 대표적으로 페루와 칠레가 있다. 중국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과 같이 전기차, 풍력 발전 터빈, 그리고 방산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 부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²³⁸⁾ 리튬 매장량의 60%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²³⁹⁾ 중국기업 중에서는 특히 텐치리튬과 강봉리튬이 중남미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텐치리튬과 강봉리튬은 엘버말, SQM 칠레, 필바라리튬솔루션 등과 함께 세계 5대 리튬 채굴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²⁴⁰⁾ 그런데 SQM이 칠레 SQM 지분의 24%를 텐치리튬에 매각하

238) “‘Global China’ is a big part of Latin America’s renewable energy boom, but homegrown industries and ‘frugal innovation’ are key”(2023. 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30).

239) Foreign Policy(2023. 2. 27), “China’s Latin American Gold Rush Is All About Clean Energy”(검색일: 2023. 11. 30).

면서 텐치리튬의 칠레 내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²⁴¹⁾

중국의 활발한 중남미 진출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행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강봉리튬이 아르헨티나 기업인 Lithea사를 매입한 사례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 확보를 위해 지린 광물이 아르헨티나에 탄산리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점, BYD 등이 브라질과 칠레에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점 등은 중국이 중남미 내 전기차 및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²⁴²⁾

미·중 갈등이 팽배해지면서 핵심 광물 확보에 있어서도 중남미 내 미·중 경쟁이 강화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캐나다의 리튬 아메리카사와 강봉리튬이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에 공동투자를 하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²⁴³⁾ 즉 민간기업 간 협업 및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한 리튬 매장국가 공동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구기업들이 중국기업과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기업의 리튬 광산 보유 비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아프리카·중남미 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시진핑 정부 1기 이후 지속되어 오면서 향후에는 중국 이외의 광물 기업과 중국기업 간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 있어 중국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중남미 국가들도 자국 핵심 광물 보호, 국내 생산 및 가공 공급망 구축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중남미 간 광물 자원 협력 관계에도 변화가

240) "Top 5 largest lithium mining companies in the World"(2021. 8.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30).

241) Oaklins, "SQM has sold a 24% stake to Tianqi Lithium"(검색일: 2023. 11. 30).

242) Foreign Policy(2023. 2. 27), "China's Latin American Gold Rush Is All About Clean Energy"(검색일: 2023. 11. 30); "The China-West Lithium Tango in South America"(2023. 10.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30).

243) 중남미 외에 호주에서도 리튬 광산에 대해 텐치 리튬과 미국계 기업인 엘버말이 조인트벤처 형태로 공동진출한 사례, 강봉 리튬과 호주계 기업인 Mineral Resources가 호주 내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사례 등도 있다["The China-West Lithium Tango in South America"(2023. 10.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30)].

감지되고 있다. 칠레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했으며 리튬 개발 지분의 일부를 정부가 소유함으로써 리튬 생산 수익 공유, 환경적 세이프가드 강화, 그리고 지역 사회 내 이익 창출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리하고자 한다.²⁴⁴⁾ 특히 볼리비아가 리튬 광산을 국유화한 상황에서 칠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리튬 채굴 기업에 대한 허가제를 발표하면서 중남미 내 리튬 생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외국계 기업의 단독 투자 및 채굴이 점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²⁴⁵⁾

다. 교통·운송 분야

교통·운송 분야에서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한 국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이며,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와 지부티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부티에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이 이뤄졌고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통과하는 데 있어 군사안보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안보적인 측면에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지부티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국과의 경험 관계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교통·운송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시진핑 시기 들어 인프라 협력이 확대된 데는 일대일로 전략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후진타오 정부 2기와 비교했을 때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지부티,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교통·운송 분야 투자가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다. 중국 교통·운송건설유한공사(CCCC)는 케냐 나이로비-몸바사 간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244) “‘Global China’ is a big part of Latin America’s renewable energy boom, but homegrown industries and ‘frugal innovation’ are key”(2023. 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30).

245) Clearly Gottlieb(2023. 9. 25), “The Lithium Triangl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Latin America”(검색일: 2023. 11. 30).

레키(Lekki) 심해항을 건설하는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교통·운송 분야 투자를 강화해 가고 있다.²⁴⁶⁾ 레키 심해항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항만 운영권을 가지게 된 최초의 투자 사례이며 중국이 항만, 심해항 등에 투자하고 운영권까지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⁴⁷⁾ 또한 중국은 아프리카 내 교통 및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건설 수주를 통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해양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중국-아프리카, 중국-중남미를 잇는 해양 경제협력을 노리고 있다. 즉 중국의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투자는 중국 중심의 해양 협력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²⁴⁸⁾

나이지리아에서는 라고스-카노 철도, 아부자 경전철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²⁴⁹⁾ 특히 나이지리아, 케냐, 모로코 등이 아프리카 내 각 권역의 주요국임을 감안하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교통·운송 인프라 협력을 통해 중국-아프리카 간 물리적 네트워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인프라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Lisinge(2020)는 중국의 해외 진출 및 일대일로 촉진 전략과 아프리카의 해외 투자 유입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A: 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을 통한 대륙 내 인프라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도로·철도 교통 시스템과 항만 건설 등이 이뤄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교통망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아프리카 간 교역 역시 증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²⁵⁰⁾

246) 中国交建(2022. 11. 7), "Nigeria's Lekki Deep Sea Port completed"(검색일: 2023. 9. 17); 中国交建(2022. 6. 6), "5-year operation of Kenya's Mombasa-Nairobi Standard Gauge Railway"(검색일: 2023. 9. 17).

247)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2), p. 69.

248) 위의 자료, p. 70.

249) Hamilton and Maliphol(2023), p. 120.

표 5-13.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교통·운송·물류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나이지리아	-	-	860	860
지부티	190	-	510	700
케냐	-	-	620	620
남아공	100	520	-	620
카메룬	500	-	-	500
모로코	-	-	390	390
상투메 프린시페	-	120	-	12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교통·운송 분야 주요 투자대상국을 살펴보면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브라질이었으나 시진핑 시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투자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일대일로 전략 발표와 함께 중국정부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시진핑 정부 1기 이후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하였다.²⁵¹⁾ 특히 중국정부가 중남미 지역에 대해 인프라 협력이 가장 잠재력이 있다고 봤으며 전력, 항만, 도로, 철도, 교량 등에 걸쳐 투자 방식 다각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²⁵²⁾ 시진핑 정부 1기가 들어선 이후 브라질뿐만 아니라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어졌으며, 시진핑 정부 2기인 2018~22년 사이 특히 수혜를 받은 국가는 콜롬비아이다. 콜롬비아에 중국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시진핑 정부 2기에만 46억 8천만 달러로 파악된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의 국가와 달리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돈독했으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으로 인해 중국의 차관을 받지 않은 국가였다. 그러나 중국의

250) Lisinge(2020), p. 335.

251) "New Report Highlights China's Positive Image in Colombia"(2023. 5.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6).

25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5), p. 67.

대중남미 협력이 여러 국가로 확대되면서 콜롬비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2022년 기준 콜롬비아에 이뤄진 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29.2%로 가장 높으며, 중국은 1.56%에 달해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²⁵³⁾ 특히 콜롬비아는 아직까지 중국 일대일로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⁵⁴⁾ 이러한 상황에서 콜롬비아 보고타시는 철도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20년 중국교통·운송건설유한공사(CCCC: China Construction Communications Company)의 자회사인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imited(CHEC)와 APCA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었다. 또한 메델린(Medellín)시와 칼리(Cali)시가 중국 BYD 사로부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대중교통·운송 시스템에 활용하기로 하는 등 중국과 콜롬비아 간 교통·운송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²⁵⁵⁾

최근 BYD가 브라질 북부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업체의 중남미 진출 역시 교통·운송 분야 투자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²⁵⁶⁾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철도 및 도로교통·운송 인프라 투자를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점이 시진핑 정부 1기 중남미 4개국 교통·운송 분야 인프라 투자 확대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⁵⁷⁾ 그러나 시진핑 정부 2기 이후에는 철도 및 도로 교통·운송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기업의 중남미 진출에 따른 제조 공장 건설과 이에 따르는 부품 기업 진출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3) "China's Bet on Colombia, Seeking Its 'Golden Age' in Latin America"(2023. 7.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6).

254) "New Report Highlights China's Positive Image in Colombia"(2023. 5.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6).

255) "Chinese rail, roads, and buses arrive in Colombia"(2020. 1.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6).

256) "China automaker BYD to invest \$620 million in Brazil industrial complex"(2023. 7.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9. 16).

257) Abdeur *et al.*(2021), p. 5.

표 5-14.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교통·운송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콜롬비아	-	-	4,680	4,680
브라질	500	1,720	720	2,940
칠레	-	-	800	800
페루	-	-	780	780
자메이카	-	730	-	730
멕시코	-	410	-	410
파나마	-	310	-	310
베네수엘라	200	-	-	20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농업 분야

농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가 가장 높으며,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대칠레 투자 역시 8억 3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의 옥우, 옥계, 설탕, 펄프, 가죽 최대수입국은 브라질이며, 브라질은 중국에 돈육, 대두유, 면화 등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특히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브라질의 비중은 37.8%(2018년 기준)이며, 중남미 전체 비중이 44.9%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농산물 수입에 있어 브라질은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²⁵⁸⁾ 특히 중국 내 식품 및 사료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 역시 2010년 1,386만 톤에서 2019년 2,749만 톤으로 2배 증가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중국의 대브라질 농업 분야 ODI 규모 확대는 중국의 농식품 공급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태국에 이어 대중국 견과일 및 신선과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며, 2005년 체결된 중국-칠레 FTA를 토대로 임산물과 올리브유, 어패류, 어분 등의 농수산물 주요 수출국이다.²⁵⁹⁾ 이러한 맥락하에서 중국 민간기업의 칠레 농업 분야 진

258) Guo(2023), p. 122.

출 및 투자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외에도 중국은 2013년 중국 어업회사(Chinese Fishery Group)가 페루 수산 기업을 인수하면서 페루산 수산물 쿼터 확보와 함께 세계 최대 어분 생산국으로 등극하기도 하였다.²⁶⁰⁾ 이렇듯 중국의 농산물 공급망 확보에 있어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브라질과 칠레 내 중국의 농업 분야 투자가 늘어간 주요한 이유로 볼 수 있다.

표 5-15. 중국의 시기별 대중남미 농업 분야 해외직접투자 총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진핑 정부 1기	시진핑 정부 2기	총계
브라질	570	2,710	-	3,280
칠레	-	-	830	830

자료: AEI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브라질 내 농업 분야 투자는 중국-중남미 간 농산물 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남미 국가의 농산물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20년 20%까지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육류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은 대두를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주요 수입국으로 등극하였다.²⁶¹⁾

중국의 농업 분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은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이 자립을 위해 농업 기업의 세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중량그룹(COFCO), 신젠타(ChemChina), 시노그레인, CNADC와 같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였다.²⁶²⁾ 특히 중국 국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지작물, 곡물, 육류, 그리

259) FAOSTAT(Food Balance Sheets)(검색일: 2023. 8. 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60) Sanborn and Chonn(2014), p. 7.

261)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2022. 3. 28),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Chin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2021”(검색일: 2023. 12. 5).

고 유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해외 농지 및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였다.²⁶³⁾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이어 러-우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중국은 곡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 남아공과의 곡물 교역을 확대하였다.²⁶⁴⁾ 다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의 곡물 교역에 있어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중국-중남미 간 곡물 교역 안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농경지 확보를 위한 벌목이 활발해지면서 아마존 산림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EU-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브라질로서는 중국과의 곡물 교역 확대를 위한 산림 파괴가 유럽 국가와의 무역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로부터 안정적인 곡물을 공급받기 원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브라질 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중국 곡물 교역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였다.²⁶⁵⁾ 중남미의 대중국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 따라 농지 개발이 지속해서 이뤄지면서 아마존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²⁶⁶⁾

이 과정에서 국영 곡물회사인 중량그룹(COFCO)을 중심으로 브라질 내 농지 확보를 시도했으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인근 국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²⁶⁷⁾ COFCO는 브라질 내 물류 및 곡물 저장 시설과 곡물 가공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다.²⁶⁸⁾ 그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에 따른 환경 및 노동 이슈가 발생하면서 브라질 내 기업을 인수하는 브라운필드로 선회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해외 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특히 대규모 경작

262) Wesz Jr., Escher, and Fares(2023), p. 1383.

263) Erokhin *et al.*(2022), p. 483.

264) 「美와 계약 파기·브라질산 수입 확대...중 식량 '脫미국' 빨라진다」(2023. 5.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5).

265) Wesz Jr., Escher, and Fares(2023), p. 1388.

266)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2022. 3. 28),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Chin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2021"(검색일: 2023. 12. 5).

267) *Ibid.*, p. 1391.

268) Li *et al.*(2022), p. 8.

지를 보유한 브라질과 칠레 등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4. 소결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중남미 투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양 대륙의 투자 비중이 20%를 상회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내 에너지와 금속·광물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규모 확대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중남미 투자는 특히 2013년 시진핑 주석의 등장과 함께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도드라졌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중국 중심의 해양경제 구축, 에너지·광물자원·농산물 확보, 그리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아프리카·중남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해왔다.

중국의 분야별 투자 동기를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시장 확보와 중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시장 개척 및 진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진타오 및 시진핑 정부 1기까지는 원유 및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면,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보를 위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해양을 통한 일대일로를 위해 해양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심해 유가스전 탐사, 그리고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 투자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금속·광물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은 아프리카·중남미에서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한 핵심 광물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칠레와 페루의 리튬 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것을 보면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전에는 국영기업이 주로 진출했다면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금속·광물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교통·운송 분야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직결된다. 중국정부는 일대일로를 통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 항만 및 철도 구축 등을 통한 해양 및 육상 일대일로 구축을 노리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중국 전기차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전기차 공급망 구축이다. 중국은 리튬 등의 핵심 광물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기차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중남미 소비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최근 중국정부의 교통·운송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 분야 투자는 중국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농산물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등 국내 소비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 중남미 등지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내 정치적 불안정성, 환경 파괴 등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은 토지 구매, 현지 농업 기업 인수 등을 통한 농산물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점이 중국이 브라질과 칠레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 투자에 나선 계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시기별 투자 특징을 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에너지와 금속·광물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이전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투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 1기 시기에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이 이뤄졌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모두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교통·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 금융, 엔터테인먼트, 의료·보건 등으로 분야가 다변화되었으며, 국가가 다변화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전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저우추취’ 전략에 따른 시장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집중되었고, 국유기업 중심의 제한된 분야에서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후진타오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해외 직접투자 제도는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했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에서는 ‘저우추취’ 전략의 심화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 참여 등을 장려했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에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국내 경제성장으로 누적된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분야를 정밀화하기 시작하였고,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원 확보’형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다. 전략적 자원이란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과 같은 물리적인 자원 이외에 선진 기술과 같은 전략적 무형 자원도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 해외직접투자가 장려된 산업은 철강, 인프라, 자동차, 통신, 항공우주, 선박, 해양공정 등 중국이 중시하는 제조업 분야, 첨단 제조 능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에 대한 M&A가 장려되었다. 일대일로와 관련된 분야의 투

자 또한 장려되었으며, 기술 협력과 기술 원조 등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추진되었다.

시진핑 정부 1기 후반과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러서는 전략적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제도적 시스템을 통한 관리 방식이 도입되었다. 중국정부는 해외직접투자의 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의 3가지 분야로 규정하여, 중국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였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점이 없는 비생산성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였다. 또한 국내외 생산능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투자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주체의 규범화를 추진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를 구축하여 투자 분야를 관리함은 물론 해외직접투자 사전·사중·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과 연계되고 해외투자자 인 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2018년 이후 미·중 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산업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설비와 장비, 최첨단 제조업, 경제 효율성이 있는 자원 탐사, 일대일로와의 연계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 진출과 자원 확보에 용이한 개도국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 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규모의 측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

서는 중국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대일로의 고도화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초기에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일대일로 고도화의 타임라인과 발전 목표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의 국가전략을 투영하고 있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된 2018년 이후 중국의 신발전구도인 쌍순환 전략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밸류체인·물류망 편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고, 녹색발전·디지털경제·중소기업 해외진출 등 국가발전 전략에 따른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이 장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개도국을 향한 그린 필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본 연구의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1) 중국의 대미국·대EU 투자 전략과 현황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3가지 특징으로 귀결된다. 첫째, 시진핑 정부 1기 말부터 진행된 선진국 중심의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제는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은 선진국 시장에 주로 M&A를 통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강화로 시진핑 정부 1기 말 2017년을 전후로

미국의 대중국 기업의 주류 해외투자방식인 M&A 투자 규모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기조가 EU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중국기업의 EU 지역 내 투자규제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EU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도 감소하였다.

둘째, 국유기업에 집중되었던 해외직접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었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 투자방식이 전환되었다. 중국의 대미국 해외투자의 경우 후진타오 정부 2기인 2011년부터 투자주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시진핑 시기 들어 민영기업 주도의 해외투자가 시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EU 지역 역시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민영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약 92%가 민영기업에 의해 해외투자가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 방식의 경우 중국의 대미 투자는 여전히 주류 해외투자방식인 M&A로 이뤄졌으나,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M&A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투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포기당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고, 2022년에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일부 시행되면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M&A 투자 규모를 추월했다. EU 지역 역시 미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2022년에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시행되면서 그 규모가 M&A 투자를 초과했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가 변화되면서 주요 투자 분야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중국의 대미·대EU 투자는 에너지 분야, 교통·운수 분야, 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후진타오 정부 2기 대미·대EU 투자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시진핑 정부 1기는 부동산과 금융을 제외하면 교통·운수 분야와 기술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운수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 이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동기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EU 지역의 시장진출을 위해 교통·운수 분야에 투자를 진행했던 반면,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헝가리에 신에너지 관련 분야 그린필드 투자를 시행했다. 또한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중국의 대미·대EU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게 된다. 이는 미국과 EU 정부가 첨단제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미국 행정부는 자국 동맹국에도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제한을 함께 할 것을 독려하는 등 미국 주도 지역 협력체제인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등을 구축하기도 했다.

2) 중국의 대아세안·중동 투자 전략과 현황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의 투자 전략 및 현황, 주요 분야별 투자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를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와 상대국(지역)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해외투자가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전략에는 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수준,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개도국과의 관계 설정, ‘일대일로’ 전략 추진, 자원 확보 및 시장 개척, 그리고 녹색 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내외 요인에 따라 역대 지도부 집권 시기별로 중점 투자 대상 지역(국가)에 대한 분야별 투자 목적과 방향성이 변화해왔다.

시진핑 시기 이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해왔다. 특히 아세안과 중동지역 국가의 협력을 논할 때 일대일로 프로젝트와의 연계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 결과 본문에서 언급한 에너지, 교통·운송, 기술 분야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대다수는 일대일로라는 대외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익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

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대아프리카·중남미 투자 전략과 현황

중국의 대아프리카·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에너지, 금속·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중국정부의 원자재(에너지, 광물, 식량) 확보라는 목적이 가장 컸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가 들어서고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공급망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아프리카·중남미 내수 시장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에너지와 금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물류와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특히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투자 역시 활발히 이뤄졌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술한 이유로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온 점도 있으나, 아프리카와 중남미 입장에서는 역내 인프라 개선, 경제성장 등을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중국의 투자 확대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 2기 들어 핵심 광물 확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강화 등 새로운 투자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해양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등도 새롭게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시진핑 3기에도 중국은 에너지, 광물자원, 교통·물류 인프라, 농업 등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 외에도 투자 분야를 다각화할 가능성이 높다.

표 6-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총괄표

중국 해외직접투자 시기별 정책			
구분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2018~22년)
정책	- 지속적인 규제 완화 - 호혜성 장려 정책 -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 경제무역협력구를 활용한 해외직접투자 확대 - 심사제 → 승인제	- 지속적인 규제 완화 - 전략적 자원 확보, M&A, 선진기술 습득의 투자 확대 -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 육성 제시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도입과 전략적 연계 - 승인제 → 등록제 - 후반: 비이성적 해외직접투자 규제 시작	- 장려, 민간산업 목록을 통한 전략 산업 투자 장려 - 해외투자의 규범화 - 일대일로 고도화에 따른 협력 분야 확대 - 등록제 중점, 일부 승인제 적용 - 중소기업 해외진출 등 새로운 해외투자 모멘텀 구축
산업	- 해외자원 개발 - 인프라 건설 - 경쟁우위가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	- 철강, 인프라, 자동차, 통신, 기계, 항공우주, 선박, 해양공학 등 다분야 투자 진행 - 첨단 제조 능력 보유 기업과의 M&A 장려 - 인프라 건설, 기술협력, 기술원조 - 글로벌 산업망, 밸류체인, 물류 네트워크와의 높은 수준의 융합	- 일대일로 연계 산업 분야 투자 확대 -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설비, 장비 · 기술 표준 수출 - 해외 최첨단 및 선진 제조업 투자 협력 - 경제적 효용이 있는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분야 - 금융기관의 해외 분점 건설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제한: 부동산, 술집,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지역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2018~22년)
미국	- 저우추취 전략에 대한 호혜적 장려 정책 추진 - M&A 분야 투자 확대 - 국유기업 주도의 투자 - 에너지, 교통운송, 금융 등의 분야 투자	- 첨단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 - 비생산성 분야 제한으로 인한 투자 감소 - 미 · 중 갈등으로 인한 첨단산업 투자 규제 - 민영기업 위주의 투자 확대 - 부동산, 기술, 관광, 교통 · 운수 분야의 투자 진행	- 통신업체 대상의 미국의 대중투자 규제 강화 - M&A 투자 축소와 그린필드 투자 비중 확대 - 교통운송, 헬스, 화학분야의 투자 - 부동산 분야(국내요인), 기술 분야(해외요인) 투자 대폭 감소

표 6-1. 계속

중국 해외직접투자 시기별 정책			
지역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2018~22년)
EU	- 국유기업 주도의 M&A 중점 투자 - 교통·운수, 에너지, 기술 분야 투자 집중 - 주요 협력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집중, 비교적 균등한 분포	- 대EU 투자 본격적으로 증가 - 민영기업의 투자 점차 증가 - 브라운필드 투자 중점, 일부 그린필드 투자 - 교통·운수,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기술, 금융, 부동산, 물류 등 다분야 투자 진행 - 주요 협력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집중	- 투자 감소세로 전환 - 민영기업 주도의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검토 정책에 따른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로 전환 - 교통·운수,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기술, 금융 등 - 주요 협력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집중, 전체 비중의 67.9% 차지(2022년 기준)
아 세 안	- 전반적인 증가세 (투자협정 체결,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출범) - 국유기업 주도의 그린필드 투자에 집중 - 에너지, 금속광물 등 자원투자에 집중 - 주요 협력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일대일로 추진으로 제도적·정책적 여건 조성 - 대아세안 투자 대폭 확대 - 민영기업의 참여 확대로 인한 균형적인 투자주체 구성 - 그린필드 중점의 투자 - 에너지, 물류, 부동산 등의 투자로 확대 -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신규 증가 - 주요 협력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투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세 -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된 신흥 산업으로 확대 및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 전환 - 그린필드 중점의 투자 - 민영기업의 참여 확대로 인한 균형적인 투자주체 구성 - 교통·운송, 금속·광물, 에너지, 기술 등 전략적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중 동	- 국유기업 주도의 대규모 브라운필드 투자 - 에너지·광물 자원 중점 투자 - 주요 협력국: 이라크, 사우디, 시리아	- 일대일로 협력을 통한 투자 확대 - 국유기업 중점, 일부 민영기업 투자 - 에너지 분야에 집중 - 주요 협력국: UAE, 이라크, 요르단	- 국유기업 중점, 민영기업 투자 확대 - 인프라, 플랜트,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 투자 확대 - 에너지(원유), 금융,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 등 전략적 산업의 협력 강화 - 주요 협력국: 사우디, UAE, 이라크

표 6-1. 계속

중국 해외직접투자 시기별 정책			
지역	후진타오 정부 2기(2008~12년)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	시진핑 정부 2기(2018~22년)
아프리카	- 남남협력, 경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추진 - 점진적 투자 확대 - 그린필드 중점의 투자에서 브라운필드 투자로 확대 - 국유기업 주도 -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중점 - 주요 협력국: 니제르, DR콩고,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 비교적 균형적인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비중 유지 - 국유기업 주도, 일부 민영기업 투자 -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 일부 부동산 투자 확대 - 주요 협력국: DR콩고, 모잠비크, 이집트, 기니,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등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투자 감소 -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 - 국유기업 주도, 민영기업 투자 확대 - 에너지·광물 자원 중점 투자에서 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 제조업 등의 분야로 확대 - 주요 협력국: 탄자니아, 짐바브웨
중남미	- 남남협력 추진으로 인한 경제협력 강화 - 투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음. - 국유기업 주도의 브라운필드 중점의 투자 - 광물·에너지 자원 투자 중점 - 주요 협력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 일대일로 전략 추진으로 대중남미 투자 점진적 확대 - M&A 위주의 브라운필드 투자 중점, 일부 그린필드 투자 진행 - 국유기업 주도 - 에너지·광물 자원 투자 중점, 교통·운송과 농업 투자 확대 - 주요 협력국: 브라질, 페루 등	- 일대일로 전략 추진으로 투자협력 확대 - 브라운필드 중점, 일부 그린필드 투자 - 국유기업 주도에서 에너지·광물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민영기업으로 확대 - 에너지, 리튬 등 전략적 광물 자원 투자 중점, 교통·운송 투자 확대, 의료·보건 투자 신규 증가 - 주요 협력국: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자료: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기업 해외진출 장려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약의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해외진출에 용이한 경제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협약의 양자간의 정부소통 채널을 활용한 방식뿐 아니라 일대일로와 BRICS 같은 소·다자 협력체를 활용한 지역적 협력도 포함된다. 중국의 정부협약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지 않았던 시기부터 전략적 산업 경쟁력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정부 협약 채널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은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의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의 경우, 1991년 중-아세안 대화관계를 시작한 이후 FTA를 활용한 양방향 투자 확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RCEP 발효, 중-아세안 정상회의 등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된 정부협약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일대일로의 중요 추진 지역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부 차원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중남미의 경우 2000년 이후 남남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국-중남미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2008년과 2016년에는 대 중남미 및 카브리해 정책 문서를 발표하여 중국과 중남미 간 경제, 사회, 국제협력, 평화안보 등을 포괄한 협력 구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시진핑 정부 이후에는 BRICS 정상회담에서 중국-중남미 간 '1+3+6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중동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유럽, 아프리카와의 연결지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중점 지역이다. 2013년 중국은 아랍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중국-아랍국가 박람회’를 개최해왔고,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아랍 협력포럼 제6차 장관급 회의에서 중동과의 경제협력을 인프라 건설에서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첨단 산업으로 확대하고 제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Vision 2030’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며, 네옴시티(Neom City) 등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인프라, 플랜트,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과 관련된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협의를 활용한 해외직접투자 지원은 최근 경제안보 개념의 대두와 공급망 블록화 등 기업이 대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데 좋은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도 최근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활용하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원팀 코리아’는 한국 주도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협의하에 탑-다운(top-down) 방식의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FTA를 체결하여 기업 해외직접투자 환경 조성을 하고 기업 주도의 해외진출을 하였던 기존의 방식과의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와 같은 개도국과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해외기업의 자국 진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6-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사우디 투자협력 연표

구분	주요 내용
2022. 8. 30	국토교통부, C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개최 별도행사 '사우디 협력회의'에서 네오평업 협력 방안 논의
2022. 9. 20	원희룡 장관과 무함마드 알 사우드 공주(관광부 차관)와 협력 논의
2022. 11. 4~9	'원팀 코리아' 사우디 파견
2022. 11. 17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한-사우디 투자포럼' 건설·철도·화학 등 26개 MOU 체결
2023. 3. 12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사우디 농업기업 그린하우스와 MOU
2023. 6. 11	중소벤처기업부·사우디 중소기업 은행, 양국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한국기업에 최소 1,000만 달러 이상 의무 투자
2023. 6. 13	이영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리야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판식
2023. 6. 24	현대건설의 아람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서명식 개최 아미랄 프로젝트: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한 사우디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50억 달러의 사우디 최대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예정

자료: 「사우디 뚫은 '원팀코리아'... 6.5조 역대급 수주」(2023. 10.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2. 14).

나. 그린·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자와 국가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장려 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호혜성 장려 정책으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었다면, 시진핑 정부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전략적 협력 산업을 선정하고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미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제조업과 기초 인프라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물류, 의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그린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집중되고 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표 6-3.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초 인프라	- 중-유럽 화물열차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 카스피해 국제운송 통로 구축 - 중-유럽 화물열차 국제협력 포럼을 개최, 철도와 도로 직통 운송을 기반으로 아시아-유럽 대륙 물류 연결 통로 구축 - 해운 및 항공 실크로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운과 항공이 융합된 물류·무역 체제 구축
개방	- “실크로드 전자상거래(丝路电商)” 협력 시범 구역 추진 -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체결 추진 - 제조업 분야 외국 투자 진입 제한 조치 전면 폐지 - 글로벌 기준·규칙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으로 초국경 서비스무역과 투자 개방 -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구매, 국영기업 등의 분야 개혁 추진 - 매년 “글로벌 디지털무역 박람회(全球数字贸易博览会)” 개최 - 향후 5년간(2024~28) 중국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수출입액 각각 총 32조 달러와 5조 달러 초과 전망
금융	- 상징성 있는 대표 금융 프로젝트와 “작고 아름다움(小而美)” 일상생활 프로젝트 추진 -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각각 3,500억 위안 자금조달 창구 설립 - 실크로드 기금에 800억 위안 추가 투입하여 시장화/상업화 일대일로 프로젝트 지원 - 루반공방(鲁班工坊)을 통해 중국과 외국 간 직업 교육 협력 촉진 -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협력 강화
지속가능 발전	- 녹색 기반 시설,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 등 분야 협력 지속 심화 - ‘일대일로’ 녹색 발전 국제 연맹 지원 노력 강화 - ‘일대일로’ 녹색 혁신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한 녹색 저탄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일대일로 녹색 투자 원칙을 실천하여 2030년까지 파트너 국가 대상 10만 명 교육과정 제공
과학기술	-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을 지속, 일대일로 과학기술 교류 회의 개최 - 향후 5년간 공동 구축 연합 실험실을 100개로 확대하여 각국의 청년 과학자 연구 지원 - 전 세계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제안 - 각국과의 교류 및 대화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 공동 추진

표 6-3. 계속

구분	주요 내용
협력기구	- '일대일로' 국제 협력 기구 강화 -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함께 에너지, 세금, 금융, 녹색 발전, 재난 예방, 부패 방지, 싱크탱크, 미디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 플랫폼 강화 -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을 지속 개최, 정상 포럼 사무국 설립

자료: 中国新闻网(2023. 10. 18), 「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主席声明(全文)」(검색일: 2023. 12. 12)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만 중국이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으로 선정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통상, 신재생에너지, 녹색교통, 그린 인프라, 과학기술 교류 등의 전략 산업 분야는 한국에도 중요한 전략 산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향후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개도국의 신흥산업은 각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격전지로서 이들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및 비교우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신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이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한·중 간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의 측면에서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2년 기준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그린과 디지털 등의 신흥산업에서도 막대한 해외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소재·장비·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분야와 중첩된다. 이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다만 양국의 전략적 산업이 에너지와 자원에서 그린과 디지털 등 다양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시하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파트너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일찍이 일대일로 전략의 파트너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분모에 기반하여 한·중 양국은 각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분야, 헬스케어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협력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소통 플랫폼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하고, 현재 논의 중인 한·중·일 FTA, 한·중 FTA 2차 협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양국의 제3국 진출과 경제협력의 종합 플랫폼으로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6-4. 한·중의 제3국 공동진출 사례

사업명	연도	주요 내용
UAE 사 가스 프로젝트	2010	가스처리 유틸리티, 저장설비, 인프라 시공 및 기자재 공급 (한) 삼성엔지니어링, (중) 지린화학공업그룹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사업	2012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 발주 (한) 현대건설 (중) Wison 컨소시엄
미얀마 가스 파이프라인	2013	미얀마 가스전 개발 및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에 전송 (한) 현대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중) 중국 CNPC
에티오피아 송전망 교체 사업	2014	에티오피아 송전망의 가공지선을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으로 교체 (한) 우암코퍼레이션, (중) ZTE 등
브라질 제철소 건설	2015	제철소 건설 (한) 포스코, (중) 중파산능한
페루 지하철 시공 감리	2015	지하철 시공 감리 (한) 도화엔지니어링, 부산교통공사, (중) FSDI 등
수단 카트룸 신공항 사업	2015	신공항 건설 (한)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 (중) 차이나 허버엔지니어링 등
쿠웨이트 정유공장	2015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가 발주한 알 주르 신규 정유공사 사업의 4개 패키지 중 하나 (한) 한화건설, (중) 시노펙 등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사업	2015	팜 주메이라 인공섬 입구에 1265가구 규모 고급 아파트 건설 (한) 쌍용건설, (중) 건중공정총공사
에콰도르 정유공장 사업	2016	정유공장 건설 및 감리 (한) 현대건설, (중) Tianchen 엔지니어링, China Machinery 등
베트남 철도 한·중 공동 감리 사업	2016	통일철도 빈-호치민간 통신·신호 현대화 사업 등 (한) 한국철도관리공단, (중) 중국철도총공사
모잠비크 코랄사우스 해상부유식액화설비 건조사업	2017	모잠비크 4구역의 해상부유식액화설비(FLNG) 건조 (한) 삼성중공업, (중) 발주 및 금융지원 등
말레이시아 Marigold 정유석유화학 설비 건설	2019	정유석유화학 설비 건설 (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중) 금융지원 등
러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2022	러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한) 삼성엔지니어링, (중) CC7 등

주: 각 사업 참여 기업의 국가가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기업만 표기함.
자료: 최필수(2023, 내부자료).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문수, 손성현, 유광호, 이지은. 2023. 「한국-UAE 첨단산업협력 추진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부 용역과제.
- 김동하. 2012. 「중국 저우추취 정책에서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역할에 관한 연구」. 『중국학』, 43, pp. 392~416.
- 김유리. 2016. 「인도네시아의 전략화 현황 및 향후 과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4호.
- 김정인. 2016. 「중국 원전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9호.
- 김홍원, 박진희, 허유미. 2016.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점지역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6-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수엽, 김영선. 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윌라, 최의현. 2011.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11-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상현. 2023. 「중동 지정학 변화와 중국 영향력 확대」. CSF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 오피니언.
- 양평섭, 나수엽, 박민숙, 이한나, 조고운, 오윤미. 201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8.
- 연원호, 나수엽, 박민숙, 김영선. 2020.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광호, 김영선, 김승현, 남유진. 2023.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다각화 정책과 한국의 기회」. KIEP 기초자료 23-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규. 2021. 「중국 중동정책의 변화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
- 이승신, 현상백, 나수엽, 김영선. 2022.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승신, 현상백, 나수엽, 조고운. 2018.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18-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승호, 강문수. 2021.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세계지역전략연구 2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혜영. 2022. 「아세안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와 아세안의 협력 동향」. 인천연구원.
- 최필수. 2023.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사례」(내부자료).
- 한동균. 2015.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현상백, 연원호, 나수엽, 김영선, 오윤미. 2021. 『미·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2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북경사무소. 2016. 「중국의 공급과잉해소(去产能)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6-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9. 「중국 민영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문자료]

- 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 2023. 「2022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22a.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美国(2022年版)」.
- _____. 2022b.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巴西(2022年版)」.
-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中国驻东盟使团经济商务处,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2023.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东盟(2022年版)」.
- 李锋. 2016. 「我国对外直接投资政策研究」. 全球化, 第10期, pp. 88~98.
- 张岩, 王丽. 2013. 「中国对东盟国家直接投资的决定因素研究」, 『经济问题探索』, 2013年第7期.
- 中国商务部, 国家统计局, 外汇管理局. 2018. 「2017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 中国商务部. 2015.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5.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 _____. 2020.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 _____. 2022.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 郝宇彪, 张志勤, 云吉吉. 2021. 「中国对外投资管理的历史演变: 管理方式、投资主体与政策目的」. 社会科学动态, 2021(9), pp. 36~44.

- 海通证券. 2023. 「“一带一路”：进展如何？」.
- 洪联英, 张云. 2011. 「我国境外经贸合作区建设与企业“走出去”战略」. 国际经贸探索, 27(3), pp. 48~54.
- 黄立群, 钟惠泽. 2023. 「共建“一带一路”：中国对东盟直接投资高质量发展研究」. 『东南亚纵横』, 2023年 第2期.

[영문자료]

- Abdenur, A. E., M. Santoro, and M. Folly. 2021. “What Railway Deals Taught Chinese and Brazilians in the Amaz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Barbosa, P. H. B. 2020. “New Kids on The Block. China’s Arrival in Brazil’s Electricity Sector.” *GCI Working Paper 012*.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 Begu, L. S., M. D. Vasilescu, L. Stanila, and R. Clodnitchi. 2018. “China-Angola investment model.” *Sustainability*, 10(8), 2936.
- Cariello, T. 2022. “INVESTIMENTOS CHINESES NO BRASIL 2022.” *Conselho Empresarial Brasil-China*.
- Cheng, H., E. Mawdsley, and W. Liu. 2023. “Reading the Forum on China -Africa Cooperation (2000-2021): geoeconomics, governance, and embedding ‘creative involvement’.” *Area Development and Policy*, 8(1), pp. 60-83.
- Ching, C. V. 2021. “Butting in or Rounding Out? China’s Role in Latin America’s Investment Diversification.” *GCII Working Paper 016*.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 CNPC. “Overview of CNPC Operations in Iraq.”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Ding, D., F. Di Vittorio, A. Lariau, and Y. Zhou. 2021. “Chinese Investment in Latin America: Sectoral Complementarity and the Impact of China’s Rebalanc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Erokhin, V., G. Tianming, L. Chivu, and J. V. Andrei. 2022. “Food security in a food self-sufficient economy: A review of China’s ongoing transition to a zero hunger state.” *Agricultural Economics*, 68(12),

- pp. 476-487.
- Gallagher, K. P. 2016. *The China triangle: Latin America's China boom and the fate of the Washington consensus*. Oxford University Press.
- Guo, J. 2023.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the making of a post-boom paradigm."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pp. 1-26.
- Hamilton, C. and S. Maliphol. 2023. "Reimagining China's transportation funding investments in Africa in the context of COVID-19."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677(4), pp. 118-128.
- IEA. 2022. "Solar PV Global Supply Chains." IEA, Paris. <https://www.iea.org/reports/solar-pv-global-supply-chains>. License: CC BY 4.0.
- Jenkins, R. 2010. "China's global expansion and Latin Americ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2(4), pp. 809-837.
- Johnston, L. 2023. "The Hunan Model: China's Zone for the China-Africa Future. African perspective Global insights." *Occasional Paper*, 349. SAIIA.
- Lema, R., P. L. Bhamidipati, C. Gregersen, U. E. Hansen, and J. Kirchherr. 2021. "China's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in Africa: Creating co-benefits or just cashing-in?" *World Development*, 141, 105365.
- Li, W., M. Zhou, C. Kou, M. J. B. Nonnenberg, U. M. Lima, S. Q. A. Bispo, and F. Pedrosa. 2022. "China-Brazi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 Lisinge, R. T. 2020.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Africa's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mplications and less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view*, 12(4), pp. 425-438.
- Sanborn, C. and V. Chonn. 2014. "Chinese Investment in Peru's Mining Industry: Blessing or Curse?" *Discussion Paper* 2015-8.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 Schweller, R. L. and X. Pu. 2011.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36(1), pp. 41-72.
- Tan, N., L. Chang, and R. Guo. 2021.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 investment in energy sector: The role of “intimat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Plus one*, 16(7), e0254199.
- UNCTAD. 2023.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 Vedie, H. 2017. “Chinese mining investments in africa.” *Policy Brief*, 17/15. OCP Policy Center.
- Wesz Jr, V. J., F. Escher, and T. M. Fares. 2023. “Why and how is China reordering the food regime? The Brazil-China soy-meat complex and COFCO’s global strategy in the Southern Cone.”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50(4), pp. 1376-1404.
- Wintgens, S. 2022. “China’s Foodprint in Lating America: Recent developments and challenges ahead.” *EUISS Brief*. (September)
- Wise, C. and V. Chonn Ching. 2018. “Conceptualizing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oom, the bust, and the aftermath.” *The Pacific Review*, 31(5), pp. 553-572.

[언론/보도 자료]

- 「美와 계약 파기·브라질산 수입 확대…中 식량 ‘脫미국’ 빨라진다」. 2023. 『서울경제』. (5월 16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LPNZZF4> (검색일: 2023. 12. 5).
- 「사우디 뚫은 ‘원팀코리아’… 6.5조 역대급 수주」. 2023. 『서울신문』. (10월 18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6001006> (검색일: 2023. 12. 14).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1.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강화」. (6월 7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8924(검색일: 2023. 12. 7).
- 「境外经贸合作区建设实现长足发展, “数字”“绿色”成未来重点」. 2023. 『证券时报网』. (10월 18일). <https://www.stcn.com/article/detail/1007466.html>(검색일: 2023. 11. 30).
- 欧盟中国商会CCCEU. 2023. 「欧盟中国商会发布中企在欧发展报告欧盟营商环境总体得分连续第四年下行但降速趋缓」. (11월 15일). <https://www.investgo.cn/article/yw/tzyj/202311/695257.html>(검색일: 2023. 12. 1).
- 网易. 2022. 「远景投资20亿美元在美国建设第二座锂电池工厂, 拟寻求剥离电池部门上市 | 前线」. (4월 16일). <https://www.163.com/dy/article/H52MU>

- F7D05509N4R.html(검색일: 2023. 9. 18).
- 「习近平在第三次“一带一路”建设座谈会上强调 以高标准可持续惠民生为目标 继续推动共建“一带一路”高质量发展 韩正主持」. 2021. 『人民网』. (11月 19日). <http://politics.people.com.cn/n1/2021/1119/c1024-32287264.html> (검색일: 2023. 12. 4).
- 「“十三五”规划开启中国对外“新投资时代”」. 2015. 『第一财经』. (11月 10日). <https://www.yicai.com/news/4709847.html>(검색일: 2023. 12. 2).
- 杨永明. 2023. 「“一带一路”能源国际合作报告(2023)」. 『中国能源新闻网』. (9月 22日). https://www.cpn.com.cn/news/baogao2023/202309/t20230922_1637305_wap.html(검색일: 2023. 12. 5).
- 「提升中小企业竞争力若干措施」. 2021. 『澎湃新闻』. (11月 22日). https://m.thepaper.cn/baijiahao_15498267(검색일: 2023. 12. 5).
- 走出去公共服务平台. 2018. 「夏飞委员：大力促进中国对东盟直接投资」. (3月 13日). <http://fec.mofcom.gov.cn/article/ywzn/xgzx/guonei/201803/20180302718908.shtml>(검색일: 2023. 11. 27).
- 中国服务贸易指南网. 2023. 「中国东盟携手共建高质量“一带一路”」. (9月 8日).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article/ydyl/yaowen/gjyw/202309/153694.html>(검색일: 2023. 12. 7).
- 中国商务部. 2010. 「民企应加快资源能源类境外投资的步伐」. (12月 8日). <http://fec.mofcom.gov.cn/article/ywzn/xgzx/zlyj/201511/20151101187105.shtml>(검색일: 2023. 11. 30).
- _____. 2016. 「发展改革委、商务部、人民银行、外汇局四部门负责人答记者问」. (11月 28日).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611/20161101953743.shtml>(검색일: 2023. 12. 3).
- _____. 2018. 「商务部 人民银行 国资委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关于印发《对外投资备案(核准) 报告暂行办法》的通知」. (1月 18日). <http://www.mofcom.gov.cn/article/b/g/201804/20180402735967.shtml>(검색일: 2023. 12. 3).
- _____. 2021. 「商务部、生态环境部联合印发《对外投资合作绿色发展工作指引》」. (7月 16日). <http://www.mofcom.gov.cn/article/news/202107/20210703176325.shtml>(검색일: 2023. 12. 6).
- 「中国收紧外汇管控 中资海外并购将降温?」. 2016. BBC. (11月 29日).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a/2016/11/161129_china_forex_control(검색일: 2023. 12. 3).

- 中国一带一路网. 2018. 「六大经济走廊」. (7月 20日). <https://www.yidaiyilu.gov.cn/p/60644.html>(검색일: 2023. 12. 2).
- _____. 2019. 「划重点! 习近平主旨演讲中的新变化」. (4月 26日). <https://www.yidaiyilu.gov.cn/p/88178.html>(검색일: 2023. 12. 4).
- _____. 2019. 「习近平在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上的系列讲话」. (4月 28日). <https://www.yidaiyilu.gov.cn/p/88249.html>(검색일: 2023. 12. 4).
- 中国政府网. 2015.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3月 20日). <http://ga.mofcom.gov.cn/article/zctz/201503/20150300927376.shtml>(검색일: 2023. 12. 2).
-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12. 『新华网』. (11月 17日). http://www.xinhuanet.com//18cpcnc/2012-11/17/c_113711665_5.htm(검색일: 2023. 11. 30).
- “China automaker BYD to invest \$620 million in Brazil industrial complex.” 2023. *Reuters*. (July 5).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china-automaker-byd-invest-620-million-brazil-industrial-complex-2023-07-04/>(검색일: 2023. 9. 16).
- “China Three Gorges could raise US\$2 billion with Brazil IPO.” 2022. *the Macao news*. (March 14). <https://macaonews.org/lusofonia/china-three-gorges-could-raise-us2-billion-with-brazil-ipo/>(검색일: 2023. 11. 29).
- “China Three Gorges Renewable Group: Hidden Value Stock for the Offshore Wind Power Era.” 2022. *BusinessKorea*. (July 15).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44>(검색일: 2023. 11. 29).
- “China’s Belt and Road gets ‘green’ reboot and spending boost.” *Climate Home News*. 2023. (October 19).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3/10/19/chinas-clean-energy-program-belt-and-road>(검색일: 2023. 11. 28).
- “China’s Bet on Colombia, Seeking Its ‘Golden Age’ in Latin America.” 2023. *Dialogo Americas*. (July 3). <https://dialogo-americas.com/articles/chinas-bet-on-colombia-seeking-its-golden-age-in-latin-america/>(검색일: 2023. 9. 16).
- “China’s BYD to start EV production in Thailand by 2024.” *Reuters*. 2022.

- (September 8).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chinas-byd-set-up-ev-plant-thailand-2022-09-08/>(검색일: 2023. 12. 7).
- “China’s clean energy investments growing rapidly in Africa.” 2022. *China Daily*. (August 30). <https://www.chinadaily.com.cn/a/202208/30/WS630d6e5da310fd2b29e74f5e.html>(검색일: 2023. 9. 17).
- “China’s Critical Mineral Model in Latin America.” 2023. *New Security Beat*. (July 24). <https://www.newsecuritybeat.org/2023/07/chinas-critical-mineral-model-latin-america/>(검색일: 2023. 9. 16).
- “China’s Huaneng buys Singapore’s Tuas Power for \$3 bln.” 2008. *Reuters*. (March 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temasek-huaneng-idUSSP10284220080314/>(검색일: 2023. 12. 6).
- “China’s JD.com invests in Indonesia’s Go-Jek amid SE Asia push – sources.” 2017. *Reuters*. (August 25). <https://www.reuters.com/article/us-go-jek-m-a-jd-com-idUSKCN1B50MH/>(검색일: 2023. 12. 7).
- “China’s Latin American Gold Rush Is All About Clean Energy.” 2023. *Foreign Policy*. (February 27). <https://foreignpolicy.com/2023/02/27/china-latin-america-lithium-clean-energy-trade-investment/>(검색일: 2023. 11. 30).
- “China’s Tencent invests in Indonesia’s Go-Jek amid SE Asia push: sources.” 2017. *Reuters*. (July 4). <https://www.reuters.com/article/us-gojek-m-a-tencent-idUSKBN19P17N/>(검색일: 2023. 12. 7).
- “China’s Xinchao Energy Jumps as It Snaps Up Another Texas Oil Field for USD420 Million.” 2021. *Yicai Global*. (February 3). <https://www.yicaiglobal.com/news/china-xinchao-energy-leaps-as-it-snaps-up-texas-oil-field-for-usd420-million>(검색일: 2023. 12. 7).
- “Chinese battery maker EVE Power to build plant in Hungary.” 2023. *Reuters*. (May 9).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chinese-battery-maker-eve-power-build-plant-hungary-2023-05-09/>(검색일: 2023. 12. 7).
- “Chinese investment in Chile sparks opportunities, concerns.” 2021. *Al Jazeera*. (September 3).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1/9/3/chinese-investment-in-chile-sparks-opportunities-concerns>(검색일: 2023. 9. 15).

- “Chinese rail, roads, and buses arrive in Colombia.” 2020. *China Dialogue*. (January 8). <https://chinadialogue.net/en/transport/11765-chinese-rail-roads-and-buses-arrive-in-colombia-2/>(검색일: 2023. 9. 16).
-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Ghana. 2006. “Chinese Government Issues African Policy Paper.” (January 14). http://gh.china-embassy.gov.cn/eng/sgxw/200601/t20060114_6137256.htm(검색일: 2023. 9. 8).
- “GCL-Poly to Buy SunEdison’s Material Business for \$150 Million.” 2016. *Bloomberg*. (August 2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8-29/gcl-poly-to-buy-sunedison-s-material-business-for-150-million>(검색일: 2023. 12. 7).
- “Geely to launch China ride-hailing venture with Daimle.” 2018. *Financial Times*. (October 24). <https://www.ft.com/content/8dd2a3aa-d767-11e8-a854-33d6f82e62f8>(검색일: 2023. 12. 7).
- “Global China’ is a big part of Latin America’s renewable energy boom, but homegrown industries and ‘frugal innovation’ are key.” 2023. *Fortune*. (July 8). <https://fortune.com/2023/07/08/china-secretly-fueling-latin-america-renewable-energy-boom-chile/>(검색일: 2023. 11. 30).
- “New Report Highlights China’s Positive Image in Colombia.” 2023. *The Diplomat*. (May 17). <https://thediplomat.com/2023/05/new-report-highlights-chinas-positive-image-in-colombia/>(검색일: 2023. 9. 16).
- “Risks of Guinea coup to Chinese projects manageable.” 2021. *People’s Daily Online*. (September 7). <http://en.people.cn/n3/2021/0907/c90000-9893078.html>(검색일: 2023. 9. 17).
- “SAIC and Charoen Pokphand Group form Thai joint venture.” 2012. *China Daily*. (December 10). https://www.chinadaily.com.cn/bizchina/2012-12/10/content_16003275.htm(검색일: 2023. 12. 7).
- “SEMCORP Close to Starting European Plant, Threatening Korean Companies.” 2023. *BusinessKorea*. (May 30).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73>(검색일: 2023. 12. 7).
- “Shandong Linglong to build plant in Thailand.” 2012. *TIRE BUSINESS*. (October 5). <https://www.tirebusiness.com/article/20121005/NEWS/121009948/shandong-linglong-to-build-plant-in-thailand>(검색일: 2023. 12. 7).

2023. 12. 7).
- “SMB, Winning sign deal with Guinea for alumina refinery.” 2018. *Reuters*. (November 27).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CN1NV1ZT/> (검색일: 2023. 11. 17).
- “The China-West Lithium Tango in South America.” 2023. *The Diplomat*. (October 23). <https://thediplomat.com/2023/10/the-china-west-lithium-tango-in-south-america/> (검색일: 2023. 11. 30).
- “Top 5 largest lithium mining companies in the World.” 2021. *Mining Technology*. (August 26). <https://www.mining-technology.com/features/top-5-largest-lithium-companies/?cf-view> (검색일: 2023. 11. 30).
- “Update: Malaysia’s 1MDB agrees sale of power assets to China firm for US\$2.3B.” 2015. *The Business Times*. (November 23). <https://www.businesstimes.com.sg/international/update-malaysias-1mdb-agrees-sale-power-assets-china-firm-us23b> (검색일: 2023. 12. 6).
- “U.S. regulatory scrutiny scuppers deal for unit of China’s HNA.” 2017. *Reuters*. (July 27). <https://www.reuters.com/article/global-eagle-ent-m-a-hna-group-idINKBN1AB2DW/> (검색일: 2022. 12. 7).
- “What Xi’s Third Term Means for Africa.” 2022. *Foreign Policy*. (October 26). <https://foreignpolicy.com/2022/10/26/china-ccp-congress-xi-jinping-africa/> (검색일: 2023. 9. 11).

[온라인 자료]

- 김영선. 2022. 「시진핑 주석,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동향 및 전망」. (12월 19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8521&mid=a20200000000&board_id=21 (검색일: 2023. 9. 15).
- 한-아프리카 재단. 2018. 「아프리카 투데이」. (11월 27일).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73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73&idx=1197> (검색일: 2023. 11. 17).
- 国际科技创新中心. 2021. 「《为“专精特新”中小企业办实事清单》解读」. (11月 23日). https://www.ncsti.gov.cn/zcfg/zcjd/202111/t20211123_51822.html (검색일: 2023. 12. 6).
- 百度百科. 「中国-东盟自由贸易区」. <https://baike.baidu.com/item/%E4%B8%>

- AD%E5%9B%BD-%E4%B8%9C%E7%9B%9F%E8%87%AA%E7%94%B1%E8%B4%B8%E6%98%93%E5%8C%BA/6373442?fr=ge_ala(검색일: 2023. 11. 24).
- 中国共产党新闻网. 2021. 「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 (11月 17日). <http://cpc.people.com.cn/n1/2021/1117/c64387-32284363.html>(검색일: 2023. 12. 3).
- 中国工信新闻网. 2021. 「《数字经济对外投资合作工作指引》印发鼓励抓住海外数字基础设施市场机遇」. (8月 9日). https://www.cnii.com.cn/rmydb/202108/t20210809_299881.html(검색일: 2023. 12. 6).
- 中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 2004. 「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 (10月 9日). https://www.ndrc.gov.cn/fggz/lywzjw/zcfg/200507/t20050719_1046908.html(검색일: 2023. 11. 30).
- _____. 2017. 「关于发布《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的通知」. (12月 6日). https://www.ndrc.gov.cn/fggz/lywzjw/zcfg/201712/t20171218_1047049_ext.html(검색일: 2023. 12. 3).
- _____. 2017.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11号-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12月 26日). https://www.ndrc.gov.cn/fggz/lywzjw/zcfg/201712/t20171226_1047050.html(검색일: 2023. 12. 3).
- _____. 2021.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完善能源绿色低碳转型体制机制和政策措施的意见」. (1月 30日).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202/t20220210_1314511_ext.html(검색일: 2023. 12. 4).
-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2022. 「东盟发布2022年投资报告(一): 东盟外国直接投资疫后强劲复苏」. (10月 20日). <https://www.ccpit.org/indonesia/a/20221020/20221020bx2r.html>(검색일: 2023. 11. 28).
- 中国商务部. 2015. 「商务部 国家开发银行关于支持境外经济贸易合作区建设发展有关问题的通知」. (12月 15日). https://www.gov.cn/guowuyuan/2015-09/17/content_2934172.htm(검색일: 2023. 12. 2).
- 中国政府网. 2005. 「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 (2月 19日). https://www.gov.cn/zwgk/2005-08/12/content_21691.htm(검색일: 2023. 11. 30).
- _____. 2009. 「境外投资管理办法」. (3月 16日).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9/content_1439289.htm(검색일: 2023. 11. 30).
- _____. 2013. 「国务院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3年本)的通知」. (12月 2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3-12/13/content_

- 1546.htm(검색일: 2023. 12. 2).
- _____. 2014. 「国务院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4年本)的通知」. (11월 18일).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4-11/18/content_9219.htm(검색일: 2023. 12. 2).
- _____. 2014.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9号-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4월 8일).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701557.htm(검색일: 2023. 12. 2).
- _____. 201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2014年第3号-境外投资管理办法」. (9월 6일).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792653.htm(검색일: 2023. 12. 2).
- _____. 2015.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5월 5일). https://www.gov.cn/guowuyuan/2015-09/17/content_2934172.htm(검색일: 2023. 12. 2).
- _____. 20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3월 17일). https://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검색일: 2023. 12. 3).
- _____. 2017. 「国务院办公厅转发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人民银行外交部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指导意见的通知」. (8월 4일).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7-08/18/content_5218665.htm(검색일: 2023. 12. 3).
- _____. 2017. 「中央企业境外投资监督管理办法」. (1월 7일). https://www.gov.cn/zhengce/2022-01/12/content_5718610.htm(검색일: 2023. 12. 3).
- _____. 2017.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11号-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12월 26일).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8/content_5280579.htm(검색일: 2023. 12. 2).
- _____. 2019. 「中共中央 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 (12월 22일). https://www.gov.cn/zhengce/2019-12/22/content_5463137.htm(검색일: 2019. 9. 20).
- _____. 2021. 「国务院关于印发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的通知」. (10월 4일).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1-10/26/content_5644984.htm(검색일: 2023. 12. 4).
- _____. 2021. 「国务院关于印发“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的通知」. (12월 12일).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2-01/12/content_5667817.htm(검색일: 2023. 12. 6).

- _____. 2021. 「图表：“十三五”期间我国对外投资存量翻一番」. (1月 30日). https://www.gov.cn/xinwen/2021-01/30/content_5583685.htm(검색일: 2023. 12. 2).
- _____. 2021. 「商务部 中央网信办 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的通知」. (10月 9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10/27/content_5645853.htm(검색일: 2023. 12. 6).
- _____. 202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3月 13日). 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검색일: 2023. 12. 5).
- _____. 2023. 「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主席声明(全文)」. (10月 18日).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0/content_6910132.htm(검색일: 2023. 12. 12).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改革委. 2018. 「国家发展改革委关于发布境外投资敏感行业目录(2018年版)的通知」. https://www.ndrc.gov.cn/fggz/lywzjw/zcfg/201802/t20180211_1047052_ext.html(검색일: 2023. 9. 20).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 「新时代的中阿合作报告」. (12月 1日). https://www.mfa.gov.cn/web/wjb_673085/zfxxgk_674865/gknrlb/tywj/zcwj/202212/t20221201_10983991.shtml(검색일: 2023. 12. 3).
- 中国交建. 2022. “5-year operation of Kenya’s Mombasa-Nairobi Standard Gauge Railway.” (June 6). (http://en.ccccltd.cn/xwzx/zxbd/202206/t20220613_172683.html)(검색일: 2023. 9. 17).
- _____. 2022. “Nigeria’s Lekki Deep Sea Port completed.” (November 7). <https://www.ccccltd.cn/>(검색일: 2023. 9. 17).
- AEI. 2023. “China’s Global Investment Surges, Finally.”
- Beijing Review. 2023. “Local Integration.” (August 16). https://www.bjreview.com/World/202308/t20230816_800339602.html(검색일: 2023. 11. 29).
- BNamericas. 2021. “China Three Gorges Brasil’s clean energy plans.” (July 5). <https://www.bnamericas.com/en/interviews/china-three-gorges-brasils-clean-energy-plans>(검색일: 2023. 11. 29).
- _____. 2023. “Snapshot: China’s involvement in the Chilean power sector.” (January 20). <https://www.bnamericas.com/en/features/snapshot-chinas-involvement-in-the-chilean-power-sector>(검색일: 2023. 9. 16).

- _____. 2023. "Why Brazil-China energy relations may improve under Lula." (February 6). <https://www.bnamerica.com/en/analysis/brazil-china-energy-relations-why-they-are-likely-to-improve-under-lula>(검색일: 2023. 9. 16).
- Brookings. 2021. "FOCAC 2021: China's retrenchment from Africa?" (December 6). <https://www.brookings.edu/articles/focac-2021-chinas-retrenchment-from-africa/>(검색일: 2023. 9. 7).
-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Chin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2021." <https://www.bu.edu/gdp/2022/03/28/trends-in-trade-and-investment-china-and-latin-america-and-the-caribbean-in-2021/>(검색일: 2023. 12. 5).
- CATL. 2022. "CATL announces its second European battery plant in Hungary." (August 12). <https://www.catl.com/en/news/983.html> (검색일: 2023. 12. 7).
- Chatham house. 2021. "What i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September 13). <https://www.chathamhouse.org/2021/09/what-chinas-belt-and-road-initiative-bri>(검색일: 2023. 9. 12).
- _____. 2023. "China-Africa relations." (January 18). <https://www.chathamhouse.org/2023/01/china-africa-relations>(검색일: 2023. 9. 11).
- Chesapeake Energy. 2015. "CHESAPEAKE ENERGY CORPORATION AND CNOOC LIMITED ANNOUNCE CLOSING OF EAGLE FORD SHALE PROJECT COOPERATION AGREEMENT." (November 15). <https://investors.chk.com/2010-11-16-chesapeake-energy-corporation-and-cnooc-limited-announce-closing-of-eagle-ford-shale-project-cooperation-agreement>(검색일: 2023. 12. 7).
- China Invests Overseas. 2019. "Silk Road Fund Becomes a 49% Shareholder in ACWA Power Renewable Energy Holding Ltd." (June 24). <http://www.china-invests.net/20190624/52213.aspx>(검색일: 2023. 12. 6).
- Ching, Victoria Chonn. 2021. "Joining the Game: China's Role in Latin America's Investment Diversification." (July 12).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https://www.bu.edu/gdp/2021/07/12/joining-the-game-chinas-role-in-latin-americas-investment-diversification/>(검색일: 2023. 9. 14).
- CLbrief. 2023. "Relations between Brazil and China in the energy sector

- expand.” (February 9). <https://www.clbrief.com/relations-between-brazil-and-china-in-the-energy-sector-expand/>(검색일: 2023. 9. 16).
- Clearly Gottlieb. 2023. “The Lithium Triangl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Latin America.” (September 25). <https://www.clearlygottlieb.com/news-and-insights/publication-listing/the-lithium-triangle-challenges-and-opportunities-for-latin-america>(검색일: 2023. 11. 30).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2016-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CFIUS-Public-Annual-Report-CY-2016-2017.pdf>(검색일: 2023. 12. 1).
- Froese, Michelle. 2017. “Goldwind secures financing for 160-MW Rattlesnake wind project in Texas.” (May 2). Windpower. <https://www.windpowerengineering.com/goldwind-secures-financing-160-mw-rattlesnake-wind-project-texas/>(검색일: 2023. 9. 18).
- Grab. 2017. “Grab Announces Didi Chuxing and SoftBank As Lead Investors for Current Round of Financing.” (July 24). <https://www.grab.com/sg/press/business/grab-announces-didi-chuxing-softbank-lead-investors-current-round-financing/>(검색일: 2023. 12. 7).
- Heydt, Maureen. 2022. “Towards a Solutions-Oriented Approach: China, Africa and Energy Transition Narrative Building.” (November 17). BU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https://www.bu.edu/gdp/2022/11/17/towards-a-solutions-oriented-approach-china-africa-and-energy-transition-narrative-building/>(검색일: 2023. 11. 20).
- MEES. 2023. “China & India Import New Record Russian Volumes.” (April 28). <http://archives.mees.com/issues/2003/articles/62053>(검색일: 2023. 10. 5).
- Merics-Rhodium. 2023. “EV BATTERY INVESTMENTS CUSHION DROP TO DECADE LOW: Chinese FDI in Europe: 2022 Update.” (May 9). MERICS REPORT. <https://rhg.com/research/chinese-fdi-in-europe-2022-update/>(검색일: 2023. 9. 15).
- Oaklins. “SQM has sold a 24% stake to Tianqi Lithium.” <https://www.>

oaklins.com/cn/en/deals/104906/(검색일: 2023. 11. 30).

Power Technology. 2023. “Enel reaches \$2.9bn deal for Peruvian assets sale to China’s CSGI.” (April 10). <https://www.power-technology.com/news/enel-deal-peruvian-assets-salecsgi/>(검색일: 2023. 9. 16).

Rhodium GROUP. 2023. “Vanishing Act: The Shrinking Footprint of Chinese Companies in the US.” (September). <https://rhg.com/research/vanishing-act-the-shrinking-footprint-of-chinese-companies-in-the-us/>(검색일: 2023. 12. 7).

Tritto, Angela. 2021.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perceptions to realities in Indonesia’s coal power sector.”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1467X21000109>(검색일: 2023. 12. 6).

The US-China Investment Hub. <https://www.us-china-investment.org/fdi-data>(검색일: 2023. 9. 18).

UNCTAD. <https://unctad.org/data-visualization/global-foreign-direct-investment-flows-over-last-30-years>(검색일: 2023. 8. 2).

[DB 자료]

AEI Database.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2022. China’s Global Power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www.bu.edu/cgp/>(검색일: 2023. 11. 28).

CEIC DB(검색일: 2023. 8. 7~12. 14).

CEIC China Premium database.

UNCTAD DB.



부록



부록 표 1. AEI DB의 아시아 지역별 국가 리스트

구분		국가명	
아시아 (총 45개국)	중동 (Arab Middle East)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예멘	
	동아시아 (East Asia)	아세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몽골	
		뉴질랜드	
		북한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한국	
		대만	

구분		국가명
아시아 (총 45개국)	서아시아 (West Asia)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조지아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Changes in China's ODI Strategy Under Xi Jinping's Administr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Jiyoung Moon, Munsu Kang, Minsuk Park, Youngsun Kim, and Minji Jeong

This report analyzes the changes in China's outbound direct investment (ODI) policies and approaches in response to the evolving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in China. By examining the shifts in China's ODI strategies, the report also explores the impact of regional strategies and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from Hu Jintao's second term to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using regional ODI data. Final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ODI, the report presents the risks and suggested responses for South Korea.

In Chapter 2, we examined the changes in China's ODI strategy. China's ODI is closely related to it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hina has pursued the simplification of regulations and the easing of restrictions on ODI. During the second term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the ODI system encouraged overseas expansion, including by private enterprises, and witnessed significant regulatory simplification. The approval process shifted from a stringent examination system to an approval system, and there was a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which contributed to the easing of FDI regulations.

During the first term of Xi Jinping administration(2013-2017), China's ODI began to experience rapid growth in scale and expansion of investment scope across various industries. The broadening scope of China's ODI is attributed to the sustained effects of regulatory relax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new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一带一路).' Since the beginning of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in 2018, amidst escalating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Western countries have initiated measures to counter China's influence. In response, China has strategically use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to interpret ODI as a supportive method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Emphasizing goals such as stabilizing supply chains, enhancing global corporate capabilities, entering emerging markets, and advanc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pursued an ODI strategy. There was a notable decline in M&A activity in the technology sector, which had previously been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Meanwhile, there was a gradual expansion of greenfield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offer favorable conditions for market entry and resource acquisition.

From the second term of Hu Jintao to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China's ODI policies significantly influenced China's actual ODI. During this period, China consistently relax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ODI, while simultaneously increasing the level of management over investment areas. As a result, from the first term to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China's ODI rapidly expanded in scale. In addition China's intention to position ODI as a supportinvemethod for national development was gradually

manifested, as the country'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ecame more defined.

Chapters 3 to 5 of this study analyze China's ODI strategies in key regions are analyzed. The analysis covers the period from the second term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to the second term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based on chronological, enterprise-type, investment-type, and sector.

Chapter 3 analyzes China's investment strategy and curr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China's ODI in the U.S. and the EU has three main characteristics. First, regulations focused on advanced countries have affected China's overseas expansion. Particularly, the Trump administration's tightened regulations on China's investment in advanced technology sectors since 2017 have led to a decline in M&A investment. Similar regulatory trends have been observed in the EU region, resulting in a decline in China's investment in the EU. Second, there has been a shift from state-owned enterprises to private companies and a transition from brownfield to greenfield investments. The change in investment subjects became evident during the transition from Hu Jintao's second term to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ith a gradual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 by private enterprises. While brownfield M&A investments were prevalent in the earlier period, there was a shift toward greenfield investments due to changes in the M&A investment environment during Xi Jinping administration. Third, the motives and key investment sectors of China's outbound investments have changed over different periods. During Hu Jintao's second term, investment in the U.S. and the EU focused on the energy sector. In Xi Jinping's first term, investment focused on real estate, finance, transportation, and technology. In Xi

Jinping's second term, there was a greater emphasis on investment in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 These changes are interpreted as reflecting shifts in China's investment motives due to policy changes by the Chinese government.

Chapter 4 investigates China's ODI strategies and current status of China, focusing on the ASEAN and the Middle East regions since the second term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China's ODI in Asia has been characterized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target countries.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source acquisition, market expansion, and the demand for new cooperation related to green and digital transformation have influenced China's strategies. Over different period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key investment regions and countries, as well as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investment. Particular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China's investments in Asia has emphasized the integr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ODI. The Xi Jinping government actively promotes the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companies based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ighlighting the coordination of Belt and Road projects with investments in the ASEAN and the Middle East regions. The Chinese government actively uses ODI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means of external promo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facilitating the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monitor China's overseas investment trends, by recognizing that China is increasing investment cooperation with the ASEAN and the Middle East not only from a political and diplomatic perspective but also for economic security,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 promotion of new growth industries.

Chapter 5 examines China's ODI in Africa and Central and Latin America. In these regions, China has focused its investments primarily on the energy and metals & mineral sectors, a trend that can be linked to the Chinese government's main goal of securing raw materials. The most significant investments have taken place since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However, during the Xi Jinping era,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expanded its investments not only in energy and metals & mineral sectors but also in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agriculture. China has actively engaged in economic cooperation and diversified investment in various sectors through forums such as the China-Africa Forum and the China-CELAC Forum, enhancing economic collaboration through consultations with each region. China's ODI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frica and Latin America, in part because these countries have actively sought foreign investment for their own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economic growth, which wa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Chinese investment. However, a change in the pattern of China's ODI can be observe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3. Follow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actively cooperated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 supply chains and increased investment in Africa and Latin America.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Δ strengthening government cooperation channels for ODI Δ creating momentum for ODI in emerging markets such as green and digital sectors Δ strategically expanding policy initiatives for Korea-China cooperation in third countries.

First, China adopts a strategy to promote ODI by providing

incentives through policies encouraging companies to expand abroad domestically. Externally, it adopts a strategy to facilitate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by utilizing various channels of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and foster an environment of economic cooperation. This includes using government agreements to build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bilateral government communication channel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bodies such as BRICS and BRI. China has consistently applied this strategy of promoting ODI through government agreements until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This is seen as an effective strategy to address new concepts of economic security and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supply chain blockage.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a similar approach in the Middle East through its "One Team Korea" strategy, which coordinates ODI through government-to-government agreements.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ODI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resources and emerging industries sectors, and heightened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ere is a need for joint responses from government and business. Therefore, it is crucial for South Korea to actively consider engaging in government-to-government discussions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summits with 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s. At the same time, the use of business forums should also be thoroughly explored.

Second, during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China has begun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ODI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particular, give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digital economic growth for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 is a concentrated effort on ODI strategies in emerging areas such as green and digital sectors. This focus was also underscored during the high-level forum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 October 2023 as well. It is noteworthy that the strategic industries selected by China for new ODI momentum are also critical for South Korea. As emerging industries gain prominence, securing markets becomes closely linked to a nation's overseas production capabilities. Especially in regions such as Latin America, Africa, and the Middle East, where developing countries are focusing on resources and emerging industries, various forms of support are crucial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secure comparative advantages.

Third, there is a strategic need to expand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in third countries. South Korea's ODI and China's ODI overlap significantly. China strategically defines minerals, energy, and advanced technology as key resources and invests heavily in green and digital sectors. Competitive dynamic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re already emerging, especially in intermediate goods production. While this may be a constraint on South Korean companies' ODI, it should be strategically leveraged as a new opportunity. South Korea has a history of joint investment with China in third countries, particularly in energy, utilities, and infrastructure.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trategic cooperation in new areas, including strategic industries for both countries.

〈책임〉

문지영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금융학 석사

중국 칭화대학교 금융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morganmoon@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공저, 2022)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22) 외

〈공동〉

강문수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캔자스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angms@kiep.go.kr)

저서 및 논문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공저, 2022)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방안 연구』(공저, 2023) 외

박민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s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공저, 2020)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22) 외

김영선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중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youngsun@kiep.go.kr)

저서 및 논문

『미·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공저, 2021)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공저, 2022) 외

정민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사, 경제학사 및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사회과학 석사(정치학 전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j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공저, 2021)

『기후·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공저, 2022)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3년

- 23-01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 곽성일 · 신민금 · 김제국 · 장용준 · 최보영
- 23-02 인도태평양 시대 한 · 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 김정곤 · 김경훈 · 백종훈 · 남유진 · 조원득
- 23-03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 조동희 · 문성만 · 윤여준
- 23-04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 한선이 · 김예진 · 박규태 · 정민지
- 23-05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 강구상 · 김혁중 · 김중혁 · 권혁주 · 성원
- 23-06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23-07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 한형민 · 노윤재 · 김도연 · 백종훈 · 김소은
- 23-0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 / 장영욱 · 김윤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임유진 · 김초롱 · 전해원
- 23-09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 최원석 · 한형민 · 조성훈 · 홍진희 · 윤형준 · 차정미
- 23-10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 · 일 간 협력방안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손원주
- 23-1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다울 · 이정균 · 최유정
- 23-12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 정지원 · 정지선 · 송지혜 · 유애라 · 박소정 · 김지현 · 김은주
- 23-13 순대외금융자산이 경제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효상 · 송예나 · 김경훈 · 고택기 · 임희동

- 23-14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이주관 · 이천기 · 박지현 · 박혜리 · 김민성
- 23-15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
오지영 · 이은석 · 유애라 · 박차미 · 이예림
- 23-16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 · 김진오 · 강준구 · 박미숙 · 이승호
- 23-17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
황의식 · 서진교 · 강형준 · 표유리 · 우가영
- 23-18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 강문수 · 손성현 · 유광호 · 이지은 · 한새롬
- 23-19 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 정민현 · 강부균 · 민지영 · 김원기
- 23-20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
김혁중 · 오종혁 · 권혁주
- 23-21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예상준 · 엄준현 · 이승래 · 정연하
- 23-22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구경현 · 강구상 · 김혁황
- 23-23 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
한원태 · 김효상 · 송새랑 · 김준형
- 23-24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
백예인 · 윤상하 · 김현학 · 이지윤
- 23-25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김영귀 · 이규엽 · 강민지
- 23-26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박지원 · 노윤재 · 조성훈 · 나승권
- 23-27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
장영욱 · 이철원 · 나수엽 · 이현진 · 임유진
- 23-28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
정지현 · 허재철 · 김홍원 · 이한나 · 박병광 · 정현욱
- 23-29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
박인휘 · 최용섭 · 이효원 · 이왕휘 · 정한범 · 정성철 · 최경준

- 23-30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김현수 · 예상준 · 강민지
- 23-31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허재철 · 김주혜 · 최재희 · 최지원 · 김성해 · 김승수
- 23-32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
이승신 · 최원석 · 문지영 · 나수엽 · 오종혁
- 23-33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
최인아 · 오지영 · 김영선 · 김소은 · 장한별
- 23-34 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
라미령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23-35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
김윤정 · 이철원 · 오탈현 · 김초롱 · 강유덕
- 23-36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
문지영 · 강문수 · 박민숙 · 김영선 · 정민지
- 23-37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잡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
정덕구 · 강준영 · 장영희 · 변정아 · 유다인

■ 2022년

- 22-01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
허재철 · 연원호 · 김상배 · 김연규 · 김홍규 · 박성빈 · 이승주 ·
이준구 · 이왕휘
- 22-02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
이규엽 · 이천기 · 최원석 · 엄준현 · 황운중
- 22-03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백예인 · 한민수 · 김원기 · 김현석
- 22-04 인도의 신 · 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한형민 · 김정곤 · 김도연 · 백종훈 · 김소은
- 22-05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 · 윤상하 · 박지원 · 나승권 · 이성희
- 22-06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
최원석 · 정지현 · 박진희 · 이한나 · 김주혜 · 최지원
- 22-07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 · 강구상 · 최원석 · 오탈현 · 이현진 · 오종혁 · 이정은

- 22-08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 강구상 · 김중혁 · 권혁주 · 박은빈 · 고종완
- 22-09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 중동의 식량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 강문수 · 한선이 · 손성현 · 김예진 · 정민지 · 박규태
- 22-10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 이은석 · 오지영 · 윤혜민 · 박차미 · 홍문숙
- 22-11 글로벌 환경상품 · 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 이주관 · 조문희 · 강준구 · 김지현
- 22-1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 최장호 · 김다울 · 이정균 · 최유정
- 22-13 코로나19 위기와 기업경쟁구도 변화: 과거 경제위기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상하 · 백예인 · 한원태 · 이운수 · 김대순
- 22-14 미 · 중 · 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 박정호 · 강부균 · 현승수 · 제성훈
- 22-15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 구경현 · 배찬권 · 박혜리 · 류기락
- 22-16 기후 · 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장영욱 · 이승호 · 송지혜 · 김제국 · 정민지
- 22-17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 정영식 · 오갑진 · 한원태 · 백예인 · 강은정 · 김유리
- 22-18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 노윤재 · 박지원 · 조승진 · 김민희
- 22-19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 윤정환 · 이은석 · 송지혜 · 윤혜민 · 박소정
- 22-20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종덕 · 조문희 · 김현수 · 강준구 · 김혁황 · 권현호 · 김천곤
- 22-21 미 · 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 홍성우 · 이승호 · 김진오 · 박미숙 · Alenka Guzmán
- 22-22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곽성일 · 정재완 · 신민금 · 김제국
- 22-23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 연원호 · 김효상 · 문지영 · 나수엽 · 김영선

- 22-24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 · 김혁황 · 금혜윤 · 이승래
- 22-25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정지현 · 성한경 · 김홍원 · 이하나 · 김주혜 · 박혜지
- 22-26 팬데믹과 전쟁 이후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 /
김경수 · 김흥기 · 송치영
- 22-27 미 · 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현상백 · 문지영 · 박민숙 · 오종혁 · 오윤미
- 22-28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
최원석 · 광성일 · 문진영 · 최장호 · 한형민 · 박영석 · 이정균 ·
김은미 · 홍진희 · 김범환 · 김종인 · 윤정현
- 22-29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
권현호 · 이주형 · 김민정 · 광동철
- 22-30 우리나라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 연구 /
김효상 · 안성배 · 정영식 · 양다영 · 김유리 · 강은정 · 강태수 · 김경훈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월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Changes in China's ODI Strategy Under Xi Jinping's Administr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Jiyoung Moon, Munsu Kang, Minsuk Park, Youngsun Kim, and Minji Jeong

본 보고서에서는 시진핑 정부 시기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발전 전략의 투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 그린·디지털 분야 등 새로운 투자 협력 기회 창출, 한·중의 제3국 공동진출 협력 확대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ISBN 978-89-322-1898-4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